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한국사학우회

학우회보

vol.8



발간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주 많겠지만 좀 더 멋진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SNS라는 녀석 역시 소통과 공감의 산물이 아닐까 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저 역시도 인간 사이에서 소통과 공감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지난 몇 년간, 짧게는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는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는지 역시 목격하였습니다. 때로는 사건사고를 만들고, 때로는 한 인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소통과 공감은 비단 사회문제에서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남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위의 부재로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헤어짐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통과 공감이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의 행위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을 통해 나와는 다소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학우회보에서는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키워드로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지면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학우의 경험을 직접 입으로 전하거나 듣지는 못하더라도 글로나마 많은 학우에게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글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글을 통해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에서입니다. 그 경험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답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취미활동이나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기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학우의 다양한 경험들이 각기 다른 형식의 글로 완성되어 8회 학우회보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회장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학우회보 발간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지난 6개월 동안 부족한 학우회장에게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고, 학우회 운영을 도와주신 많은 한국사 학우들께 감사인사를 지면으로나마 전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합동연구실에서
한국사 학우회장 박소미 올림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한국사학우회 학우회보 제8호

인쇄 : 2014년 10월 10일

발행 : 2014년 10월 14일

발행인 :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학우회

편집인 : 학우회보 편집위원회

* 본 회보에 실린 글의 무단 전재 및 배포, 인용을 금합니다.

CONTENTS

학우회 심포지움	발간사 (박소미) -----	1
	국제학술회의 참관 후기 (정경민) -----	3
	논문 후기 (김세림) -----	6
	박소미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광개토왕릉 守墓방식 (박소미) -----	14
	토론 : 박소미,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광개토왕릉 守墓방식」 (안정준) -----	26
	박정희 정권 기 제주감귤농협 연구(김효성) -----	29
기말보고서	토론 : 김효성, 「박정희 정권 기 제주감귤농협 연구」 (곽경상) -----	46
	경사요의의 13의에 나타난 정약용의 사법정의 (이재빈) -----	48
학우회보 서평	한국군 초창기 국방부 정훈국의 창설과 운영 (김지훈) -----	67
	자아에 대한 인식과 사회와의 소통을 고민하기(곽경상) -----	79
답사후기	직접 쓰지 않는 한 내 입맛에 맞는 강의 교재는 없다(송용운) -----	81
	근대사 답사기 (이정윤) -----	86
	학우회 답사 후기 (배종열) -----	93
	현대사 답사 후기 (박은영) -----	100
에세이	초짜 강사의 구라와 다짐 (고태우) -----	106
	일과 공부 (김대현) -----	110
	‘최근 한국사 연구의 동향’ (이화정) -----	115
	유치함의 미학, 특촬 무비에 빠지다 (이상민) -----	118
	민장으로 듣는 민의 목소리 (정진혁) -----	127
	각 분과별 동정 -----	130
	학우회 회칙 -----	135
	운영회원 명부 -----	137
	운영위원 명부 -----	138

국제학술회의 참관 후기

연세를 통해 세계를 보고 나를 생각하다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 - 전통, 문화정체성, 제국(Modern Korea and East Asia
- Tradition, Cultural Identity and Empire), 한국학과 세계 포럼 제1회 국제학술
회의를 다녀와서

정경민 (근대사분과)

교내에서 오랜만에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박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명단을 보고 여전히 설레임을 간직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유수한 학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학자들을 연예인 보듯이 하는 느낌은 석사과정 초기에 나(?) 가지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순수한가보다..(학자들부터 순수까지의 문장은 편집자가 잘 편집해주시리라 믿는다)

나의 이러한 기대감을 알아주듯이 2014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석학들이 모여들어 그 어느 학술회의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고민거리들을 제시해주었다.

첫 날은 단일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의 지적네트워크와 근대 한국이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발표들이 진행되었다.

한말 개혁기 근대 민법 제정과 식민지적 변환 - 왕현중(연세대)

고대 조선의 역사적 계보 속 만주의 재정립 - Stella Xu(Roanoke College)

식민지도시의 공간과 문화 - 橋谷 弘(Hashiya Hiroshi, 東京經濟大)

도쿄와 연안의 예를 통해 본 20세기 동부아시아 초국가적 급진주의 네트워크의 형성과 그 의미 - 황동연(Soka University)

왕현중 선생님은 갑오개혁기부터 대한제국 말기를 연구시기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에 진행된 근대 민법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정부의 노력이 실패한 원인과 이토를 비롯한 통감부 관료들이 제정하려고 한 법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국 측에 의한 자주적인

민법제정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았던 강릉원주대의 이승일 선생님은 고종과 측근세력의 입법방향과 의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의 법 근대화 정책의 실패요인은 정부의 미래 비전 미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Stella Xu 선생님은 1937년부터 1942년까지를 연구시기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의 최남선의 만주국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 발표에서는 최남선의 연구가 극단적 평가 속에서 전체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만주와 조선의 역사적 연관성, 동아시아의 거시사, 만주국의 동시대적 관찰을 중심으로 최남선을 살펴보았다. 토론자 류시현 선생님은 보편성의 접근 속에서 최남선을 사학사, 지성사, 사상사에 위치지를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남선이 '2등 국민'으로서의 조선인을 어떻게 생각하였고, '검열', 언론통제가 실시된 그 당시의 조선인 중심의 사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뒤이어 전개된 다른 두 발표도 양질의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오고 갔으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는 것보다는 제목을 소개하여 독자들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고자 한다.

두 번째 날에는 세션이 두 곳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하나는 이현희 선생님의 사회 하에 (오후에는 이태훈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식민주의와 조선학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용서 선생님의 사회 하에 한국/동아시아의 문화전통과 정체성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각 세션의 발표는 다음과 같다.

제2세션 / 식민주의와 조선학연구

조선후기 역사지리연구의 계승과 식민주의적 변용

발표 : 이준성(한국폴리텍대)/토론: 박준형(연세대)

식민권력과 조선사회의 공존과 균열 -재해문제를 둘러싼 전통, 근대화, '대안적 공공성'

발표: 고태우(대림대)/토론: 최우석(성균관대)

안재홍의 상고사 연구와 민족문화 인식 - 「朝鮮上古史管見」을 중심으로

발표: 채관식(연세대)/토론: 정종현(성균관대)

정인보의 고서해제작업과 전통학문의 재발견

발표: 이현경(연세대)/토론: 장신(성균관대)

위당 정인보의 實學인식과 학문주체론- 『陽明學演論』을 중심으로-

발표: 정덕기(연세대)/ 토론: 정두영(경상대)

‘조선문제’의 정치학 - 전간기 인정식의 조선관과 동아협동체

발표: Lee Seokwon(Rhodes College, 미국) / 토론: 김인수(연세대)

제3세션 / 한국/동아시아의 문화전통과 정체성의 공간

근대 초기 유교지식인들의 出處論과 국가관 - 柳麟錫과 田愚를 중심으로

발표: 노상균(연세대)/ 토론: 은정태(서울대)

19세기 후반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 인식

발표: 이선호(연세대)/ 토론: 김권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From Tokyo to New York: trans-pacific diaspora activism and anti neocolonialism in the 1970s

발표: Chris H. Park(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호주)/ 토론: 정진아(건국대)

공문서의 전통과 제국 - 중국 남북조시대의 경험

발표: 양진성(연세대)/ 토론: 최봉준(명지대)

이 두 세션에서는 많은 수의 발표자만큼이나 다양하고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들이 전개되었다. 다만 아쉽게도 필자의 몸이 2개가 아니므로, 두 발표장을 오고가야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듣지 못한 발표와 토론들이 많았다. 필자가 들은 것만을 적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생각도 들고, 모든 내용을 전부 소개하는 진부한(?) 참관기를 쓰는 것은 독자들에게도 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장황하게 발표주제와 발표자를 소개하였다. 그것은 이번 참관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것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였다.

위의 발표주제와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들을 보면 전공이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학, 서양사, 동양사,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현대사 전공자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혹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공에서 몇 걸음만 벗어나면, 무관심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슬프지만 잘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적지 않은 연구자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포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위의 발표들을 보면 한국근현대사 전공자와 한국고대사 전공자가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학을 하는 사람과도 토론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학제 간의 연구,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라는 연구현실을 이번 학술회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고대사를 비롯하여 다른 시대도 공부를 해라", 그리고 박소미 학우회장-이제는 전임인가요?-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근현대사 수업을 들어가는데, 왜 고대사 수업에는 들어오지 않나요?" 나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을 개설해주어야 들어가지"라고 답을 했지만, 사실 내 마음 한 구석은 부끄러웠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다. '전공자'라는 '명분'으로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실리'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을까..

2014년 9월 10일

따스한 햇살과 도시의 풍경이 보이는 작은방 합연실에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다니.

김세림 (현대사분과)

논문에 대한 후기를 쓴다. 나에게서는 이것 자체가 참 민망하고 수줍은 일이다. 모두가 다 해왔고 할 것이고 나보다 더 잘해왔는데 내가 후기랍시고 쓰는 것이 뭔가 잘난 체 하는 기분이라 멋쩍다. 그래도 일단 약속했으니 쓴다. 그리고 학우회장님께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제안을 받고 나서 약간의 주저함 끝에 승낙해놓고선 완전히 남의 일이라는 듯 잊어버리고 있던 차에 학우회장님의 확인 문자를 받고 아차 하는 마음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다.(사실은 그러고 나서도 내 일을 먼저 한다고 미루고 미룬 후에 쓰고 있다.)

논문에 대한 후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 잔머리가 굴렀다. 마침 그 동안 꾸준히 써온 일기가 있으니 일단 다시 한 번 읽어보자. 읽어보니 당시에 내가 느꼈던 기분들이 전부 생생히 살아있어 나름 개인의 일생사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 같다.

길고 상투적인 말 보다는 내가 그 동안 느껴온 좌절감과 나름의 성취감, 그 것을 솔직한 말들로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겠다. 그래서 아래에는 그 동안 써온 일기의 발췌문을 실었다. 시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논문 주제를 잡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지만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들을 느꼈으니 시점은 2월부터로 잡았다.

(모두의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사에서 가장 험난했던 6개월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아팠던 부분들은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기 위해 조금 추려냈다.)

2014년 2월 5일 선생님과의 면담

4월에 예심을 받기 위해서는 2월 중에 공개발표회를 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접수를 하기 위해 오늘 선생님을 뵈고 왔다. 사실 1월 초에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추가할 내용들을 가지고 갔는데 1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3장의 내용이 부실해서 문제이다. 새삼 생각해보니 8월에 구체적인 주제를 잡고 11월부터 지금까지 넉 달 동안 나름 꾸준히 진전해오긴 한 것 같다. 하지만 논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인지 자료는 아무리해도 나오지 않고 초조한 마음에 뭐라도 만들어내

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 선생님 손바닥 위의 제자인지라 결론을 먼저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뜨끔한 얘기를 들었다. 그 외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과 보안점을 들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들은 내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잘 담아내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겠지. 박사까지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니 힘을 많이 내야겠다. 앞으로가 참 걱정이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즐겁고 설렘었는데 이제 걱정이 더 많아진다.

2014년 2월 13일 일회일비

공개발표일이 다가오고 있고, 시간이 마구 지나가고 있는 때의 초조함은 정말 끔찍하다. 항상 이런 때가 되면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온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논문을 쓰는 과정이 되니 사람들 말 한마디 한 마디에 기분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널뛰기를 해댄다.

웃긴 건 이런 과정을 모두가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 내가 완전히 뉘을 놓고 사는 건 아닌가 보다...살기도 하고....., 내일은 일비 없이 일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014년 3월 3일 또 한고비

그동안 촉박한 마음으로 꼭 잠가놔던 잠을 해제시키고 나니 도리어 밤에 잠이 안 온다. 지난 28일에는 한국사의 모든 교수님과 학생

들 앞에서 논문 초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조언을 들었다. 예심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인데 신청을 하고 나서 원고를 만들 때까지 별 생각이 없다가 선생님들께 "초안입니다." 하면서 원고를 돌리고 나니 내 글이 얼마나 엉망인지 새삼 깨닫게 되어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다. 요약문을 만들다 보니 얼마나 어설픈 글을 만들었는지 느껴서 책상에 머리를 쿡쿡 찌르기도 하고....., 발표 당일에는 발표자들끼리 모여서 점심 먹는데 김밥 세 줄을 시켜놓고선 결국 두 줄 이상을 버렸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글을 가지고 발표해도 되냐고 했더니 한 선배는 이게 모두가 겪는 과정이고 내 글이 쓰레기라고 느껴야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라고 해줬다. 하필이면 발표순서도 마지막이라서 남들 지적받는 거다 보면서 기다리려니 손발이 바싹바싹 마르는 게 이거 무슨 도살장에서 내 순서 기다리는 느낌이고.....,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 순서도 지나가고 좋은 조언도 많이 듣고 끝났다. 선배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적해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지 깨닫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방향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눈이 번쩍 뜨였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것들을 내가 얼마나 소화해내서 글을 만들 수 있을지....., 이번 학기에 예심을 받으려면 3월 중순까지 이번엔 지적받은 걸 다 소화해낸 글을 가져가서 보여드려야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번에 발표하길 잘했다고 많이

느꼈다. 사람들에게 감동도 많이 받았다. 내가 발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살짝 찍어주기도 하고, 발표장에는 못 와도 원고보고 회식 자리 와서 조언해준 선배도 있었고, 따로 메일로 보내준 선배도 있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조언해주시는 내용을 빼곡하게 메모해서 발표 끝나자마자 네 명씩이나 내게 전해줬다. 둘러싸여서 메모를 전해 받는 데 이건 정말 우와 사랑받는 느낌!!! 엄마는 원고 작성하는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끼니마다 비빔밥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요새 돈을 못 버니까 다음 학기 등록금도 대주신다고 하고.....,

요즘 많이 느낀다. 논문은 나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채찍질, 이해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 학기 안에 꼭 졸업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확인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꼭 보답해야지.

2014년 3월 15일 한 걸음. 오늘은 대견함

논문 초안 발표회가 끝나고 약 2주 안에 피드백 받은 것들로 글을 새로 짜려다 보니 잘 때도 머릿속으로 논문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다른 선배들은 다 그렇다던데 나는 지난 일 년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애기인가 했더니 역시 그건 내 오만이었던 것이다. 이런 삶을 일주일 정도 보냈더니 새로운 틀은 완성이 됐지만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밤인지 낮인지 감이 안 오게 됐다. 연구계획서에 선생님 사인을 받고 과사에 제출한 후 학교를 나서니 내가 정말 논문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났다. "나 이제 졸업하려나봐..."라고 감격스럽게 얘기하니 친구

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역시 내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다보니 모든 것이 무섭고 모든 것이 걱정스러운가 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록금도 안 내고 휴학할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선생님은 딱 5분 뵈었다. 며칠을 조마조마했던 게 민망하리만치 너무 순식간에 예심이 결정되어서 얼떨떨할 정도. 발표회 직전만 해도 예심 볼거니?라고 물어보셔서 "일단 해보고요-"라고 했는데 일단 해본 게 논문까지는 갈 수 있으려나 보다. 이제 정말 끝을 향하는 문 하나를 연 기분이다. 나는 어떻게 이 과정까지 오게 된 걸까. 직장인 친구들을 만나서 회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잔뜩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리를 해봤다. 나는 왜 직장이 아닌 대학원을 택했을까.

결정적인 계기는 학부 때의 학술제였는데, 그 이후 휴학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정말 직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었다. 9시부터 6시까지의 하루 일과는 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녁부터가 내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니 일하는 하루가 괴롭고, 늦게 출근하고 싶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미 대학원진학을 결정한 후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 일이 온전히 내 성취이길 바랐던 것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이 더 기쁘다. 미약하지만 내가 고민한 주제, 내가 고민한 문제의식, 내가 찾아낸 소재와 자료들, 내가 공리화한 이야기 흐름들로 내 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고 그 막바지 단계에, 문 앞으로 나가고 있어서 참 기쁘다.

2014년 3월 28일 울산에서

또, 또 잠이 들질 않는다. 눈은 피곤한데 자려고 누우니 적막함이 견딜 수 없어져 일어나고 만다. 나름대로 바쁜 하루였는데도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매일 새벽 늦게 자다 보니 몸에 배어버린 걸지. 잠은 오지 않지만 책은 읽기 싫으니 일기나 써야겠다. 여기는 울산이다. 공원에서 인터넷으로 동네 경로당들을 찾은 후 쳐들어가서 또 인터뷰 대상자를 찾았다. 마침 60년대부터 쪽 살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간략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날 귀찮아하는 그 분위기에 밀려서 많이 물어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자체로도 중요한 내용은 많았지만, 중간 중간에 질문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참 좋은 기회였는데 많이 아쉽다. 그리고 다른 경로당으로 이동해 봤더니 객지에서 오신 분들 뿐이라면서 사람 많을 때 다시 오라고....., 지난 이틀 간 사람이 너무 그리운, 젊은이가 너무 그립고, 자기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노인과 있다가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화투치기에 바쁜 노인분들에게 거부(?)당하고 나니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큰 요인은 무엇인가 고민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것보다 지금은 젊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낯선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게스트 하우스에는 사람이 없고(있어도 마주칠 일이 없었고) 지금 6인실 방도 이틀째 나 혼자서 쓰고 있는데다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한 노인에게 기를 빨리고 났더니 젊은 사람이 참 그립다.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낯선 곳에서 혼자 있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같은 한국인 데도. 한편 상공회의소를 나와서, 경로당을

나와서,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걸 느꼈다. 논문을 시작한지는 오래되었지만 매 순간 순간 단계를 밟아갈 때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 대체 언제까지 이 느낌이 들까. 언젠가는 끝이라는 느낌이 들까? 그런데 일단은 잠이 좀 왔으면 좋겠다.

2014년 3월 29일 구술을 하며 느껴지는 것들

인터뷰 대상자들이 전부 70대 중반 이상이라 5일 내내 노인 분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했다. 나의 노년은 어때야 할지, 노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 곳이 경남인 이유도 클 텐데, 오늘은 한 할아버님께서 젊은층의 정치의식에 대해 맹렬히, 정말 맹렬히 비판하셨다. 집회나 해대는 통에 나라가 시끄럽다면서. 반면에 한 구술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시대상황이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얘기다. 일제의 핍박, 이후의 전쟁, 생존이 가장 절박했던 시대를 사셨던 분이니까 "지금은 정말 살기 좋아졌다.", "젊은 사람들은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벌어들이는 절대 액수는 커졌지만 그것을 잡아먹는 빚더미. 인간소외, 열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라고 강요하는 사회. 모멸감을 강요하는 사회. 이 시대는 이 시대만의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 시대는 또 그 시대만의 아픔이 있다. 그러나 결국 한 시대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데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지난 선거 때도 크게 고민했지만 가닥도 잡히지 않는 고민이다. 아마도 이 고민은 평생을 끌어안고 가야할 문제이지 않을까.

이곳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의

문이 해소되었지만 더 큰 고민이 어깨에 올라왔다. 낯선 사람을 무작정 찾아다녀야 하고, 그들에게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해야 하고 한데 뭉쳐진 기억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시대만을 걸러내는 눈을 길러야 하는 등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심지어 '어린 여자'라는 것도 걸림돌이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살아있는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 구술사하기를 잘 한 것 같다.

2014년 4월 8일 제목없음

좋지 않은 일주일을 보냈다. 아마 올 해 최악의 날들이지 않을까. 어쩌면 인생에 최악의 순간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다. 정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가 친구가 영화시사회에 데려가주어서 일주일만에 외출을 했다. 그런데 영화를 잘 보다가 마지막에 내 앞자리 노인이 아이처럼 우는 걸 보고 땀혀있던 눈물이 그만 폭포수처럼 터져버려서 종로 한복판에서 "아프다" "아프다"하며 여자 둘이서 찢찢거리며 울고 다녔다.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았는지, 지금도 그 노인의 하얗게 센 뒷머리와 "엄마 생각나서 그래?"라는 옆자리 노인의 말을 생각하면 울대가 울렁울렁해진다. 참고로 이 날 본 영화는 '아버지의 이메일'이라는 영화였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는 걸 보면 내가 확실히 사학과이긴 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차피 결국 지을 글이지만, 일단 뭐라도 쓰기 시작한 게 나한테는 중요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한다. "내일은 논문이 술술 써지게 해주세요."라면서, 쓰자. 쓰자. 쓰자.

2014년 4월 22일 바닥을 치고 나서

생각의 전환.

지난 금요일에 정말로 꾸역꾸역 겨우 원고는 완성해놓고 선배들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너무 부끄럽고 한 글자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지난 2주 동안이 원망스러워서 정말로 엉엉 울어버렸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아무 것도 모르겠고,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음 학기로 미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정말 그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크기의 좌절감을 느꼈다. 친구는 옆에서 계속 괜찮다, 선생님이 생각이 있으니 심사를 보라고 하셨겠지, 지나고 나면 별 거 아니다, 고치면 되는 거다. 이제 막 초고일 뿐인데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라. 이미 논문 써본 사람으로서 얘기해주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되었다. 그러다가 오늘 그 동안 받은 지적들을 하나로 모아서 생각해보면서 내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앞서나가는지, 선생님은 문제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하시는데 왜 선배들은 문제의식이 불분명하다고 하는지 고민하고 한숨을 쉬다가 친구를 붙잡고 한탄을 하는데, 결정적인 한 마디를 들었다. "그러면 머리말이 빈약한가 보지 뭐"라면서, 글을 본 선배들에게는 머리말이 빈약하니 문제의식이 불분명해보이고, 그 동안 내 얘기를 듣고 내가 해오는 것들을 본 선생님은 내 머리 속을 보고 계시니 되려 문제의식이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보신다는 거다. 순간 머리를 때렸다. 그 동안 예상되는 결론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만 노력하다보니 자연히 중간 과정에서는 논리적인 비약과 실증이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문제의식을 머리

말에서 충분히 정리해서 설득시켜 봐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로 설득을 시키려 하다 보니 자연히 문제의식은 드러나지 않고 결론만 성급하게 내려는 조바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순식간에 뻘치다보니 정리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퍼즐 맞추듯이 맞아떨어졌다.

2014년 4월 23일 세월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걸까.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된 사람은 계속해서 시신으로 돌아온다. 살아있다고, 빨리 좀 구해달라는 생존자들의 외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물속에 잠기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어디부터 가야 할지 순서를 정하는 단원고 학생들이 있고 안산은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실종자 가족이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하고, 선장은 자기가 잘 했다고 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자기 홍보하기에 바쁘다. 도대체 어디까지 미쳐야 이렇게 될 수 있는걸까. 기껏만 들어났던 규제들을 다 풀어놔서 남들이 버리는 배 주어가다 운행하고 재난 시스템은 먹통에 다들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사람이 희망인데 아이들을 나몰라라 버리고 있으니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오늘로 사망자 121명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2014년 4월 29일 머리가 어질어질

예심이 끝난 지 어느새 일주일이 되어간다. 심사 끝나자마자 마음을 정리해서 일기를 써 두려고 했는데 정신없는 하루하루에

이제야 글을 남긴다. 심사가 끝난 후 선배 언니와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내 논문을 기대해주고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두 명뿐이라는 얘기가 크게 와 닿았다. 나와 내 지도교수.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 것들을 느끼고 울며불며 일주일을 보내서 일기에 남기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쓰다 보니 많은 것들이 걸려진다.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고 참담하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일 들려오는 뉴스에 마음이 만 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이다. 결국엔 다 우리 탓이 아닐까. 두 번의 정권이 들어서도록 허락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잘난척한다, 네 일이나 잘해라 해왔던 우리가 결국 이 사단이 나도록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릴 적에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왔다는 이유로 몇 년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그 때의 일을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내린 결론은 반 전체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날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건 한 둘이고 나머지는 방관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그 방관자들이다. 자기와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엮이기 싫어서, 내심 그 광경들이 재미있어서 그저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우리가 딱 그 사람들이다. 방관자이다. 나쁜 것들을 더욱 활개 치게 놔둔 것이다. 그런데 무관심의 결과, 귀찮음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내 밑의 세대에게 돌아갔다. 정말 죄 없는 아이들이 우리의 무관심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 당장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막막함은 결국 우리의 탓이다.

2014년 5월 1일 학술적 글쓰기

학술적 긴장감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다보니 결론은 '논증'이다. 논문이니까 논증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보니 내 글은 논증이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가 너무 싫어서 날 한대 세계 때렸다.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게 깨달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내 자신이 참 싫다. 글을 정말 새로 써야겠다. 다 쪼개고 부셔서 새로 반죽해야겠다.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잠도 오고 배도 고프다. 너무 싫다.

2014년 5월 30일 체력의 중요성

한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꼬박꼬박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새식구를 받아들이는 데만도 빠듯해서 운동을 못했더니 체력이 푹 푹 떨어진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며칠인지 기억도 안나는 때가 되자 이제 앉아있는데도 머리가 어지럽다. 피로가 쌓이는데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니 그 여파가 오고 있는 듯하다. 쉴 시간이 없기도 하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특별히 쉰다는 생각 없이 살아왔던 습관이 결국 몸을 망치고 있는 것 같다. 주말이 없는 삶은 평일에 내가 몸이 힘들면 적당히 용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바쁠 때에는 먹고 쉬고 자는 것 모두를 포기하게 되니 힘들다. 그래도 전에는 억지로라도 쉬는 날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감각도 없이 눈을 뜨면 환기 및 집안 청소를 하고 고양이 밥을 챙겨주고 나도 밥 먹고 오

후에 공부하다가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잠시 외로워하는 고양이랑 놀아주고 밤새 공부하다가 정말 몸이 못 견딜 때 잠들어서 4~5시간쯤 후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체력이 푹푹 떨어졌나보다.

특히 이 일주일이 많이 힘들고 오늘 밤이 너무 힘들다. 아.....사람이 공부하다 쓰러질 수 있다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하필 오늘은 꼬박 밤을 새야 하니 일단 버텨야겠다. 내일 선생님 뵙고 와서는 좀 푹 쉬고 다시 운동을 병행하면서 해야지.

2014년 6월 16일 우울함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지만 마감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완성도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다. 나 스스로 알고 있는 너무나 부족한 글이, 그것이 곧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지난 3년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그냥 그 결과만으로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라.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우울하다. 여기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고, 자괴감에 빠져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여러 일들에 핑계를 대며 화를 내보고 싶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결국엔 내 실력의 부족임을 알아서 더 화를 낼 수도, 핑계를 댈 수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 너무 싫은 밤이다. 지치기도 했고, 지겹기도 했고, 사실상 귀찮기도 했다는 그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글에 다 드러나는 것이라. 굉장히 부끄럽다. 맥주나 한 캔 까고 다시 두들겨 봐야지.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래 이게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로도 계속 붙잡고 늘어질 주제니까. 정말 부

끄럽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
D-25

2014년 7월 1일 이제야 보이는 것들

처음 논문 구상을 하고 선배랑 얘기를 할 때 결론 한 줄을 쓰기 위해 본문에 두 문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논문을 쓰고 있다 보니 이제야 그 한 줄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다. 내가 내 논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남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문장의 추가. 그 한 문장을 넣기 위해 책을 몇 권을 보고 각주를 몇 개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책으로 내 논문의 한 문장이 늘어나면서 내 논문의 외연이 조금이나마 넓어지는 것을 보며 남들도 이렇게 논문을 써왔겠구나.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함축하고 담아내려고 애쓰면서 썼겠구나. 깨닫고, 놀란다.

이 한 줄, 한 문단이 안 써져서 며칠을 밤을 새고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면서 하는 구나. 이제 열흘 남았다. 정말 끝은 있구나.

2014년 8월 1일 인생은 언제나 예상 밖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지칠 정도로 바쁜 시간들. 논문이 끝나고 나서는 번아웃 해버려서 가벼운 수납장 하나 옮기는 데도 땀을 뻘뻘 흘렸다. 논문 막바지에 동기들에게 다시는 밤을 새지 않겠노라 천명했지만 오히려 끝나고 나서 일 때문에 밤을 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엄마가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다. 아슬아슬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이라면서. 그 몇 주 사이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무튼 요즘 정말 바쁘다. 그리고 몸이 못 버틸 정도로 피곤하다. 밥만 먹으면 눈물

을 철철 흘리면서 하품을 하고 잠을 자도 항상 부족하고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언제쯤 쉴 수 있을지. 정말 관 속에 들어가야 쉴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하는 친구는 극한의 피로에 오면 항상 영원히 잠들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딱 내 마음이다. 자고 싶다. 영원히 자도 좋으니 일단 푹 자고 싶다. 오늘 논문 지도선생님들께 논문을 갔다 드렸는데 "김석사 축하하네"라면서 악수를 해주시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다.

여전히 기분이 묘하다. 아직도 잠시 쉬고 있는 기분이고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차분히 생각할 시간 없이 지금은 좀 바쁘게 지내고 있다. 내 일기지만 다시 읽어보니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마구 스쳐간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 그럴 것이고, 그래왔다. 다만 그 순간순간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뒤쳐지는 것 같고, 나만 무식함을 자랑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외롭고 괴로워진다. 간혹 누군가는 전혀 어려움 없이 이 순간을 보내고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겠지만 일단 나는 당신과 같다는 것을 혹은 당신보다도 정말 좌충우돌이 심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도하고 위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일기를 가져왔다. 나에게도 아직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나의 좌충우돌은 이제 겨우 시작했다. 매 순간이 이제야 시작한다는 기분이었고, 그 끝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끝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시작이다. 매 순간의 시작을 즐기다 보면 언젠가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광개토왕릉 守墓방식

박소미 (고대사분과)

1. 머리말

2. 守墓人 동원방법 - 徙民說과 番上入役說 -

3. 舊民과 新來韓穢 편제방식

4. 맺음말 - 國烟과 看烟 문제 -

1. 머리말

중국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광개토왕릉비는 414년에 장수왕이 광개토왕의 훈적을 위해 세운 四面石으로 된 碑이다. 입비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나뉘기도 하지만, 비가 세워진 이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현재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국내 문헌 사료는 『龍飛御天歌』이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에서는 이 비가 광개토왕릉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¹ 이후의 기록에서도 광개토왕릉비가 여진족이 세운 金나라의 始祖碑라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였다.²

이렇게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존재 및 어느 대의 누가 만든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1500여년 가까이 방치되어가던 상황에서 19세기 말 즈음에 광개토왕릉비가 발견이 되기 시작한다.³ 그리고 이 시점부터 발견되어 일본과

1) 『용비어천가』 제39장 注에서 “平安道江界府西 越江一百四十里 有大野 中有古城 諺稱大金皇帝城 城北七十里 有碑 又其北有石陵二”라 되어 있음.

2) 17세기 초 이수광이 지은 『芝峰類說』에서 이와 같이 파악했다고 한다.(徐榮洙, 1995 「廣開土大王 碑文의 연구사적 검토」 『고구려연구』1, 고구려연구회, 151쪽.)

3) 19세기 말에 광개토왕릉비 재발견되었다는 내용은 같으나,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나뉘고 있다. 재발견의 시기를 가장 빠르게 보는 설은 1874년이거나 그 이전이고, 이외에도 1875년 혹은 1876년 설, 그리고 1880년 설 등이 있다. 재발견 시기에 대해 특정한 연도로는 말할 수 없으나, 1877년 ~ 1882년 사이에 비가 발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재발견 과정에 대한 내용은 李進熙 著, 李基東 譯, 1982 『廣開土王陵碑의 探究』, 一潮閣; 王健群 著, 林東錫 譯, 2004 『廣開土王碑 研究』, 한국학술정보 참조.)

중국에서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글들이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광개토왕릉비 발견을 ‘광개토왕릉비의 재발견’이라 한다.

광개토왕릉비 4면에는 모두 글이 새겨져 있다. 광개토왕릉비문(이하 비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주몽의 고구려 건국 과정과 초기 3대 왕위 계승 및 광개토왕에 대한 간략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영락 5년(395년)부터 영락 20년(410년)까지의 광개토왕의 정복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부분이다. 세 번째 부분이 비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개토왕릉을 수묘하기 위한 수묘인을 차출하는 지역과 차출 규모를 기록하고, 왕릉 수묘와 관련한 습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광개토왕릉비가 재발견된 후, 비문을 두고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은 비문의 두 번째 부분에 기록된 일명 ‘辛卯年’ 기사이다.⁵ 특히 일본학계에서는 이 기사를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인보나 박시형 같은 한국인 학자들은 이와 반대로 본인만의 讀法으로 광개토왕이 일본을 공격하려 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⁶ 이 외에도 비문에 나타난 정벌기사를 통해 광개토왕의 정복활동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문 세 번째 부분의 守墓人烟戶條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기 시작했다.⁷ 비문의 수묘인 연호에 대한 부분은 결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비문 해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만, 그 내용을 토대로 당시 광개토왕릉을 어떤 방식으로 수묘했는가에 대한 의견은 연구자들마다 각각 다르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견해들을 검토해보면서, 장수왕은 광개토왕릉을 어떻게 수묘했는지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비문을 통해 ‘고구려 수묘제’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⁸ 그러나 비문에서는 어디까지나 ‘광개토왕릉’에 대한 수묘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문을 통해 ‘고구려 수묘제’ 전체로 확장시키지 않고, 광개토왕릉 수묘에 대한 것으로 한정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광개토왕릉을 수묘하는 수묘인들을 어떤 식으로 동원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徙民說과 番上入役說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따져볼 것이다. 그리고 동원된 수묘인들은 비문의 표현을 따라 ‘舊民’과 ‘新來韓穢’로 나뉘볼 수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4) 비문에 기록된 수묘인이 ‘광개토왕릉’만을 수묘하는 역할을 담당했는지, 이외의 여러 왕릉들을 수묘하는 수묘인도 함께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5)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

6) 鄭寅普,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庸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國學論叢』;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2007 푸른나무 북간.

7) 일찍이 19세기 후반에 那珂通世가 일부분 관심을 보였고, 20세기 중반 무렵에 박시형, 武田幸男 등이 수묘인연호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지만, 특히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관심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8) 趙仁成, 1988 「廣開土王陵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守墓制」 『韓國史市民講座』3, 일조각; 李仁哲, 1997 「4~5世紀 高句麗의 守墓制 -廣開土大王碑의 守墓人烟戶條를 중심으로-」 『淸溪史學』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淸溪史學會; 기경량, 2010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 『한국사론』56, 서울대학교 등의 연구가 있다.

편제하여 광개토왕릉을 수묘하게 하였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 守墓人 동원방법 – 徙民說과 番上入役說 –

먼저 비문의 수묘인연호조를 살펴보면, 수묘인을 차출한 지역의 이름과 차출한 연호의 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4쪽 표 1 참조) 수묘인 차출 지역과 연호수가 기록된 다음부분에는 수묘인 차출과 관련한 광개토왕 및 장수왕의 諭에 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있을 때 敎하여 말하기를, ‘祖王先王은 다만 遠近의 구민들을 데려와 守墓와 洒掃하도록 하였는데, 나(광개토왕)은 구민이 점점 羸劣 당할 것이 염려된다. 만약 내가 죽은 후에 수묘하는 자를 다만 내가 몸소 다니며 略해 온 韓 穢를 취하여 洒掃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敎가 이와 같으니, 이에 敎令과 같이 韓 穢 220家를 데려왔다. (그러나 수묘의) 법칙을 모르는 것이 염려되어, 다시 구민 110家를 데려왔다. 新 舊 수묘호 합이, 國烟 30家, 看烟 300家, 도합 330家이다.

祖先王 이래로 묘에 石碑를 세우지 않아 수묘인 연호가 差錯이 일어났다. 오직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만이 祖先王을 위하여 묘에 碑를 세우고, 그 연호를 기록하여 차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令하였다. ……(이하 후략)……⁹⁾

위 비문의 내용에서 구민 110가와 신래한예 220가를 데려와서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家’라고 기록하여 구민과 신래한예를 합쳐 총 330家가 차출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수묘인연호조는 결자가 적어서 현재 판독되는 글자만으로도 구민을 차출한 지역은 14곳, 신래한예를 차출한 지역은 36곳임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사민설이든 변상입역설이든 50곳의 지역에서 수묘인들을 ‘차출’해 왔음에는 이의가 없다.

이 50곳의 위치가 현재 어느 지역에 지정되는지는 다 확인할 수 없지만,¹⁰⁾ 광개토왕릉 수묘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왕 부터는 수도 국내성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만이 아닌 먼 지역에서도 수묘인을 차출해왔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릉비가 세워지기 이전, 즉, 광개토왕릉이 아닌 고국양왕릉의 수묘인들이 국내성으로부터 먼 곳에서도 차출되었음을 ‘祖王先王은 다만 遠近의 구민들을 데려와 守墓와 洒掃하도록 하였는데…’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箇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10) 수묘인연호조에 등장하는 지역들이 현재 어느 지역에 지정되는지에 대해서는 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65, 한국사연구회가 참조 가능하다. 비록 모든 지역에 대해서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표 1 <광개토왕비문 수묘인 연호조 정리>

舊民		
	國烟	看烟
賣句余民	2	3
東海賈	3	5
敦城民		4
于城		1
碑利城	2	
平穰城民	1	10
訾連		2
俳婁人	1	43
梁谷		2
梁城		2
安夫連		22
改谷		3
新城		3
南蘇城	1	
합	10	100
新來韓穢		
沙水城	1	1
牟婁城		2
豆比鴨岑韓		5
勾牟客頭		2
求底韓		1
蔦城韓穢	3	21
古模耶羅城		1
炅古城	1	3
客賢韓		1
阿旦城 + 雜珍城		合 10
巴奴城韓		9
白模盧城		4

各模盧城		2
牟水城		3
嚳氏利城	1	3
彌鄒城	1	7
也利城		3
豆奴城	1	2
奧利城	2	8
須鄒城	2	5
百殘南居韓	1	5
太山韓城		6
農賣城	1	7
閏奴城	2	22
古牟婁城	2	8
瑑城	1	8
味城		6
就咨城		5
彡穰城		24
散那城	1	
那旦城		1
勾牟城		1
於利城		8
比利城		3
細城		3
합	20	200

위 내용은 광개토왕의 말을 기록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광개토왕 이전의 왕들은 자신의 무덤의 수묘인들을 遠近舊民로 구성했다고 한다.¹¹ 여기서 주목할 곳은 遠近이다. 가까이 있는 구민 뿐 아니라 멀리 있는 구민도 차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깝고 멀고의 기준은 광개토왕이 말할 당시로 생각해보자면, 수도인 국내성이었을 것이다.

광개토왕릉 수묘인들은 그 차출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것이다. 광개토왕릉을 수묘하는 신라한예들은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이 직접 略한 사람들과 기록되어있는데, 광개토왕의 정벌지역 범위를 보자면 수묘인들의 차출 범위 역시 확장되었음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먼 지역에서도 차출되어 온 수묘인들은 광개토왕릉이 있는 지역에 사민되어 와 죽을 때까지 수묘인으로 살았을까?(사민설)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묘를 하고는 다시 자신의 출신지로 가고, 그 다음 차례의 수묘인이 와서 수묘를 담당했을까?(변상입역설)

비문에서 말하는 수묘인들을 동원하는 방식은 현재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위처럼 크게 두 견해로 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자들의 동향을 보면 사민설을 주장하는 쪽이 다수의 견해이다. 한국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수묘인연호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발표되던 시기에 사민설을 주장하였고, 최근까지도 수묘인들이 사민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¹² 사민설이 아닌 변상입역설¹³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이보다는 적은 수이지만, 변상입역설 역시도 최근까지 주장되고 있다.

수묘인들을 사민시킨 것과 수묘인들이 변상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묘인연호조에 나타난 차출 지역과 연호 수 중 신라한예의 阿朶城과 難珍城의 차출 연호 수에 주목해야한다.(표 1 참조) 다른 지역은 각각 몇 家라고 비문에 기록되어

11) 구체적으로 광개토왕 이전의 어느 왕때부터 遠近舊民으로 수묘인들을 구성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광개토왕이 자신이 정벌한 지역의 주민들을 데려와 자신의 왕릉을 수묘하도록 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왕들도 고구려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복속된 지역의 주민들도 데려와 수묘를 하게 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환은 이에 대해 고구려 초기에는 왕릉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수묘인으로 차출하였는데, 고국원왕때 전연의 침입 후 국내성 지역이 혼란스러워졌다가 이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복속된 주민들을 차출하여 왕릉을 수묘하는 형태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방법의 수묘제가 소수림왕대에 율령반포로 제도화되었을 것이라 보았다.(임기환, 1994 「광개토왕비의 국연과 간연 4 5세기 고구려 대민편제의 일례 -」 『역사와 현실』13, 한국역사연구회, 192쪽)

12) 사민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와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趙仁成, 1988 「廣開土王陵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守墓制」 『한국사시민강좌』3, 일조각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65, 한국사연구회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 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8, 한국고대사학회李仁哲, 1996 「廣開土好太王碑 守墓人烟戶條를 통해 본 高句麗의 南方經營」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 年』, 고구려연구회이성시, 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50, 한국고대사학회기경량, 2010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 『한국사론』56, 서울대학교

13) 변상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와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2007 『광개토왕릉비』, 푸른나무임기환, 1994 「광개토왕비의 국연과 간연 4 5세기 고구려 대민편제의 일례 -」 『역사와 현실』13, 한국역사연구회김락기, 2006 「高句麗 守墓人의 구분과 立役方式」 『한국고대사연구』41, 한국고대사학회

있지만, 아단성과 잡진성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舍十家爲看烟’이라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아단성과 잡진성 두 지역이 알아서 10家を 구성하여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지역에서 舍 10家を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 이는 수묘인은 한 번 국내성으로 오면 평생 수묘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가며 수묘를 담당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수묘인들이 사민되어 온 것이라면 사민되어 온 수묘인들의 출신지는 고정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舍 10家’라고 비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아단성과 잡진성의 어떠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두 지역을 합쳐서 수묘인을 차출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묘역을 담당하러 올 때마다 아단성과 잡진성은 5:5의 비율이든, 6:4의 비율이든 舍 10으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비문에 이와 같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단성과 잡진성의 사례로 변상입역설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 이것이 변상입역설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며, 다만 舍 10家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단성과 잡진성에서 각각 징발되어 온 이들의 합산된 숫자가 기록에 남았고, 비문에는 이것을 그대로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변상입역설을 반박하는 견해도 있다.¹⁵

이 견해는 아단성과 잡진성에서 수묘인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아단성과 잡진성에서는 10家を 보낸다고 고구려 중앙(혹은 수묘를 담당하는 관청)에 보고하는 방식을 상상하게 한다. 그러나 수묘인은 지방에서 중앙으로 숫자를 정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에 숫자를 할당한 것으로 봐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단성과 잡진성 수묘인 차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舍 10家’라고 기록하여 중앙에 보낸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아단성과 잡진성은 수묘역을 담당할 家들을 한 번 보낼 때 10家を 맞춰서 보내도록’ 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아단성과 잡진성에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舍 10家라고 기록하여 보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사민되어 끝까지 수묘를 담당한다면, 이를 확인하여 아단성은 몇 家, 잡진성은 몇 家라고 비문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단성과 잡진성의 경우를 통해 비문에 따른 수묘인 차출은 사민이 아닌 변상입역의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상되어 온 수묘인들을 비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어떻게 편제하여 왕릉을 수묘하도록 했는지를 다음 장에서 논의해보겠다.

3. 舊民과 新來韓穢 편제방식

비문에서 말하는 330家は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민 110家和 신라한예 220家로 구성되었다. 구민 110家は 장수왕의 뜻으로 차출된 것이고, 신라한예 220家は 광개토왕의 뜻으로 차출된 것인데 이는 다음의 비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4) 임기환, 1994 위의 논문, 195쪽

15) 기경량, 2010 앞의 논문, 59쪽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있을 때 敎하여 말하기를, ‘祖王先王은 다만 遠近의 구민들을 데려와 守墓와 洒掃하도록 하였는데, 나(광개토왕)은 구민이 점점 羸劣 당할 것이 염려된다. 만약 내가 죽은 후에 수묘하는 자를 다만 내가 몸소 다니며 略해 온 韓 穢를 취하여 洒掃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敎가 이와 같으니, 이에 敎수와 같이 韓 穢 220家を 데려왔다. (그러나 수묘의) 법칙을 모르는 것이 염려되어, 다시 구민 110家を 데려왔다.¹⁶

위 내용은 광개토왕이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본인이 죽은 후 자신의 무덤을 수묘할 인원은 그 이전의 왕들의 왕릉을 수묘하던 遠近舊民이 아닌 본인이 略해 온 韓穢들로 구성하라고 한 것을 전하는 것인데, 광개토왕이 韓穢로 구성하라고 한 이유는 구민이 羸劣당할 것을 염려하여서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광개토왕이 생전에 말한 것처럼 韓穢 220家が 수묘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구민 110家を 더 추가한 이유는 ‘법칙’을 모를까 염려하여서라고 하고 있다.

위 비문에서 慮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광개토왕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수왕이 주어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인 광개토왕의 생전 敎言을 바탕으로 신라한예로 수묘인을 구성했는데, 막상 수묘를 맡기려고 하자, 처음 수묘를 담당해보는 수묘인들이라 법칙을 모를 것에 대비하여 장수왕의 판단으로 구민도 신라한예보다는 적은 수이지만 수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 차출되어 온 구민들은 수묘하는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수묘를 담당했던 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¹⁷ 그리고 이 구민들은 광개토왕대 이전에 혹은 늦어도 광개토왕대에 한 번은 수묘인으로 차출되어 수묘역을 수행했었던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여기서 구민과 신라한예는 舊 - 新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비되는 존재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민과 신라한예가 언제까지나 舊 - 新의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舊와 新은 해당 수묘인들을 출신에 따라 분류하는 수식어 역할을 했을 것이고, 신라한예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新의 수식어가 탈락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라한예 수묘인들이 광개토왕이 정벌을 통해 새롭게 데려 온 사람들이었다면, 구민들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비문에서 말하는 舊가 수식어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들도 처음에는 ‘新’으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비문에 나오는 구민 역시도 신라한예처럼 고구려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복속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16)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箇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17) 장수왕의 뜻으로 데려 온 110家の 구민은 수묘하는 법칙을 알았다는 추측을 통해, 김현숙은 이를 사민설의 근거로 들었다. 변상업역제였다면 아무리 구민이라 해도 신라한예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26쪽)

18) 정호섭, 2012「광개토왕비의 성격과 5세기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선사와 고대』37, 한국고대학회, 148쪽

있다.¹⁹

이렇게 데려 온 330家の 수묘인들이 그렇다면 광개토왕릉만을 수묘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330家が 나뉘어 광개토왕릉을 포함하여 여러 왕릉을 수묘했을까?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치된 견해가 없다. 광개토왕릉만을 수묘했다는 주장²⁰과 광개토왕릉을 포함하여 많은 다수 왕릉의 수묘역에 분배되었다는 주장,²¹ 광개토왕을 포함하여 일부 특정 몇몇 왕릉에 분배되었다는 주장²²으로 나뉘고 있다.

광개토왕을 포함하여 일부 특정 몇몇 왕릉에 분배되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비문의 ‘祖王’과 ‘先王’이라는 표현에 초점을 두어 수묘인 330家は 조왕, 선왕, 광개토왕 총 3명의 왕릉에 배치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여기서 ‘조왕’과 ‘선왕’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비문의 문자 그대로 광개토왕의 할아버지 왕과 아버지 왕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330家が 고국원왕릉, 고국양왕릉, 광개토왕릉을 수묘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있다.²³ 이와 달리, 비문의 조왕과 선왕은 문자 그대로 할아버지,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대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선왕은 광개토왕의 바로 前王을 뜻하는 것이고, 조왕은 선왕의 前王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330家は 소수림왕릉, 고국양왕릉, 광개토왕릉을 수묘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²⁴

그러나 조왕과 선왕을 누구로 추정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330家が 조왕과 선왕, 광개토왕의 무덤을 수묘하는 것으로 배치되었다면, 비문의 ‘祖先王 이래로 묘에 石碑를 세우지 않아 수묘인연호가 差錯이 일어났다. 오직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만이 祖先王을 위하여 묘에 碑를 세우고…」라는 내용에서 조왕과 선왕 이전 시기에는 석비를 세웠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330家が 조왕, 선왕, 광개토왕릉의 3곳만을 수묘했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

19)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경희사학』14, 경희대학교 사학회, 56~65쪽; 김현숙, 1989 위의 논문, 29쪽) 다소 무리한 추측이겠으나, 고구려가 왕릉을 주로 복속민들에게 맡겨 수묘를 하도록 하였다면 ‘수묘역’이라는 것이 고구려가 복속민을 고구려의 지배체제로 완벽히 흡수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한다. 광개토왕이 생전에 자신의 왕릉은 신라한예가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로 ‘구민이 羸劣당할 것을 염려하여’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다소 구민이 羸劣당할 것을 염려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안에 내재된 의미는 새롭게 복속된 신라한예 지역과 그 지역민들을 확실히 고구려의 지배체제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 임기환, 1994 앞의 논문; 김락기, 2006 앞의논문 등.

21) 대표적으로 박시형과 김현숙의 주장이다. (박시형, 2007 앞의 책;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22)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은 각각 광개토왕릉을 포함한 ‘특정한 왕릉’의 범위가 다르게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浜田耕策, 1982 「好太王碑文の一 二の問題」『歴史公論』4; 이도학,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성격에 대한 再檢討」『한국고대사연구』28, 한국고대사학회; 이인철, 1997 「4~5세기 고구려의 수묘제 - 광개토대왕비의 수묘인연호조를 중심으로 -」『청계사학』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이성시, 2008 앞의 논문; 기경량, 2010 앞의 논문; 공석구, 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고구려발해연구』39, 고구려발해학회 등.

23) 浜田耕策, 1982 「好太王碑文の一 二の問題」『歴史公論』4; 이도학,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성격에 대한 再檢討」『한국고대사연구』28, 한국고대사학회 등.

24) 이인철, 1997 「4~5세기 고구려의 수묘제 - 광개토대왕비의 수묘인연호조를 중심으로 -」『청계사학』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조왕’과 ‘선왕’ 역시 특정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광개토왕의 이전 왕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²⁵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330家は 광개토왕릉을 비롯한 국내성 지역(당시 고구려 수도)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11기의 왕릉에 나누어 배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⁶

광개토왕릉만이 아닌 다른 왕릉의 수묘역에도 분배되었다고 보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이유²⁷는 330家라는 수묘인연호 수 때문이다. 1家 즉, 1戶가 사람 1명이 아니라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히 1家が 몇 명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5명으로 계산하더라도 330家は 1,650명이고, 이 많은 인원이 모두 광개토왕릉에만 배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나의 왕릉에만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되기 어렵다는 근거로 광개토왕릉비가 세워지는 시기와는 다소 시기는 다르지만 『삼국사기』에서 발견되는 수묘호 배정 기사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광개토왕릉비가 세워진 414년 보다 빠른 179년의 기록인 신대왕 15년 기사에서 신대왕이 國相 明臨答夫가 죽자 명림답부의 무덤을 수묘하도록 20家を 두었다²⁸는 기록이 있고, 신라에서는 문무왕 4년인 664년에 여러 왕릉에 각 20호씩 백성들을 사민시킨 기록이 그것들이다.²⁹ 이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아무리 왕릉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330家が 모두 광개토왕릉에 배치되었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분명 국상 명림답부의 무덤을 수묘하는 20家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이기는 하다. 구민 110家は 장수왕이 특별히 추가한 것이라 제외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광개토왕이 정한 220家は 명림답부나 문무왕 4년의 기사에 비추어볼 때, 11배에 달하는 수이다. 그러나 문무왕 4년의 기사를 보면, ‘20戶를 사민’시킨 것이지, 여러 왕릉에 ‘20戶만’을 두어 왕릉을 관리하게 했다는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이 때 20戶를 처음 두었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각 왕릉들을 수묘하던 수묘인들이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20戶씩 더 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무왕 4년조 기사에 대해 이러한 상상이 가능하다면, 왕릉의 수묘인연호 기준을 20家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명림답부가 국상이었고, 국상이 2세기 중후반 당시 고구려에서 국정을 총괄하던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왕릉 수묘인연호 수가 국상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명림답부의 무덤과 광개토왕릉의 규모 역시도 차이가 날

25) 기경량, 2010 앞의 논문, 61쪽

26) 기경량, 2010 위의 논문, 62~63쪽.

27) 이 내용은 각주 20), 21)의 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28) 十五年秋九月 國相答夫卒 年百十三歲 王自臨慟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置守墓二十家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신대왕 15년조) 신대왕 때 명림답부는 신대왕의 前王인 차대왕이 폭정을 일삼자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한 일등공신과도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국상’이라는 官 역시 신대왕 때 처음 설치된 것으로 명림답부가 초대 국상으로 기록되어있어, 신대왕 때 명림답부의 위상이 높았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29) 四年二月 命有司徙民於諸王陵園各二十戶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4년조)

것인데, 같은 20家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광개토왕릉을 포함한 여러 왕릉에 330家を 나누어 수묘인연호로 배정했다면, 왜 다른 왕릉에 보낼 수묘인의 차출 지역과 家の 수를 광개토왕릉비에 모두 기록했는지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비문에서 광개토왕이 存時敎言한 내용은 광개토왕이 죽은 후에 실행할 일을 이야기 한 것이다. 신래한예 220家로 하여금 자신의 무덤을 수묘하게 한 것은 광개토왕의 뜻인데, 만약 새롭게 오는 신래한예 220家を 광개토왕이 애초에 자신의 무덤 뿐 아니라 다른 왕릉에도 배치하고자 한 것이라면 그가 살아있을 때 구민에서 신래한예로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신래한예 220家の 차출은 광개토왕이 자기가 죽은 뒤에 ‘본인의 무덤에서’ 수묘하도록 생전에 정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광개토왕이 생전에 신래한예 220家を 정하여 본인 死後에 본인의 무덤을 수묘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를 직접 실행하도록 하는 장수왕이 판단하기에 고구려에서 처음 수묘를 하게 되는 신래한예가 법칙을 모를 것에 대비하여 이전에 왕릉 수묘를 담당했었던 구민 110家を 추가로 차출하여 신래한예 220家와 함께 광개토왕릉을 수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 國烟과 看烟 문제 –

광개토왕릉 수묘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밝혀야 할 내용들 중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국연과 간연이다. 국연과 간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비문에서도 다른 문헌이나 금석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국연과 간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국연과 간연에 대해 나름의 합리적인 견해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연과 간연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국연은 구민과 신래한예를 합하여 30家, 간연은 300家이다. 다시 30家の 국연은 구민과 신래한예가 1:2의 비율이고, 간연 역시도 1:2의 비율이다. 국연과 간연을 따로 설정하여 비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국연과 간연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국연과 간연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견해는 나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이른 시기의 연구자들은 국연을 주로 보고, 간연을 보조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³⁰

수묘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도 국연이 간연보다는 중심이 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간연이 국연을 보조하는 형식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³¹ 혹은 국연과 간연으로 차출되는 수묘인들 사이에는 신분적 차이가

30) 이러한 주장은 那珂通世가 1893년 「高句麗古碑考」를 통해 국연은 주된 구실을 하고, 간연은 이러한 국연을 보조하는 것으로 파악한 이래로 박시형, 武田幸男 등이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31)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연구는 趙仁成, 1988 앞의 논문; 임기환, 1994 앞의 논문; 이인철, 1996 앞의 논문 등.

있었던 것으로 보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³² 이 외에도 국연은 실질적으로 왕릉을 수묘하고 간연은 별도 지역에서 농경이나 생산활동을 통해 국연의 수묘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거나,³³ 국연은 광개토왕릉을 수묘하고, 간연은 광개토왕릉을 제외한 국내성 지역에 왕릉을 수묘하는 것으로 파악한 견해³⁴도 제기되었다.³⁵

최근 2012년 7월 29일 중국 吉林省 集安市 麻線鄉 마선촌에서 집안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국연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집안고구려비의 입비연대나 비의 성격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집안고구려비문에서 ‘烟戶頭人(연호두 20인)’이라는 부분을 두고 연호두를 국연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신라한예의 국연 20家が 간연 200家を 통솔하여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집안고구려비에서는 烟戶頭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국연 20家を 구성한 사람들이 연호두로서 수묘역을 실제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 존재로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⁶ 그러나 연호두와 국연의 관계에 대한 주장 역시도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개토왕릉비문의 수묘인연호 국연과 간연 330家が 구민, 신라한예에서는 각각 1:10의 비율을, 국연과 간연은 1:2의 비율로 꼭 맞는 것을 통해 이는 의도된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광개토왕이 자신의 무덤을 수묘하기 위해 신라한예 220家を 선정하면서 국연과 간연의 비율을 1:10으로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1:10이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연:간연=1:10이라는 비율에 치중한 나머지 국연만 차출되는 곳, 간연만 차출되는 곳, 국연과 간연 모두 차출되는 곳 등 3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문에 기록된 수묘인연호에서 현재 그 차출결과는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위 두 의문점을 해결함으로써 국연과 간연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2)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33) 조법중, 1995 앞의 논문

34) 기경량, 2010 앞의 논문

35) 이외에도 김락기는 국연 30家が 광개토왕릉을 수묘하고, 간연 300家は 예비 수묘호라고 파악하였는데,(김락기, 2006 앞의 논문) 이는 본 수묘호에 비해 예비 수묘호가 필요 이상으로 10 배나 되는 숫자가 책정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300家나 되는 예비 수묘호를 비문에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을까하는 의문점이 있다.

36) 정호섭, 2013 「集安 高句麗碑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韓國古代史研究』70, 한국고대사학회, 128쪽.

〈참고문헌〉

『三國史記』
「廣開土王陵碑」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2007 『광개토왕릉비』, 푸른나무
李進熙 著, 李基東 譯, 1982 『廣開土王陵碑의 探究』, 一潮閣
王健群 著, 林東錫 譯, 2004 『廣開土王碑 研究』, 한국학술정보 참조

鄭寅普,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庸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國學論叢』
浜田耕策, 1982 「好太王碑文の一 二の問題」 『歴史公論』 4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경희사학』 14, 경희대학교 사학회
趙仁成, 1988 「廣開土王陵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守墓制」 『한국사시민강좌』 3, 일조각
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한국사연구회
임기환, 1994 「광개토왕비의 국연과 간연 4 5세기 고구려 대민편제의 일례 -」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徐榮洙, 1995 「廣開土大王碑文의 연구사적 검토」 『고구려연구』 1, 고구려연구회
趙法鍾,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 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8, 한국고대사학회
李仁哲, 1996 「廣開土好太王碑 守墓人烟戶條를 통해 본 高句麗의 南方經營」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고구려연구회
李仁哲, 1997 「4~5世紀 高句麗의 守墓制 -廣開土大王碑의 守墓人烟戶條를 중심으로-」 『清溪史學』 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清溪史學會
이도학, 2002 「광개토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性格에 대한 再檢討」 『한국고대사연구』 28, 한국고대사학회
김락기, 2006 「高句麗 守墓人의 구분과 立役方式」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학회
이성시, 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0, 한국고대사학회
기경량, 2010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 『한국사론』 56, 서울대학교
공석구, 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 『고구려발해연구』 39, 고구려발해학회
정호섭, 2012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5세기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선사와 고대』 37, 한국고대학회
정호섭, 2013 「集安 高句麗碑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 『韓國古代史研究』 70,

토론 : 박소미,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광개토왕릉 守墓방식

안정준 (고대사분과)

「광개토왕릉비」 수묘인 연호조는 능비의 立碑 목적뿐만아니라, 고구려 지방제도 및 집안 지역 고구려 왕릉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다. 특히 6세기 이전의 사회경제적 양상에 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한 한국 고대사의 현실에서 「광개토왕릉비」 수묘인 연호조에 대한 해석은 곧 4-5세기의 사회경제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2013년 1월경 「집안고구려비」가 새롭게 소개된 이후로 수묘제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기도 하였다. 발표자의 글도 이러한 고구려의 수묘제 연구에 대한 평가와 나름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1. 머리말 쓰기

앞에서 「광개토왕릉비」의 발견과 신묘년조 논쟁에 관해 기술한 것은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1세기 간의 연구를 비전공자들에게 간략히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발표자가 현시점에서 광개토왕릉 守墓방식에 대한 문제를 주요 논제로 삼았다면, 이 연구가 고구려사 연구에 있어서 갖는 의의가 무엇이고, 기존 고구려 수묘제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재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어 왔는지를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는 마선구에서 「집안 고구려비」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고구려의 수묘제에 대한 연구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발표자가 현재의 자료 상황과 수묘제 관련 연구사를 나름대로 이해했다면 새로운 비의 발견과 더불어 기존 수묘제 관련 연구 경향이 진행되는 큰 흐름과 그 한계를 지적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점에서 수묘제 관련 문제 가운데 굳이 ‘入役방식’과 ‘편제 방식’의 문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래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기존에 많은 연구가 발표된 이 주제에 대해 굳이 새로운

평가 혹은 의견을 제시하려는 발표자의 의도를 납득할 수가 있다.

2. 접근 방식

발표자는 「광개토왕릉비」만 검토하면 광개토왕릉의 수묘 방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광개토왕릉의 수묘제도 광개토왕대까지 운영되었던 기존 왕릉에 대한 수묘제 운영 방식과 별개로 놓을 수 없다. 예컨대 「광개토왕릉비」의 수묘인 연호조에서는 “祖先王이래로 묘에 石陣를 세우지 않아 수묘인 연호가 差錯되었다. 오직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만이 祖先王을 위해 墓上立碑하고 銘記烟戶하여 差錯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¹라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집안고구려비」의 기록과 「광개토왕릉비」수묘인 연호조는 둘 다 광개토왕대에 시행된 “墓上立碑 銘記烟戶”의 목적에서 새겨진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왜 「집안고구려비」에는 수묘인연호두 20人名이 기재되었다고 언급한 반면에 「광개토왕릉비」에는 「지역명+연호수」 형태로 3백가에 달하는 연호목록을 기재하고 있는가. 왜 같은 목적의 제도 운영상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의 기록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처럼 두 비의 기록이 다른 형태라는 점에 기인해 수묘제의 사민 변상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의 견해가 달라지고 있으며, 「광개토왕릉비」수묘인 연호조가 “墓上立碑 銘記烟戶”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수묘제의 운영방식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릉비」수묘인연호조가 각각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두 비를 새길 당시의 수묘제 운영상에 어떤 변화는 없었는지, 왜 다른 형태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발표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자기 입장을 각주에라도 분명히 밝힌 뒤에 ‘入役방식’, ‘편제 방식’과 같은 수묘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본격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다.

3. 구체적인 문제들

- ① 광개토왕릉 이외 다른 祖上王陵들의 경우, 그 수묘 방식은 入役인가, 徙民인가.
 - ② ‘(광개토왕의) 言敎하심이 이와 같으니 이에 敎令과 같이 韓 穢 220家を 징발하였다. (그러나) 法則을 모르는 것이 염려되어, 다시 舊民110家を 징발했다.²
- 발표자는 위 구문에서 “法則”을 수묘와 관련한 法則으로 이해하고, 새로 징발된 한예인들이 이를 모를 것을 염려해 舊民 110가를 추가 징발한 상황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변상역을 통해 각 지역에 부과된 수묘역을 담당할 자들은 매번 같은 사람만 와서 역을 수행하는 것인가. 만약 다음 番次에 해당 지역 내의 다른 사람이 징발되어 역을 수행한다면, ‘수묘 法則’과 관련한 지식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 아닌가.

1)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2)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③ “祖先王 이래로 묘에 石碑를 세우지 않아 수묘인 연호가 差錯되었다. 오직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만이 祖先王을 위해 墓上立碑하고 銘記烟戶하여 差錯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 중앙 조정에서 문서상으로 기록해 보관하였을 番上 지역들을 군이 石碑에 銘記해 두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즉 「광개토왕릉비」에서 언급하는 ‘수묘인 연호 差錯’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가. 이 문제가 어떻게 왕릉 옆에 석비에 「징발 지역+연호수」를 銘記해두는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기대했을까.

④ 수묘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 이남을 상실하기도 했다. 수묘인연호가 징발된 지역 가운데 彌鄒城 阿旦那城 등은 각각 인천 서울 지역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남한강 상류 유역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상실하여 더 이상 징발할 수 없게 된 지역명에 대해서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인가.

⑤ 고구려 신대왕 15년에 國相 明臨答夫가 죽자 수묘를 위해 20家を 두었다는 기록과,³ 신라 문무왕 4년인 664년에 여러 왕릉에 각 20호씩 백성들을 徙民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⁴ 이때 기록에 등장하는 수묘제 운영방식도 변상역이라고 보는 것인가. 만약 기록 그대로 徙民시켜두고 수묘하게 하는 형태라면 군이 광개토왕릉처럼 300戶나 되는 많은 인원을 배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⑥ 발표문 3장의 결론은 330가가 모두 광개토왕릉을 수묘했다는 것. 이 내용이 2장의 내용보다 앞에 배치되고 이후에 입역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은지?

⑦ 본문에 “羸劣 당하다”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데, ‘羸劣’이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3) 十五年秋九月 國相答夫 年百十三歲 王自臨慟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置守墓二十家(『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신대왕 15년조)

4) 四年二月 命有司徒民於諸王陸園各二十戶(『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4년조)

박정희 정권 기 제주감귤농협 연구

김효성 (현대사분과)

1. 들어가는 글

2. 1960년대 제주 농정과 감귤 산업

(1) 제주 감귤 농업의 시대적 배경

(2) 1960년대 제주 농업의 현황

3.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결성

(1)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결성 과정

(2) 박정희 정권 시기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4. 박정희 정권 기 감귤 재배 농가의 현실

(1) 위미리의 사례

(2) 신례 1리(예촌)의 사례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한국현대사에서 농업 문제는 산업적인 측면의 화두를 넘어, 해방 이후 국가 건설 문제에게까지 이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분야였다. 해방 전후 조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것이 토지개혁이었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교차점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 상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경우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 문제였다. 협동조합 문제는 가족노동을 동원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던 농가들의 농업 자본 문제, 가령 수리조합, 비료, 농기구 등 경작 외의 자본적 지출의 부분들을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전하는 조직체를 절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었다.

해방과 분단,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토지개혁 문제와 협동조합 문제는 많은 부침을 겪었다. 농업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서만이 아닌, 지극히 정치적 요인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 문제는 일찍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 수립 이후 다양한 지적과 건의로 1950년대에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부락 단위 이상의 농민들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발족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농업협동조합의 지역적 사례의 하나로 제주 지역의 감귤농업협동조합(이후 제주감귤농협으로 통칭)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제주의 감귤농협을 다루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현대농업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전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한국 농업에서 쌀이 가지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수전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사를 다루는 거 자체가 큰 문제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수전 지역의 사례나 설명 구조가 농업 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이나 시각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채소, 과수, 특용작물의 재배는 주식을 생산하는 생계형 농업과는 다소 다른 맥락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지역의 감귤은 한국에서 재배되는 다른 과일들, 예를 들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다른 과수에 비해 제주 지역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만 한정하여 재배할 수 있는 ‘특수한’ 작물이었다. 북한계선이 명확한 감귤은 이윤 자체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서 자본을 투자하여 재배하기에는 각종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 감귤 농업에 대한 지역적, 기후적 제약 조건 속에서 제주 지역에서 유행한 이 산업으로 제주 농촌의 구조는 크게 바뀌었다. 도내 지역민들이 소비하는 양을 넘어서 ‘수출’하는 과수였던 특징 상 제주 감귤 농업은 가장 중앙 정부, 혹은 한국의 농업 시장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과정에서 감귤 재배 지역은 큰 재편 과정을 겪었다. 특히 감귤 농업에 뛰어드는 농가의 재정 상황, 해당 년도 감귤 가격에 따라 한 부락 내 농가들 가운데에도 흥망을 거듭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농촌의 모습, 즉 집단적이고 주곡을 경작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였던 ‘육지’ 지역의 농촌과는 다른 모습으로 빠르게 ‘자본주의’화 하였던 것이 제주 감귤 농가였다.

셋째, 이러한 감귤 재배의 폭발적 증가로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풀어내고, 감귤 농가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제주감귤농협이 발족하였다. 제주감귤농협은 중앙정부, 특히 박정희 정권 기 추진되었던 ‘주산지 농업 계획’ 등 각종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합원이 공동의 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였던 제주감귤농협이지만, 동시에 농협 내부의 조합원들은 상당한 ‘경제적 서열화’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조합원 내 ‘경제적 서열화’는 감귤농업조합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화하였던 이 지역 농민들은 제주감귤농협과 감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 정부의 규정력 간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갔다.

다소 성급한 결론일 수 있지만, 제주 지역에만 한정했을 때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전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여당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필자의 가설을 구성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였다. 이것은 앞서 서술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감귤농협이 ‘대의적으로’만 조합적 성격을 유지하였고, 한편으로 자본주의화 속에서 연유한 경제적 서열화의 ‘정상화, 혹은 역전’을 위해 끊임없이 중앙정부로 대표되는 ‘외부적’ 힘을 창출하고자 하였던 제주 감귤 농민들의 모습은 단순히 지역적 특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협동조합 연구가 농지개혁 이후 다수의 영세농이 창출되었던 측면에서 이것의 경제적 보완과 개별 농민들의 삶을 담보한다는 ‘일반적’ 의미의 협동조합 이해를 지양하여, 지역별, 품종별 협동조합의 ‘작동 기제’가 보다 다양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주감귤농협에 대한 공적 문헌은 현재로서는 제주감귤농협이 직접 출간한 『제주감귤농협 50년사, 천제출판, 2011』이 유일하다. 『제주감귤농협 50년사』에서는 제주감귤농협의 역사와 활동, 주요 사업 등을 개괄하여 소개하고 있고, 말미에는 김두현 초대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역대 조합장 중 일부 인사의 구술, 회고록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저서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 논지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이외에 제주감귤농협이 아닌, 제주 지역의 감귤 재배 마을의 변천 과정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김준희, 『감귤 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제주도 위미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의 연구는 제주도 서귀포시 위미리의 사례를 통해 감귤 재배 이전과 이후 변화된 위미리의 사회경제적 변천을 살펴보았다. 김준희는 특히 위미리의 경우를 한정하고 있지만, 제주 지역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의 사례로서 검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마을 구성원 내 경제적 서열화의 과정도 몇몇 농가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석민, 『제주도 감귤 재배지의 계층 구성 및 임노동의 성격,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은 앞서 서술한 김준희의 연구와 유사하게 제주도 서귀포시의 신례 1리(본문에서는 예촌이라고 명명)의 사회경제적 변천을 살펴보고 있다. 김준희의 연구가 위미리의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마을의 사회적 변화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면, 오석민은 연구 대상인 신례 1리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형성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부 부농 감귤 농가의 임대 경영을 유형화하여 이 시기 감귤 농업의 임노동 관계의 특성을 유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이후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요구된다.

본문에서 중심으로 다룰 <제주감귤농협>의 조직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에 관해서는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였다.¹⁾ 그리하여 앞서 서술한 제주 지역의

1) 홍성찬, 「일제 하 이순탁의 농업론과 해방 직후 입법위원의 토지개혁 방안」,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최호진 박사 강단 50주년 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3, 방기중, 「해방정국 기 중간과 노선의 경제사상: 강진국의 산업재건론과 농업개혁론을 중심으로」,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최호진 박사 강단 50주년 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3, 김소남, 『1960-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주도 협동조합운동-부락 개발, 실험, 생명운동』,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문헌들과 함께 이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2. 1960년대 제주 농정과 감귤 산업

(1) 제주 감귤 농업의 시대적 배경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화산섬으로 지층을 이루고 있어 물을 가두는 관개 농업이 원활하지 않은 특성상 일찍이 밭농사를 중심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었다.² 따라서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력에 비해 생산력이 수전의 효율성에 비할 수가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생활상태 조사자료: 제주도 편>에 의하면, 제주도의 밭은 90,064정보인 데 반하여, 논이 895정보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밭이 2 : 98이라는 불균형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

감귤 농업이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일제 치하였다. 조선 시대까지 일부 지역에 한해 재래식으로 육성되었던 감귤은 일제 치하 도래한 일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감귤산지와 비교해 볼 때 기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제주도에서 과원 조성에 들어가고, 제주도민들에게 식재를 강요하였다.⁴

일제가 제주 지역에서 식재를 강요하고, 이에 조우하면서 식재에 참여한 인사들은 훗날 역설적이게도 제주 감귤 농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예로 1942-1945년 해방까지 서귀면장을 역임한 김찬익 씨는 감귤 조성과 병행하여 신 하효리라는 마을에 벚꽃을 가로수로 삼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기도 했다.⁵ 이 외에도 서홍리의 김영재, 호근리의 고치조, 토평리의 김인관, 오태규, 상효리의 오운평, 고희옥, 신희리의 김희룡, 김태은, 하효리의 김인방, 김춘삼 등은 일제가 강제한 개량 품종을 제주도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방 후 적산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제주의 과원 경영주로 강창학 부자, 김문옥, 고대현, 강희삼 등이 부상하였는데, 이들이 제주감귤농협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던 ‘1세대’ 감귤재배 인물들이었다.

(2) 1960년대 제주 농업의 현황

제주도의 지역 농업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작을 중심으로 하는 식량작물위주의 자급적 농업이 대부분이었다. 그 이후에는 주지하듯이 식량작물위주의 농업에서 소득이 높은 감귤과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제주도 지역농업이 제주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공업화의 조성 여건이 불리하였던 점에도 착안할 수 있지만,

2)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난석이 많을 뿐 아니라, 토질이 건조해서 수전이 없다” 고 했다, 제주도가 석다로 표현되는 환경이며 조악할 토질로서 구성된 척박한 땅임을 의미하고 있다. 제주감귤농협, 『제주감귤농업 50년사』, 2011, 78쪽, 재인용

3) 위의 책, 79쪽,

4) 앞서 제시한 <생활상태 조사자: 제주도 편>에 의하면 “개량품종의 시험 재배에 성공한 일제가 1920년부터 매년 7,000-8,000본을 식재하여 부업적 재배를 장려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위의 책, 82쪽 재인용,

5) 위의 책, 83쪽,

제주도 자연 조건이 주는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제주도만이 생산 가능한 특용작물, 예를 들어 열대작물들을 생산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으로 인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 이론적으로 ‘독점적 공급으로 인한 초과이윤’이 가능해진 것이지,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감귤, 바나나, 파인애플, 화훼 등의 서식 환경은 말 그대로 자연적 요소이지, 이것을 생산적 경제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식 지역의 마을, 개별 농가의 ‘지속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다음 <표1>은 1960년 이후 제주도의 시기별 산업구조의 변화표이다.

〈표1〉산업구조 비율 표 (도내) ⁶			단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60	63.1	10.1	26.8
1965	64.7	7.4	27.9
1970	49.3	8.0	42.7
1975	49.8	7.7	42.5
1980	34.7	5.0	60.3
1981	34.9	5.3	59.8
1982	38.7	3.8	57.5
1983	32.1	3.7	64.2
1984	38.6	3.0	58.4
1985	42.0	3.4	54.6
1986	42.2	4.0	53.8
1986(전국)	12.7	32.2	55.1

본문에서 살펴보는 박정희 정권 시기만 소급해서 살펴보자면, 여전히 제주도 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는 산업은 농, 어업 등 1차 산업인 걸 알 수 있다.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비율만 지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2>는 1960년에서 1980년까지 제주도 내 작목별 재배 면적을 정리한 것이다.(다음 쪽에 계속)

6) 강지용 외, 「제주도 지역농업의 구조변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새마을연구 논문집(제6호)』, 제주대학교 새마을연구소, 1986, 15쪽 재인용,

〈표2〉작목 별 재배면적⁷⁾

단위: ha

	합계		식량작물		특용작물		감귤		양잠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1960	65,636.6	100	63135	96.2	717	1.1	93	0.1	1,688	2.6	3.6	0.0
1965	81,475	100	74247	91.1	5,103	6.3	555.1	0.7	1,561	1.9	13	0.0
1970	77,171	100	58353	75.6	11808	15.3	5,002	6.5	2,003	2.6	4.0	0.0
1975	78,751	100	47443	60.2	17590	22.4	10930	13.9	2,783	3.5	5.0	00
1980	71,380	100	39144	54.8	14647	20.5	14095	19.8	3,425	4.8	69.0	0.1

다음 〈표3〉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농업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해 제주도에서 주력 농업 작물로 선정된 감귤의 연도별 생산 동향을 나타낸 표이다.

〈표3〉연도 별 감귤생산 동향⁸⁾

	면적(ha)	생산액(M/T)	수익(백만 원)	관당 가격 (3.75kg)	재배농가(戶)
1960	93	171	30.6	229	
1965	551	1803	173.3	588	
1970	5,002	4,972	953	1,094	17,051
1975	10,930	81,105	14,599	1,263	21,809
1980	14,095	187,470	54,560	1,411	19,996

이렇듯 1960년을 기점으로 하여 제주 지역의 산업 구조는 박정희 정권 기를 거치면서 주곡 위주의 전작이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감귤을 중심으로 하는 과수 농업의 비중이 전폭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 앞의 글, 23쪽,

8) 위의 글, 28쪽

3.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결성

(1)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결성 과정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하 제주감귤농협)은 1959년 5월 2일 ‘제주도특수감귤농업협동조합’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이 모임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현창호, 김두현, 김복남, 고치순, 오용읍, 한두삼, 현경식, 오희부, 부경호, 허문방, 고흥원, 어환, 김문두, 오두윤, 오태규, 김인방, 오도정, 허산, 현월성, 고성준 등이다.⁹⁾ 이들의 출신 지역은 제주 안에서도 서귀읍에 국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감귤 생산이 서귀읍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¹⁰⁾

이후 몇 차례의 실무 회의를 거쳐 1960년 5월 27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공식 인가는 다음 해인 1961년 9월 21일에 정식으로 받게 되었다. 1960년 5월에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총회 때 통과되었던 주요 안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명칭을 ‘제주도감귤특수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한 것이다. 오늘날의 명칭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인데 창립 시기 명칭과 다른데, 전자의 명칭이 도 단위 행정구역의 특성을 강조했다고 본다면, 후자는 제주 지역만의 특성보다는 협동조합 업무가 이전보다 보편적인 내용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자의 명칭은 일반 농업에 대한 감귤 농업의 특수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특수 농업은 채소와 과일 등 부식물의 생산에 치우쳐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의 식생활 문화는 주곡 위주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창기 협동조합의 명칭에 ‘특수’가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특수’로 분류되었던 감귤 산업이 한국 농업 내에서 생산량이 신장되면서 협동조합의 명칭도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감귤농협 조합원의 거주 범위를 ‘제주도 일원으로 한정’한 점이다. 거주지를 바탕으로 속지주의의 정신을 강조하고, 이러한 농협의 조직 구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합의 자격 요건에 ‘200평의 경작규모’를 명시한 것은 제주 도민이라는 점 외에 추가로 경제적 ‘토대’가 뒷받침되었던 사람에게 한정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¹¹⁾

셋째, 사업 내용을 생산지도, 구매, 판매, 이용, 공제, 신용 분야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시설과 기계의 공동 이용을 명시하여 감귤 농협의 본래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의 출자를 권장하면서도 ‘200 구좌 이하’로 상한선을 제시한 점이다. 이것은 당시 대자본에 의한 독점 방지와 함께 상대적으로 조합 내 영세 농가를 보호하려는 확고한

9) 『제주감귤농협 50년사』, 293쪽,

10) 구체적으로 발기인 중에서 서귀리 출신은 5명, 인근의 서호리와 토평리가 각각 4명, 서흥리가 3명, 호근리와 하효리가 각각 2명이었다. 이것은 서귀읍 내에서도 동부 지역보다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전 일본인에 의해 조성되었던 근대적 과원의 배경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책, 293쪽,

11) 오늘날 감귤농협 정관에 명시된 조합원의 경작 규모는 1,500평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규모 확대에 의한 기업화의 현상이 조합원의 자격 기준의 큰 흐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위의 책, 294쪽,

의지가 담겨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¹²

이런 관점에서 제주감귤농협의 설립은 당시 감귤 농가들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집단적 해결책의 한 방도였다. 먼저 감귤생산자에 대한 지원의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데, 감귤농협의 정관에는 지원내용을 기술, 자금, 자재, 정보 등으로 명시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자본으로 구입하게 많은 부담이 들게 된다. 따라서 감귤농협 내에서 연합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중국에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공동의 이익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¹³ 실례로 과수 농업에 필요한 트랙터, 고속분무기 등 고가의 농업기계가 조합 내 공동 구입되고, 공동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개별 조합원 농가의 감귤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공동 생산한 감귤의 판로 확대와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는 조직적 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감귤 재배로 인한 개별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점차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력 증대가 생산이 과잉되어 개별 농가의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감귤 공급의 조절과 기존의 판로를 확대한 다양한 판로 개척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조합원 가족의 ‘미래에 대한 버전’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제주가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하였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례로 감귤농협이 전국소년체전의 운영을 위해 감귤조합의 이익배당금의 40%를 성금으로 기탁하는가 하면, 감귤농협의 발기인 중 한 명인 김인방은 ‘한라대학교 한라병원’을 인수한 재단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 감귤농협의 초대 이사를 역임한 강창학은 당시 제주의 중앙공원을 조성하는데 7만 9천 평의 토지를 기증하기도 하였다.¹⁴

제주감귤농협의 초창기 활동의 핵심은 바로 조합원의 증대였다. 김두현 초대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은 일제 치하에 강제로 감귤이 식재되었던 부락인 호근, 서호, 서흥, 서귀리 등 서귀포 지역에서도 서부에 치우친 재배지역을 동쪽으로 확장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조합세 신설, 묘목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육종 사업 승인, 일본으로부터의 온주밀감의 묘목 구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묘목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생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함으로써 감귤농협 본래의 기능을 높이게 하였다.¹⁵

(2) 박정희 정권 시기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1960년도에 설립하여 1961년 新농협법에 의하여 존속인가를 얻은 제주감귤조합은 사실상 사업 첫 해인 1961년도에는 조직기반 확립 및 사업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전임직원이 조합원 확보, 자체자금 조성 등에 전력하여, 구매사업 32만 1천환, 판매사업 960만환의 실적을

12) 위의 책, 295쪽,

13) 앞의 책, 295쪽,

14) 감귤농협의 초대 이사였던 강창학 외에 김여완, 김경현, 고대현은 일제 시기부터 이루어진 과목 식재로 부를 축적한 부친의 뒤를 잇거나, 혹은 해방 후 제주도 내 적산을 불하받은 사람들이었다.

15) 위의 책, 297쪽,

달성하였다. 1962년에 들어 감귤농협의 이념인 공동생산, 공동판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귤의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고 탕자묘, 온주묘목 공급, 농약 등의 농용자재 공동구입과 생산물 공동판매의 정착에 노력했다. 특히, 조합 가입 자격자의 90%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감귤농협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설립 당시부터 농산물검사소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여 오던 출하감귤에 대한 검사제도가 농산물 검사법의 개정으로 인해 1963년도부터는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수익재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익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 판매 사업에 전력하여 일반농약, 비료, 농용자재 등을 매취, 판매하는데 주력하였다.

1965년부터 중앙정부가 감귤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감귤 재배 붐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제주 내 묘목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맞추어 감귤조합에서는 재배기술 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배기술 보급과 영농지도에 전념하였다. 1966년에는 감귤재배 붐에 의한 감귤 묘목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산 감귤묘목을 대량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였다. 1967년도에는 1963년 이후 감귤농협에 부여되지 못했던 감귤검사 권한이 다시 부여되면서 출하량 조절을 통한 감귤 출하가격의 안정과 감귤조합 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여기서 농업주산지조성 사업을 잠시 살펴보자.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구조화된 영세농정과 만성적인 농촌의 소득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농업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¹⁶. 당시 농림부는 1966년의 신규 사업으로 식량 작물인 미백을 제외한 농, 축, 임산물의 적지적산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주산지조성 계획을 새달부터 집행한다.¹⁷ 지원 자금 13억 9100여만 원 중 1억 9200만 원은 이미 확보하여 농업주산지 조성 사업에 자금을 배정하였다. 농업주산지 조성 계획은 전 국토를 5개 농업지대로 나누고, 이를 19개 농업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323개의 주산지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박동묘는 이 계획 이전에 발표한 ‘농업왕산지조성계획’에서 각 농촌이 자연적, 지형적 기후 조건에 알맞은 주산물을 특화해 온 현상을 이끌어 주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자고 하였다. 주산지 조성 계획의 목적이 생산과 기술, 자원을 집중화하고 재정 투자, 융자 사업과 농업 자재 알선을 집중화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¹⁸

16) ‘박정희 대통령은 오는 10일 경 제2차 지방장관회의를 서울에서 소집, 주산지 조성과 모범 읍, 면 육성 및 저축증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5일 이후락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박대통령은 이 지방장관회의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걸쳐 전국의 각 도를 둘러본 끝에 느낀 시정부문에서 고쳐야 할 점을 시달, 특히 주산지 조성에 관해서는 각 도마다 알맞도록 입지 조건과 예산상의 뒷받침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1965년 3월 5일 동아일보 기사

17) 1966년 4월 6일자 경향신문 기사

18) 1966년 4월 6일자 경향신문 기사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주산지조성 계획’에 대한 우려는 당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¹⁹ 무엇보다 당시 기간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주산지 조성 계획’이 이후에도 일관적인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될 것인지, 혹은 계획으로만 남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중앙정부에서 ‘농업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김두현의 뒤를 이어 신관후 씨가 제주감귤농협 2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신관후 씨는 1962년부터 남제주군 농업협동조합의 전무를 역임하였고, 그를 보좌하는 이사, 감사 등 임원진들도 새롭게 개편되었다.²⁰ 농업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의 시행으로 중앙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감귤 재배 농가는 초창기 47농가에서 116농가로 증가했다. 이로써 감귤 생산 물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에 묘목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일본산 묘목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훗날 감귤 묘목의 대외 의존성 심화와 품종 난립으로 인한 감귤의 시장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²¹

제주감귤농협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의 수요와 이에 따른 높은 수익성이 담보되면서 감귤 재배 농가는 해를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69년을 기준삼아 감귤 재배 농가는 577가구로 늘었고, 감귤농협의 대의원 수가 1966년에 21명이었던 것이 1969년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감귤 생산량도 1964년 1,000톤이었는데 1968년에는 3,000톤을 넘게 되었다.²²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 또한 존재하였는데, 첫째, 제주감귤농협 출범 시기부터 재원 손실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전무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지속적인 감귤 재배 농가의 확장과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묘목 수입과 그에 따르는 비용 지출은 박정희 정권 기 제주감귤조합 활동 내내 빠지지 않는 쟁점이었다. 둘째, 이와 연관해서 제주감귤농협의 임원 임용과 해임에 따르는 인사 문제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대로 제주도 외 지역에 수출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유통, 공급의 단계에서

19) 1966년 4월 6일자 경향신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상적인 시책에 되따라야 할 판로 개척과 생산가 보장에 관한 뒷받침은 석연치 않아 그 효율성 여부가 크게 의심되는 것이다. 고구마인 경우 현재에도 과잉 생산되어 소비책이 막연하며 고구마 값은 작년보다 떨어지고 있다. 또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해 ‘가격예시제도’다 있어 농민들은 그 가격을 내다보며 작물재배를 해왔으나 그 제도나마 호지부지되어 농민들은 아예 생산 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주산지를 정부에서 형성해주지 않는다 해도 가격 보장만 되고 마음대로 팔수만 있다면 누가 말을 안 해도 농민들은 기술을 배우고 품종을 개량하여 주산지는 자연히 조성되는 것이다.”(필자 강조)”

20) 이 때 강창학, 강임룡, 고이행, 강문주, 김원옥, 고치조, 김정현, 고대현, 허산, 김성보 등 주로 해방 후 적산을 인수한 기업적 과원주의 경영의 실세들이 제주감귤농협 전면에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앞의 책, 295쪽,***

21) 감귤 수요의 증대와 함께 생산조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주감귤농협에도 내용이 존재했다. 그것은 판매선도금과 판매징수로 징수에 관한 것이었는데, 2대 조합장이었던 신관후 씨는 이 부분에 대한 부정에 연루되어 조합장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앞의 책, 299쪽,

22) 위의 책, 300쪽,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었고, 2대 조합장도 부정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한 것²³은 이 시기 제주감귤농협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속성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당시 제주감귤농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는 신용사업의 부재였다. 제주감귤농협은 출범 당시부터 ‘특수농협’의 노선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곡으로 대표되는 각 지역의 단위농협의 사업 계획과 집행의 문제에서 제주 지역에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동시에 제주 지역의 ‘특수농협’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발휘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었다.

제주 지역 외 한국의 각 지역 단위 농협에서는 1968년부터 상호금융업무가 시작되었다.²⁴ 그리하여 단위 조합 내 농가들의 고리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가져왔는데 비해, 제주에서는 1989년까지 ‘특수조합’이라는 이유로 감귤 농가에 대한 상호금융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농업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의 지원 사업과 무관하게 상업적 농업인 과수 재배에 있어 그 ‘리스크’를 결과적으로 개별 농가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²⁵

4. 박정희 정권 기 감귤 재배 농가의 현실

앞에서 박정희 정권 시기 조직을 재편, 확대하였던 제주감귤농협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주감귤농협은 주지하다시피 일정한 규모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농가에게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것은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높이는 문제와 함께 생산 단가의 하락을 도모하면서 개별 농가의 부정적 변수들을 낮추려는 노력도 아울러 살펴볼

23) 제주감귤농협의 3대 조합장으로 취임하는 현영휴 씨는 『제주감귤농협 50년사』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 때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신관후 씨가 초창기 제주감귤협동조합장에 취임하면서 조합의 유지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반출용 감귤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경리부정 사고로 인해 농검 최고간부와 함께 억울함 퇴임을 당하게 되자 ... (중략) ... 막상 (조합장) 취임을 하고 보니 조합의 내부가 한심할 정도로 복잡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 (중략) ...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나 행정당국 역시 무관심한 상태였고, 당시 유일한 수입재원이라 비합법적인 감귤의 검사대행권 행사를 통해 상자 당 15원 정도 징수되는 수수료로 조성된 연간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조합운영상의 대표적인 재원이었습니다. 전술한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평소 조합을 적대시하던 감귤 중간 상인들은 절호의 기회를 만난 듯이 조합을 과국으로 몰아넣으려고 날뛰었고, 모리간상배 등은 유일한 조합 재원인 검사권을 박탈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자행했으며 농검당국 역시 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져...”, 위의 책, 783쪽

24) 1968년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사업이 도입되었고, 1970년부터는 종합농협으로 체계를 재정비하여 상호금융사업을 취급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이관 받아서 발전하였다. 반면 제주감귤농협은 ‘특수조합’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생산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차도 농협중앙회에 차입하여 조달하는 형편이었다. 위의 책, 783쪽

25) 제주감귤농협 3대 조합장이었던 현영휴 씨는 회고록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감귤 검사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조합 운영상에 지장이 막심하였음은 물론, 생산조합원들에게 미치는 당혹감도 지대하였습니다. 제주만의 특산품인 감귤의 급진적인 증산 추세를 감안할 때 자체검사제 실시만이 감귤의 품질 향상, 유통의 합리화, 생산조합원의 복리 증진 등을 이룩하기 위한 조합의 필수업무임을 자각, 이 제도의 획득을 위하여 1970년 초부터 당시 농림부 당국에 절충을 시도해 보았으나 농검의 심한 반발과 조합의 질적 빈약 등의 이유로 절망적인 비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동년 8월 6일자로 정식 (감귤 자체검사제) 정식 승인의 영광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통쾌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앞의 책, 784쪽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제주감귤농협의 구성만 놓고 보았을 때 박정희 정권 시기 제주 지역의 감귤농협의 활동을 팔목할 만한 성장 위주의 내용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서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시기 과수 농업의 목표는 ‘생존’과 직결된 주곡 농업이 아닌, 철저히 ‘수출’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지향’한 ‘자본주의적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제주 농정에서 일부 검토하였지만, 고구마 등 주곡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한 농경지의 면적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감귤농협 내 개별 농가들의 생산력을 꾸준히 조절하는 문제와 함께 기존 감귤 재배 지역으로 분류된 각 마을의 개별 농가들의 경제력을 비교해본다면, 이것은 ‘성장’으로서만 결론지을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감귤농협은 한국의 다른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다른 ‘특수농협’이었다. 특수농협은 일반 농협에 비해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신용사업’의 부재였다. 감귤 산업 자체가 가지는 작물적 한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주곡 산업이 아닌, 상업 작물인 과수 농업의 특징 상 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산업의 양적 성장으로만 결론내릴 수 없는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즉, 당시 제주도에서 감귤 외에 박정희 정권이 ‘농업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선정한 품목을 보면, 감귤 말고도 고구마 등 몇 개 발작물이 있었다.²⁶ 하지만 뒤에서 살펴볼 두 개 마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농업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에서 의도했던 농촌의 자립과 소득 증대라는 당면 목표와 달리 감귤 산업은 상이한 방향으로 제주 농가의 경제력과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1) 위미리의 사례

이 마을의 감귤 도입기는 대략적으로 1963-1975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감귤은 상당한 고소득원이어서 이 마을 사람들도 이미 ‘감귤을 재배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귤의 재배를 시도하지 않았던 까닭은 이 마을에 감귤 재배의 선례가 없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히 열악했던 경제상황에서, 감귤 묘목을 사고 또 묘목을 심어서 수확할 때 까지 이를 견딜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부른 시도’는 억제되었던 것이며, 이 마을에 처음으로 감귤이 도입된 1963년이라는 시기는, 옆 마을에서 감귤 재배의 성동으로 어느 정도 감귤의 수익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감귤 묘목이 전파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미리의 상황만 주목하자면, 1963-1965년 위미리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되는 몇몇 농가를 중심으로 감귤 재배를 시작하였다. 인근 마을이나 감귤농협의 도움을

26) “제주도 개발 현황을 시찰 차 이곳에 온 박 장관은 제주도를 주산지 형성의 시범지역으로 ① 양송이, ② 유채, ③ 감귤, ④ 맥주 맥, ⑤ 고구마 등만 중심으로 한 주산지 조성과 이들 종목의 가공시설을 지원할 것이며 특히 맥주 맥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의 지원으로 대량생산토록 하여 앞으로 수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66년 5월 4일 매일경제 기사,

얻으면서 차츰 묘목의 도입과 재배 기술 등을 익히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감귤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제주 지역에 감귤 재배에 대한 지원과 장려가 이행되면서 감귤 재배 농가는 점차 확대되었다. 그래서 1968년 경에는 위미리의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감귤 재배에 뛰어들었다.²⁷

이 과정에서 위미리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확연히 나타났다. 먼저 위미리 안의 활용 가능한 경작 토지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해발 100 미터의 땅만 하더라도 농작물은 고사하고 소에게 먹일 여물조차 생산하기 힘들었던 이 지역이 감귤 도입 이후 비로소 ‘쓸만한’ 토지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감귤재배 이전에는 마을 내 토지에 대해 외부 자본이 유입되지 않았는데, 감귤재배 이후 인근의 감귤 재배에 눈을 뜬 ‘외부인’들을 중심으로 위미리 지역의 토지들을 집적하기 시작한 것이다.²⁸ 이에 대해 제주도 당국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3년 1월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소재한 3.3 ha(약 10,000평) 이상의 대규모 과수원 중, 총 면적의 46% 이상이 제주도 외의 외지인 소유라고 한다.²⁹

또한 감귤재배의 유행으로 위미리 내 토지가격의 급격히 상승하였다. 1965년경까지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토지는 평당 3,000원 정도였고, 나머지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당 200-300원, 그 외 목초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그 밑인 몇 십 원 정도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토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상승폭이 컸는데, 주택 지역으로 사용되는 국도변 근처의 토지는 평당 20-50만원, 과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해발 100 미터까지는 평균 5-7만원, 그 이상의 해발 고도인 경우에도 1-4만원이나 하였다.³⁰

이것은 당시 위미리에서 감귤 재배의 유행 이후 빠르게 마을 내부에서 자본의 규모에

27) 김준희의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서술이 있어서 주목된다. “당시에는 감귤의 재배 한계가 해발 100미터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그 재배는 오로지 그 이내에 한정했다. 이러한 장벽을 깬 사람은 마을 내부인이 아니라 마을 외부인이었다. 1969년 부산 출신의 외부인이 (위미리에) 들어와 해방 160미터 지역을 성공적으로 개간하자, 그 주변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서둘러 이를 개간했으며, 1975년 서울 출신의 외부인이 해발 200미터 지역의 개간에 성공함으로써 이 마을의 감귤 재배 한계가 해발 200미터까지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감귤 재배 한계가 해발 200미터라는 것으로 알려진 현재까지 이 이내의 모든 경작 가능한 토지는 거의 감귤밭으로 전환한 상태에 있다”, 김준희, 『감귤 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3, 17쪽,

28) 이러한 외부 자본의 (위미리의) 침투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평균 1ha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여 들어온 少자본의 침투로써 이들은 마을 외부에 거주하면서 1인 정도의 상시 고용자를 고용하거나 가족 노동력과 임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이를 운영한다. 다른 경우는 대자본의 침투로써 당시 위미리의 경우 15만 평을 구입해 들어온 H농장이나 B농장(원문 인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이 자본의 침투는 토지에 대한 투자로서의 가치도 중요하게 의도하고 있으나 전자의 유형과 다른 점은 보다 적극적으로 감귤재배에 자본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준희, 앞의 글, 19쪽,

29) 위의 글, 21쪽

30) 결국 이러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유인한 것은 마을 내부인이거나기보다는 외부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감귤이 재배 초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고소득원이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대자본을 배경으로 감귤의 시장 상황이나 전망 등 여러 정보를 마을 사람들에 비해 빨리 입수하면서 내부인보다 풍부한 자본을 토지 구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위의 글, 22쪽

상응한 ‘서열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감귤 재배의 초기 단계에서 마을 사람들이 고정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토지를 파는 경우가 있었고, 또 마을사람들 내에서는 감귤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해발 100 미터 이상의 중산간 지역을 외부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자본으로 대량 구매, 개간하면서 점차 마을의 토지를 점유하였다.³¹⁾

따라서 위미리에서는 토지 이용도에 따라 마을 내 부의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었다.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요소로 인해 이전 시대에는 부농이 주로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 지역에서 밭농사로 부를 축적한 부농들이 있었으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 감귤 재배를 매개로 부농들이 등장하였다.³²⁾

(2) 신례 1리(예촌)의 사례

오석민 연구: 신례 1리는 해발 150 미터를 넘는 지역에 초지가 넓게 발달한 관계로 목축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 게다가 소, 말을 이용한 축력을 이용하였던 배경으로 각 집마다 1-2 마리 정도의 소, 말을 사육하고 있었다. 축산 외에 보리, 조, 피, 채소를 재배하기도 하였지만 고지대에 마을이 형성된 관계로 주기적인 냉해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해방 150 미터 이하의 지역에서만 밭농사가 이루어졌고, 이 이상의 지역은 초지로서만 운영되었다.

이러한 토지 운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1960년대 중반 감귤 재배의 확대였다. 이미 서귀포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본격화한 감귤 재배는 높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점차 재배 지역이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었다.³³⁾

따라서 신례 1리 지역은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마을 내 토지가 모두 과수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텃밭 등 기존의 경작지를 과수원으로 전환하였고, 외부인의 자본은 신례 1리의 미개간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개간 사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개간 작업은 이전과 달리 큰 폭으로 진행되었는데, 심지어 과거에는 감귤 재배가 도저히

31) 김준희는 위미리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마을 내부의 농민들의 경우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감귤 재배를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빨리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고, 그 외에는 이미 토지가격 상승 후에 비싼 가격으로 토지가 거래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마을 내부에서는 토지를 살 수 있었던 경우보다 토지를 개간하면서 팔아넘긴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며 그 어려운 고비를 토지를 부분적으로 잃지 않고 어떻게 잘 건디어 버텼냐가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길이었다.”, 위의 글, 22쪽,

32) 김준희는 이들을 ‘신흥부자’라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과거에 (고지대) 토지는 많이 소유했으나 그 효용가치가 낮아 재산가로서 위세가 없었는데 그 토지가치가 상승하여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둘째, 감귤 재배 초기 아직 고지대 토지가 그 효용가치를 완전히 이용 받지 못할 때, 이미 그 가격이 오른 저지대의 토지를 비싸게 팔고 고지대의 토지를 싼 가격으로 다량 구입하는 식의 토지 맞교환을 통해 토지 량을 늘려 부자가 되는 사람, 김준희, 앞의 글, 23쪽,

33) ‘신례 1리(예촌)’ 지역이 감귤 재배지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다. ‘예촌’에서 최초로 감귤 재배를 시작한 인물은 마을에서도 부농으로 손꼽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1965년 20여 평의 텃밭에 밀감을 식재하였고, 그 이후로 감귤 재배가 본격화되었다. 이미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심어진 감귤 나무가 소수 있기는 하였으나 주민 자신이 자발적으로 감귤 재배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던 것이다. 오석민, 『제주도 감귤 재배지의 계층 구성 및 임노동의 성격』,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6, 30쪽,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되던 마을 공동 목장 주변 지역까지 감귤이 식재하기에 이르렀다.³⁴⁾

따라서 마을은 이전과 달리 전 경작지가 감귤을 재배하는 단작화로 바뀌었다. 보통의 농민 경제가 여러 가지 작물을 다양하게 경작하여 식량을 마련하고 남은 잉여 생산물을 시장 등 외부로 처분하였던 모습에서, 전 생산물인 감귤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상황은 이전에 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³⁵⁾

기실 감귤이 1960년대 이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였던 까닭에 신례 1리 지역의 토지 이용도는 이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그리고 높은 이윤이 보장되었던 측면은 필연적으로 마을 내 농가들의 경제적 ‘서열화’로 귀결되었다. 기존의 경작지가 과수원으로 전환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해발 150미터 이상의 초지 지역까지 과수원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서술한 위미리의 경우에서처럼 신례 1리에서도 ‘외부인’의 토지 점유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을 내부인들의 자본 축적 정도가 외부인의 그것에 비교할 때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물론 철저히 시장에서의 가격을 토대로 이윤이 결정되었던 당시 감귤 농업의 특징 상 가격의 변동이 고스란히 ‘리스크’가 될 경우 감귤을 재배했던 개별 농가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례 1리 지역의 토지 가격은 ‘외부인의 적극적 매입’ 속에 상회하는데, 신례 1리의 경우 평당 최저 1만 5천원에서 당시 논 지역 거래 가격의 2-3배나 높았다는 사실은 토지에 수요, 나아가 투기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³⁶⁾ 오석민의 연구에 따르면, 신례 1리 지역의 총 경작지 중 예촌 지역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소유 비율은 42.3%에 달했다.³⁷⁾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감귤의 높은 수익성에 따르는 결과였다. 즉, 토지 소유 규모가 작은 영세농까지도 쉽사리 농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거리, 다시 말해 겸업을 찾고 있었다. 이것은 감귤의 높은 수익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수익성은 각 농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토지를 확대하고 그 소유지를 직영하여 감귤 농업에 대한 신례 1리 내 각 농가의 토지 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³⁸⁾

5. 나오는 글

이상 대략적으로 제주감귤농협의 형성과 주요 활동,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기 감귤 재배 마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반도의 부속 지역으로서 한반도의 기후와 달리 열대에

34) 위의 글, 31쪽

35)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생산량을 보고 1년을 결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시장 가격의 변동 속에서 ‘감귤을 팔아 돈을 손에 쥐어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위의 글, 32쪽 재인용,

36) 오석민, 앞의 글, 33쪽,

37) 주민 등록 상 예촌 마을에서만 거주하는 농가의 경지 소유 비율은 51.1%에 불과했다. 위의 글, 35쪽,

38) 당시 예촌의 토지 소유 상황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먼저 마을 내 대토지를 소유한 농가의 경우,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자녀들이 과수원을 상속하기를 원하였고, 少토지를 소유한 농가의 경우에는 적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감귤의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재배를 지속했다고 한다. 위의 글, 37쪽,

가까운 기후를 보유한 제주도는 감귤이 일찍 간헐적으로 재배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 소재한 묘목들이 제주도에 도입되면서 현재의 감귤로 정착하였다.

화산섬이라는 기후적 한계로 田作을 중심으로 식량을 재배하였던 제주도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육지의 감귤 수요가 증대하면서 밭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일제 시기 일부 감귤 재배 농가와 일본인의 적산을 인수하여 기업적 감귤 재배를 전개한 이들을 중심으로 1960년 ‘제주도감귤특수농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감귤 재배를 확대시켜 나갔다. 초창기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감귤농협은 규모와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켰다. 물론 1966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농촌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이라는 외부적 지원 정책의 시행은 제주감귤농협의 조직 확대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런데 이 시기 감귤의 재배 면적과 규모의 확대는 철저히 높은 수익성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였다. 그것은 제주도 내 보리, 고구마 등 주곡 혹은 식량으로 섭취할 품종들의 재배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수익성에 기반한 감귤의 재배 면적 확대를 가져왔다. 문제는 이러한 수익성에 몰입할 수 있는 감귤 재배 마을의 개별 농가의 ‘빈부격차’였다. 한편에서는 제주감귤농협을 결성하는 흐름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였던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급속한 감귤의 단작화로 이전보다 마을 내 농민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감귤 재배와 판매를 통해 부를 축적한 일부 부농과 감귤 재배 지역 자체를 투자하였던 ‘외부인’의 자본 집적은 이전의 마을 내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더구나 공동의 이익을 담보하는 제주감귤농협의 신용사업 부재는 앞서 서술한 감귤 농가들 사이의 ‘경제적 서열화’를 촉진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제주도 내 일부 농민들의 주도로 시작하여 제주도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효자 품목이었던 감귤은 역설적으로 1960년 이전의 마을 내 전통적 모습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는 촉매제로서 작용하였고, 경제적 번영의 구조가 철저히 ‘제주도 외’ 지역에서의 규정력으로 고착화됨으로써 현재에도 제주도 내 농가 부채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제주감귤농협’을 매개로 한 박정희 정권 기 제주 지역의 농촌마을의 분화 과정을 더욱 집중하고자 하였으나, 이 부분은 향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광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강광하 외 공저, 『한국 고도성장기 정책결정체계』, 한국개발연구원, 2008
강지용 외 공저, 「제주도 지역농업의 구조변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새마을연구 논문집(제 6호)』, 제주대학교 새마을연구소, 1989
김소남, 『1960-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부락개발, 신탁, 생명운동』,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김준보, 『한국근대경제사 특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김준희, 「감귤 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변화-제주도 위미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88
오석민, 「제주도 감귤 재배지의 계층 구성 및 임노동의 성격」,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제주감귤농협 50년사』, 천제출판, 2011
최호진 박사 강단 50주년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박영사, 1993
홍성찬 외 공저, 『해방 후 사회경제의 변동과 일상생활』, 해안, 2009

토론 : 김효성, 박정희 정권 기 제주감귤농협 연구

곽경상 (현대사분과)

이 연구는 박정희 정권기에 제주도의 주요 상품작물인 감귤이 감귤협동조합을 통해 상품화되는 과정과 그 협동조합의 활동과 조합원 분석을 통해 제주농민의 계급 분화와 농장 중심의 경영확대가 제주의 농민은 물론, 제주사회의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제주도의 농정과 농촌경제에 대한 감귤협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제주경제의 실태와 재편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다만 본 발표문이 자료를 통한 실증적 연구가 아닌, 기왕의 연구사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연구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은 무엇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둘 것인가이다. 이 글은 감귤농협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방향과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발표자가 향후 연구를 통해 이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밝히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연구를 협동조합사의 흐름에 놓고, 수전이 아닌 지역의 협동조합연구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넓히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의 농촌과 농민, 농업경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감귤농업협동조합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자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연구주제와 관련한 자료의 발굴이다. 이 글에서는 감귤협동조합을 분석하는 자료가 구술 자료만이 제시되고 있어, 과연 이 주제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하는데 의문이 든다. 향후 이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박정희 정권기 감귤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자료의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조합원 분석을 시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초기 조직의 결성 단계에서 성장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이 주제를 통해 제주사회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4·3사건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전환되는 역사를 지녔다. 현재까지 다수의 제주사는 이 사건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기 제주감귤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4·3 이후의 제주사회의 재건과 변환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조합의 조직과 조합원의 구성 및 활동 등을 제주의 현대사 전반 속에서 살피는 한편, 이 조직이 제주의 농민과 농촌사회 그리고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주민의 사회사와 더불어 한국 현대사회사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經史要義」의 13義에 나타난 정약용의 사법정의

이재빈(중세2분과)

〈목 차〉

1. 머리말
2. 「經史要義」의 13義에 나타난 형정의 기본원칙
 - 1) 형벌이론에 관한 원칙
 - 2) 유학적 예법론에 따른 원칙
 - 3) 소송절차에 관한 원칙
3. 흙흙의 지향점
 - 1) 參酌減律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寬刑主義
 - 2) 실체진실주의에 따른 사법정의 수립
4. 맺음말

1. 머리말

재판기록은 특정한 사회가 얼마나 빠르고 폭넓게 변했는지를 알기 위해 유용한 자료다. 이는 재판의 속성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재판 자체가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재판기록을 이용하여 사회변동의 속도와 폭을 변별하려면 개별 재판의 중요성과 의의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재판의 양적인 증가는 그 자체로 기존의 가치규범과 충돌하거나 때로는 기존의 가치규범을 근거로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한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현재로서는 소송의 양적 증가를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민장치부책』에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백성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 주목된다.¹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은 이치에 맞지 않게 송사를 제기한다는 의미인 非理好訟을 커다란 문제라고 여겼다.² 守令七事 중에도 詞訟簡이라 하여 소송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수령의 주요 임무였다.³ 하지만 조선 후기의 여러 목민서들을 참고하면 조선에서 이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는 않았다.⁴ 수령에게 요구된 詞訟簡과 非理好訟 사이의 간극이 알려주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은 재판이 없을수록 선정이라는 전통적 관념과 자신의 권리를 조선 왕조의 법질서에 의거하여 확보하려고 한 백성들의 욕구 사이에서 빚어진 첨예한 긴장이었다. 그러므로 재판은 조선 후기 사회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상세히 다룰 가치가 있다.⁵ 이는 곧 당대 지식인의 관점에서 해당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 정약용의 글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서 형정의 운영개선론을 다루었고,⁶ 특히 人命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여겨서 따로 『흙흙신서』를 저술했다.⁷

『흙흙신서』의 연구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역사학계에서 발전시켜온 경향으로 『흙흙신서』를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흙흙신서』를 법제운영 개선론의 일환으로 파악한 다음, 이를 통해 추출되는 정약용의 행정관을 검토하여 새로운 법사상이 출현하는 데에 의미를 부여한다.⁸ 그리고 이를 다시금 조선 후기의 역동적 변화와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한편 법학계에서는 『흙흙신서』를 근거로 정약용의 법사상을 추출하고 계수해야 할 전통으로 이해하여 법학사적 위상을 고찰한다.⁹ 법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선과 대한민국의 법학적 연속성을 부정하며 식민지배 시기를 繼受期로 이해한다.¹⁰ 조선에도 근대적 색채를 가진 법률제도가 일부 있었으나 사법권은 권문세도에 의하여 남용되어 형정이 극히 문란하였고 왕권본위의 규문절차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¹¹ 다만 이런 견해가 현재 한국인들의 법률의식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다가, 일제강점기에 경성에서 판사를 지낸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가 『朝鮮法制史』를 간행한 이래로 조선의 법제운용이 『당률』과 『대명률』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이 현대중국에서도 수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¹² 조선후기 사회를 법률적 정제 및 종속상태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규범의 형식적 불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의 연속성을 모색하려는 연구경향은

3) 『經國大典』 「吏典」 考課.

4) 홍해뜸, 2014, 「18세기 목민서의 향촌통제와 관민소통책」,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41쪽.

5) 조운선, 2002, 『조선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6) 조성을, 2002, 「정약용의 행정론」, 『학림』 23, 1쪽.

7) 『欽欽新書』 卷1, 「序」. “余既輯牧民之說, 至於人命, 則曰是宜有專門之治, 遂別纂爲是書.”

8) 조운선, 1997, 「정약용의 사회개혁 방법론」, 『사충』 46; 조성을, 2002, 앞의 논문.

9) 심희기, 1985, 「『欽欽新書』의 法學史的 解剖」, 『사회과학연구』 5-2; 박병호, 1990, 「다산의 형률관」, 『다산학의 탐구』, 민음사.

10) 홍성찬, 2009, 『법학원론』, 박영사, 139쪽.

11) 이재상, 2007,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14~15쪽.

12) 楊廷福, 1982, 「《唐律》對亞洲古代各國封建法典的影響」, 『唐律研究』(2012년 신판), 上海古籍出版社, 176쪽.

1) 최윤오, 2013, 「진천 <사송록>과 민장치부책」, 『재판으로 만나본 조선의 백성—충청도 진천 <사송록>』, 혜안; 심재우, 2013, 「조선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 참조.

2) 한상권, 2011, 「조선시대의 교화와 형정」, 『역사와 현실』 79.

꾸준히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법학이 포괄해야 할 범위를 律官의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료들 사이의 논쟁이 지닌 법률적 효과까지 넓히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¹³ 이런 관점에서 전문관료 출신인 동시에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정약용의 量刑觀과 刑罰觀을 검토하는 자료로 『흙흙신서』가 활용되는 것이다.¹⁴

정약용에 따르면 형정의 뿌리는 흙흙이다.¹⁵ 흙흙은 곧 “敬其事而哀其人”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원칙으로서의 가치는 있어도 구체적인 적용지침은 되지 못한다. 흙흙을 영·정조대의 寬刑主義에 반대하는 嚴刑主義로 파악하는 견해와¹⁶ 유교적 인명관과 실증적 검험이 결합된 법치강화론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대별된다.¹⁷ 최근에는 ‘억강부약’이 도리어 사법정의를 해치는 현실을 정약용이 비판한 대목에 주목하여 흙흙이 인간의 선천적 차별을 긍정한 『목민심서』의 변동조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견해도 발표되었다.¹⁸ 세 견해는 정약용의 궁극적 지향을 달리 평가한다. 즉 첫째 견해는 공권력의 강화를 통한 국가주도의 사회변동을, 둘째 견해는 합리적 판단에 입각한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친 제도적 지배를, 셋째 견해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시도한 것과 같은 보수적 개혁을 각각 지향점으로 이해한 결과다. 각 견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흙흙신서』 전체의 총론 격인 「경사요의」에서 정약용이 제시한 형정의 기본원칙을 상세히 분석하여 당대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정약용의 지향점과 맺는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사요의」의 분석은 일찍이 인용전거를 통한 계통화가 시도된 적이 있다.¹⁹ 또한 「경사요의」와 더불어 『경세유표』 「추관」 수제까지를 포함하여 형정관의 전모를 파악하려는 연구도 이미 존재한다.²⁰ 그럼에도 다시금 「경사요의」 분석, 그 중에서도 총론 격에 해당하는 13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 법적인 논점을 담고 있기에 기존 역사학계가 수행했던 것처럼 개별 구절의 의미를 밝혀서 정약용의 사상적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그 의의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흙흙신서』의 법학사적 위상을 검토하면서 자칫 조선 후기 사회변동의 양상을 간과한다면 계기적으로 조선 후기 법치의 발전 양상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형법이론과 조선후기 사회상을 염두에 두면서 정약용이 밝힌 형정관의 의의를 살펴보려 한다.

13) 정극식, 2013, 「「조선」 법학사 구상을 위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54-3.

14) 이정훈, 2011,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흙흙신서』를 통해 본 정약용의 양형론」, 『조선시대 법과 법사상』, 선인; 안나현, 2013, 「흙흙신서를 통해 본 다산의 형벌사상」, 『안암법학』 41.

15)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斷獄之本 在於欽恤.”

16) 조운선, 1997, 앞의 논문, 95~104쪽.

17) 이기봉, 2009, 「다산 정약용의 형물론과 형정론」,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8) 김호, 2013, 「조선후기 위법률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 『역사와 현실』 87.

19) 권연웅, 1996, 「『흙흙신서』 연구 1: <경사요의>의 분석」, 『경북사학』 19; 이종일, 2012, 「정다산과 흙흙신서」, 『다산학』 20.

20) 조성을, 2002, 앞의 논문.

2. 「經史要義」의 13義에 나타난 형정의 기본원칙

「경사요의」 1권에서는 형정의 원칙을 13가지로 제시한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원칙	의미	전거
① 售怙欽恤之義	과실은 용서하고 고의는 엄벌할 것	『서경』 「제전」/『서경』 「주서」 강고 /『서경』 「주서」 여형
② 辭聽哀經之義	양쪽의 말을 살피고 상의하여 판결할 것	『서경』 「여형」 『주례』 「추관」 소사구
③ 明愼不留之義	결속기간을 짧게 할 것	『주역』/『서경』 「강고」
④ 司刺有赦之義	不識·過失·遺忘, 노인·아이는 용서할 것	-
⑤ 過殺諧和之義	과실로 살인한 자와 유족은 화해시킬 것	『주례』 「지관」 조인
⑥ 仇讎擅殺之義	자의적인 복수는 금지할 것	『주례』 「추관」 조사 /『주례』 「지관」 조인 /『예기』 「곡례」
⑦ 義殺勿讎之義	의살자에게는 복수를 못하게 하고 이주시킬 것	『주례』 「지관」 조인
⑧ 受誅不復之義	사형당한 이의 복수를 불허할 것	『공양춘추』
⑨ 議親議貴之義	의친과 의귀는 법률이 아닌 경법에 따를 것	『주례』 「추관」 소사구
⑩ 亂倫無赦之義	부자·형제 사이의 범죄는 용서하지 않을 것	『서경』 「주서」 강고
⑪ 弑逆絕親之義	시역자의 의리를 단절시킬 것	『춘추좌씨전』/『예기』
⑫ 盜賊擅殺之義	도적을 죽인 자는 무죄로 볼 것	『주례』 「추관」 조사
⑬ 獄貨降殃之義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받지 말 것	『서경』 「여형」

<표 1> 「경사요의」 1권에 제시된 형정의 13개 원칙

『흙흙신서』는 殺獄 사건만을 다룬다.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人命이 걸려 있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지은 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 원칙들을 형벌이론(①, ④, ⑤, ⑫), 유교적 예법론(⑥, ⑦, ⑧, ⑨, ⑩, ⑪), 소송절차이론(②, ③, ⑬)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1) 형벌이론에 관한 원칙

근대 형법에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런 면에서 售怙欽恤之義는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약용은 고의범·결과적 가중범·과실범·착오범을 구분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고의와 비고의를 나눈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약용은 행위자의 의도에 따른 처벌을

중시했다.

①에서 인용된 『서경』 「제전」 구절은 “**眚災肆赦 怙終賊刑 欽哉欽哉 唯刑之恤哉**”다. 朴錫武와 丁海廉의 해석은 “과실과 불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범죄를 풀어주어 사면해 줄 수 있고, 확실히나 재범은 극형의 형벌로 처벌하되, 공정스럽고 조심스럽게 하여 공훈의 정신으로 형벌을 내려야 한다.”인데,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²¹ **眚** 怙 欽恤之義 말미에 정약용은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眚과 災는 놓아주고, 怙와 終은 사형으로 다스린다 함은 곧 옥사를 다루는 대원칙이다. 위로부터 『서경』 「요전」·「강고」·「여형」에 이르기까지 서로 전하여 법으로 삼았다. 鬪殺 사건을 살피는 자는 마땅히 眚과 終 두 글자를 십분 깊이 생각하여 이것이 過誤라면 비록 목숨을 해하기에 이르더라도 반드시 주저 없이 풀어주고, 고의로 저지른 죄에 있어서는 비록 작고 기한이 이미 지났어도 끝까지 파헤쳐서 꼭 죽여야 한다. 옥사를 다루는 요체는 오직 이같이 할 뿐이다.²²

『서경』의 구절은 맥락 상 眚災와 怙終이 대응되고 肆赦와 賊刑이 대응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眚은 눈에 병이 나서 그들이 진 상태(目病生翳)²³로 過失과 錯誤를 합한 개념(=過誤)이다. 怙는恃가 있는 것을 일컫는다. 믿는 것·기댈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眚에 대응되는 관계를 생각할 때 고의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의 틀에서 보면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²⁴가 있는 상태로 파악해도 무방하다. 정약용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여 고의범은 처벌하고 과실범은 사면하는 것을 형정의 원칙으로 여겼다.

A에서 언급된 鬪殺은 眚終二字를 十分凝思해야 할 대상이다. 투살이란 싸움 도중 살해한 행위를 일컫는데, 현행 형법에서는 상해(폭행)치사죄에 대응된다. 상해(폭행)치사죄는 살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구분된다. 오늘날의 법체계에 따르면 투살자는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²⁵인 결과적 가중범이다.²⁶ 정약용은 투살에서 단지 착오와 과실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眚에 해당된다면 必赦無疑하고 終에 해당한다면 追究必殺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을 따로 처벌하지 않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이유는 『흙흙신서』가 조선의

21) 이정훈, 2011, 앞의 논문, 261~262쪽. 이 글에서는 이정훈의 논지에 따라 眚를 확실히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다룬다.

22)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眚災肆赦 怙終賊刑 乃按獄之大經 上自堯典康誥呂刑 相傳爲法 凡按鬪殺之獄者 宜於眚終二字 十分凝思 是過誤耶 雖當下致命 必赦無疑 是故犯耶 雖小限已過 追究必殺 按獄之要 惟此而已.”

23) 『說文解字』 眚. “目病生翳也, 從目生聲, 所景切.”

24) 이재상, 2005, 『형법총론』 (제5판 보정판), 박영사, 158쪽.

25) 이재상, 2005, 위의 책, 197쪽.

26) 심희기, 1983, 「조선후기 형사판례 연구-참작감물에 관하여」, 『법사학연구』 7, 46~47쪽.

법체계 위에서 수령들의 지침서로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대명률』에는 謀殺·鬪毆殺·故殺·戲殺·誤殺·過失殺을 구분하여 이미 살인을 일률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으나,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과실살만이 贖錢을 내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²⁷ 그러므로 수령들로서는 과실살을 나머지 살인과 구분하는 것, 즉 해당 살해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여 목숨을 빼앗을 만한 일인지를 판단해야 했던 것이다. 정약용은 착오까지 포함하여 과실을 확대해석함으로써 과실살로 분류될 가능성을 보다 넓혀놓았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정약용이 행위의 의도를 살펴서 처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며, 이는 형정의 목적을 응보가 아닌 교화라고 여겼던 까닭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⁸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하여 고의의 범주를 좁히고 과실의 범주를 확장한 정약용은 盜賊擅殺之義(⑫)를 통해 위법성조각사유²⁹를 언급한다. 여기서 인용된 전거는 『주례』 「추관」 조사와 『대명률』이다.³⁰ 정약용은 도적천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B. 이것은 곧 지금의 명화적을 칭한다. 도적이 향읍과 사가를 공격하여 무릇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는 것은 모두 무죄라고 일컫는 것이다. 정중이 구를 잘못 꿇은 것이 아닐까 한다.³¹

盜賊擅殺은 명화적을 살해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명화적이란 30~40명씩 떼를 지어 약탈하는 무리를 말한다. 개별 도둑과는 달리 명화적으로 한정된 이유는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무력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민들이 결당하여 치안불안을 야기하고 급기야 소요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엄격한 형벌은 『대명률』에서도 관찰되어 있었다.³² 즉 이들은 공권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명화적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였지만 擅殺이라 할지라도 무죄인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으며, 여기서도 행위의 의도를 중시하여 처벌하는 정약용의 법사상이 투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성 판단을 거쳐 형벌의 감경 내지는 면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司刺宥赦之義(④)와 過失諧和之義(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司刺宥赦之義란 행위가 不識·過失·遺忘에 해당할 경우 宥(寬)하는 것이고, 행위자가 幼弱·老旄·蠢愚할 경우 赦(舍)하는

27) 안나현, 2013, 앞의 논문, 106쪽.

28) 진희권, 2012, 「정다산 법사상의 현대적 의의」, 『한국학논집』 47, 95쪽.

29)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행위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위법성이 阻却(부정)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현행 형법에서는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해서는 이재상, 2005, 앞의 책, 213~216쪽 참조.

30)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秋官朝士 凡盜賊軍 鄉邑及家人 殺之無罪.” “大明律云 凡夜無故入人家內者 杖八十 主家登時殺死者 勿論.”

31)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此即今所稱明火賊也 謂盜賊軍於鄉邑及私家者 凡人殺之 皆無罪.”

것이다. 먼저 처분에 해당하는 용어부터 살펴보자면 宥(寬)는 감경이고 赦(舍)는 면제다. 정리하자면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로 不識·過失·遺忘을,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로 幼弱·老旄·蠢愚를 제시한 것이다.

不識은 오인살해로써 甲에게 갇아야 할 원수를 乙에게 갇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오늘날 형법에서는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파악하여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³²⁾ 객관적 법익침해(殺人)에 대한 공권력의 처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객체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정약용은 오인살해 또한 책임의 감경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후술할 ‘의살’의 경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지만, ‘누구를’ 죽였는지도 중요하게 여기던 것과 무관치 않다. 過失은 나무를 베려고 칼을 뽑았는데 사람을 친 경우로 이는 과실치사에 해당한다. 遺忘은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무기를 사용한 경우로 역시 과실치사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된 三宥는 ①의 구체적 적용이다. 책임성이 면제되는 사유로 언급된 幼弱은 8세 미만의 어린 아이, 老旄는 80세 이상의 노인, 蠢愚는 선천적으로 어리석어서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周法·漢法·明律·國典의 규정이 모두 다른데, 오늘날 옥사를 살피는 자는 마땅히 국전을 위주로 하되 옛 義를 참작할 것을 주장했다.

過失諧和之義는 착오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들은 고의로 죽인 자와 구별하되 특히 鬪殺의 처리는 고의와 과실에 걸쳐있는 만큼 행위자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과실에 의하여 살인한 자를 이웃 마을의 중재로 화해시키는 것이 성인의 법이라는 대목이 주목된다. 『주례』에서 화해를 권하였으나 화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과실범 처리의 원칙을 말한 것이다.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유족들에게는 원한이 남기 때문에 복수의 마음이 들게 되는데, 과실범 처벌은 ①에 반하므로 이들을 화해시키려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2) 유학적 예법론에 따른 원칙

유학적 예법론에 따른 원칙은 다시 복수와 관련된 원칙(⑥, ⑦, ⑧)과 의리와 관련된 원칙(⑨, ⑩, ⑪)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정약용이 기존 세계관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드러내는 요소로 해석된다.³⁴⁾ 정약용이 유학적 예법론을 의식적으로 벗어나려 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의리와 관련된 원칙들은 신분에 따라 차별적이다. 그럼에도 복수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정약용이 단지 복고적 행정관을 견지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³⁵⁾ 여기서 복수와 의리는 사실상 연결된 문제이나, 복수와 관련된 원칙이 주로 복수를 하려는 자의 擅

32) 장진번 주편, 한기중 외 4인 譯, 『중국법제사』, 소나무, 610~611쪽.

33)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서는 이재상, 2005, 앞의 책, 169~181쪽.

34) 조운선, 1997, 앞의 논문, 88쪽.

35) 이에 대해서는 이기봉, 2009, 앞의 논문 3장 3절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어 주로 참조하였다.

殺문제를 다루면서 복수의 유죄 여부를 변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의리와 관련된 원칙은 행위의 책임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분의 의의가 있다.

복수와 관련된 원칙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조선후기 사회에서 복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조선후기에 복수는 불법이 아니었고 의리론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따라 복수는 은연중에 권장되었다. 정약용 또한 복수 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정약용이 문제로 여긴 것은 복수의 확장과 남용이었다.

仇讎擅殺之義에 인용된 『주례』의 기사는 “무릇 원수를 갚으려는 자가 朝士에게 보고하고 죽이면 죄가 없다.”³⁶⁾이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원수가 도망친 가운데 그 살인자의 사건이 朝士에게 올라왔고, 특히 원수가 도망친 까닭에 법관이 죽일 수 없다가 이제 유족이 길에서 만나 사사로이 알아서 죽인 것이다. 원수의 죄안이 이미 法司에게 있으므로 무죄다.”³⁷⁾라고 해설한다. 사적인 복수는 관가에 사건을 이미 고하고도 관가가 이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만 무죄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런 살인도 擅殺이라는 점이다. 천살은 임의로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책임감경사유가 되는 이유는 공권력도 ‘원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원수가 공권력의 처분(罪案)을 통해 죽어야 할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수에 의해 살해된 자의 유족이 원수를 살해하더라도 공권력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여기서의 책임감경사유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발동된다. 먼저 유족이 원수의 사건을 공권력에 미리 고해서 죄안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원수는 공권력에 의해 죽어야 할 사람으로 판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원수를 살해한 사람이 반드시 유족이어야 한다. 이렇듯 임의적 살인복수의 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하는 것은 당시의 세태에 대한 정약용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그가 문제로 지적하는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 요즘 복수사건은 원래의 사건을 묻지 않고 오직 節烈로써 이를 허락하여 대개는 옥사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는 커다란 폐단이다. 심하게는 피살조차 명확하지 않은데도 사사로이 누군가를 원수라 지목하고는 공공연히 복수하는 자도 있으니 어찌 작은 걱정이겠는가?³⁸⁾

위 글은 당시 節烈을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지만, 유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인물이 아닌 정약용이 절의론과 복수의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⑥의 의의는 복수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擅殺을 억제하고 공권력에 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사법정의를 지향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36)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凡報仇讎者書於士殺之 無罪.”

37)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此謂仇人在逃 其殺死之案 書在朝士 特以其在逃之故 法官不能殺今苦主遇於道 私自擅殺 以仇人罪案 已書在法司 故得無罪也.”

38)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近世凡復讎之獄 不問本事 唯以節烈許之 概不成獄 此大蔽也 甚至被殺不明 而私指爲讎 公然復讎者有之 豈細憂哉?”

이런 생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대목은 義殺勿讎之義(㉗)다. 의살이란 죽이고도 의로운 경우(殺而義)를 말한다. 『주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나라를 갇지 않게 하되 원수로 삼지 못하게 하고 원수라 하여 복수하면 죽인다고 규정했다. ㉗에서 인용된 구절을 보면 鄭玄과 賈公彥은 모욕을 당해 살해한 경우 의롭다고 해석했지만, 정약용은 이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했다. 피살자가 大惡을 범하고 不孝不友·悖逆淫亂하여 정리로 보아 赦할 수 없을 경우에만 義殺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의살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죽이는 행위였고, 그러므로 의살당한 이의 유족이라 하더라도 의살자를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의 법사상에 부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살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면 아무 살인이나 의살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³⁹

아버지가 사형당한 경우 아들이 이를 복수할 수 없다는 원칙인 受誅不復之義(㉘)는 공권력에 의한 살해를 복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살해라서 義의 성립여부라도 다뤄볼 수 있는 義殺보다도 복수의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었다. 『공양춘추』 정공 4년조에 나오는 “父가 受誅하였는데 子가 復讎하는 것은 推刀의 도리”라는 구절을 첫머리에 두고 하휴의 해석을 붙여놓은 정약용은 ㉗에서 다룬 『주례』의 구절과 함께 이 두 구절이 “가장 마땅하게 드러난 원리이며 옥사를 판단할 때 저울로 삼아야 한다”⁴⁰고 하였다.

의리와 관련된 원칙은 義親義貴之義(㉙), 亂倫無赦之義(㉚), 弑逆絶親之義(㉛)가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㉙는 義親과 義貴의 경우 법률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親親尊尊의 원리가 반영된 법리이다. 의친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복잡한데, 기본적으로는 황제의 내외 친족을 일컫는다.⁴¹ 義貴는 고위관료를 가리키는데, 직사관은 3품 이상, 산관은 2품 이상, 작위는 1품인 사람이다.⁴² 당률에서는 8議라 하여 死罪를 저질러도 법률에 따라 죽이지 않고 황제에게 상주하여 처분을 물어야 하는 8가지 집단이 있었는데, 의친과 의귀는 그 중 둘이다.⁴³ 정약용이 8의 중에서 유독 의친과 의귀만 언급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나머지 6의가 자의적이거나 조선사회에서 의미가 없는 집단이라면 의친과 의귀는 적용대상이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다.⁴⁴ 왕실의 인물이 死罪를 범하더라도

39) 김호, 2012a, 「‘의살’의 조건과 한계」, 『역사와 현실』 84, 359쪽.

40)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此二條 最宜表章 以爲斷獄之權衡也.”

41) 의친의 범위는 황제의 祖免 이상의 친척과 태황태후와 황태후의 시마 이상의 친척, 황후의 소공 이상의 친척이다. 단문, 시마, 소공은 모두 상복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단문 친척은 고조의 형제, 증조의 사촌형제, 조부의 육촌형제, 부친의 팔촌형제, 자신의 삼촌형제이다. 시마 이상의 친척은 증조의 형제, 조부의 사촌형제, 부친의 육촌형제, 자신의 팔촌형제이다. 소공 이상의 친척은 조부의 형제, 부친의 사촌형제, 자신의 육촌형제이다. 이상의 내용은 장진번 주편, 2006, 앞의 책, 389쪽 참조.

42) 직사관은 영에 의거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실직에 있는 인물이고, 산관은 관장하는 업무가 없는 관료다. 爵位는 國公 이상을 가리킨다. 장진번 주편, 2006, 위의 책, 389쪽 참조.

43) 장진번 주편, 2006, 위의 책, 390쪽; 楊廷福, 1982, 「《唐律》의社會經濟基礎及其階級本質」, 앞의 책, 50쪽.

44) 議故는 황제의 옛 친구, 義賢은 큰 덕행을 하는 현인, 義能은 큰 재능을 지닌 사람, 義功은 국가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 義勤은 부지런히 공무를 수행한 사람, 義賓은 전 왕조의 귀족이다. (장진번 주편, 2006, 위의 책, 389~390쪽.) 議故부터 義勤까지는 객관적으로 범주를 한정할 수 없으며, 義賓은 정약용이 살던 시기에는 고려의 귀족이 의미 있는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신하된 자가 왕의 의리를 단절시킬 수 없으므로 經法에 따르고 법률을 따르지 않는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㉙는 정약용이 유교적 행정관에서 단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亂倫無赦之義란 말 그대로 난륜한 자에게 赦함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정약용이 이 내용을 직접 해석한 말은 없고 채침의 말과 『여씨춘추』의 구절을 인용했는데, 『서경』의 「강고」를 주해한 것이다. 예와 의가 밝지 않으면 사람의 기강이 무너져서 부자가 서로 불편하고 형제가 서로 싸우니 백성들 사이의 법이 반드시 크게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이에 벌을 줄 때에는 赦함이 없이 끝까지 징계하는 것을 늦춰선 안 된다는 말이다. 以禮入律은 당률 이래로 이어진 법원칙으로써 행정의 목적이 化民이었던 당대의 법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弑逆絶親之義는 시역한 자와는 親이 단절된다는 것으로 여기에 제시된 고사는 魯桓公의 부인 姜氏를 일컬어 夫人이라고만 부른 일이다. 강씨는 본래 齊襄公의 동생으로 노환공에게 출가하기 전에 이미 제양공과 정을 통한 사이였다. 노환공이 제에 들른 도중에 다시금 강씨와 제양공이 간통한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강씨가 이를 제양공에게 알려서 제양공이 노환공을 술에 취하게 하여 살해했다. 의리를 논하자면 강씨는 노환공에게 아내로서의 의리와 신하로서의 의리를 모두 저버리고 弑逆을 도모한 것인데, 그에 따라 姜氏라 부르지 않고 다만 부인으로만 칭하는 것이 禮에 걸맞다고 본 것이 『춘추좌씨전』의 서술이었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시역은 반드시 극형으로 처벌하고 정황을 묻지 않는다고 하여 살인의 객체가 임금일 경우에는 고의와 과실을 논하지 않고 처벌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3) 소송절차에 관한 원칙

정약용은 소송절차에 관해서도 세 가지 원칙을 밝혔는데 辭聽哀經之義(㉜), 明愼不留之義(㉝), 獄貨降殃之義(㉞)가 그것이다. 사건을 심사하면서 부정하게 금품을 취하여 살인자의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㉞은 행정에서의 특별한 원칙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차원의 주장이다. 당대의 폐단을 반영한 원칙이라는 의의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원칙이 지닌 법리적 가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㉜와 ㉝만을 다룬다.

㉜는 진술을 들을 때의 원칙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첫머리에 인용된 『서경』 「여형」의 구절은 “察辭于差 非從惟從 哀敬折獄 明啓刑書 胥占 咸庶中正”으로 채침의 해석에 따라 그 뜻을 풀어보자면 “진술의 차이를 살펴 따르지 않은 듯 따르며 哀敬하는 마음으로 옥사를 판단하되 법률을 상세히 밝혀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이를 헤아리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를 더욱 깊이 해석해서 “哀敬은 곧 欽恤이며 刑書는 당시의 『無冤錄』과 같은 책이고 胥占이란 여러 사람과 서로 더불어 그 뜻을 해석하는 것으로 마치 점쟁이들이

여럿이서 점괘를 밝히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⁴⁵ 이를 재판관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⁴⁶ 「경사요의」의 목적이 형정의 대원칙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그 뒤로 이어지는 경전의 구절은 역시 『서경』 「여형」에 나온 것으로 “한 쪽의 진술을 밝히고 맑게 하라. 백성을 다스림에는 사건에 있어서 양쪽의 진술을 올바르게 듣지 못함이 없어야 하니, 혹시라도 사건의 양쪽 진술을 사사로이 어지럽히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한 쪽의 진술만 듣더라도 재판관이 明清하다면 사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주례』 「추관」 소사구의 구절은 五聽으로 진술을 듣고 백성의 마음을 찾아내니 辭聽, 色聽, 氣聽, 耳聽, 目聽이라는 내용이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기색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불필요한 의심이 생겨서 일을 잘못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마지막으로 간사한 사람이 사건에 끼어들지 말게 하고 어진 이가 옥사를 처결해야 한다는 「여형」의 구절을 인용한 다음 재판관이 사건을 거듭 생각하고 생각하면 귀신이 와서라도 알려준다면 이런 도움은 선량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②의 의의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각 구절과 해석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재판관이 홀로 진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고, 그 다음으로는 재판관이 明清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색으로 판단하여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사건을 대강 처리하지 말고 깊이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판관은 여럿이 상의하여 刑書의 뜻을 밝힌 다음 가급적 양측의 진술을 듣되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한 쪽의 진술을 듣고도 差를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明清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차례 생각하면서 진술하는 이의 기색이 아닌 진술의 일관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은 절차적 제도와 연결되는데,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의 뜻을 밝히고 그 해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진술을 청취할 때에도 差가 없이 일관된 것인지 심리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밝히려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③은 형옥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원칙의 의의는 정약용이 총설에서 밝힌 것처럼 “오래된 사건은 진술과 증거가 모두 없어도 살려야 할 자를 살려낼 수 없고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처형하지 못하니, 성왕의 법은 이와 같지 않았다”⁴⁷는 말에 응축되어 있다. “군자는 형벌을 밝히고 삼가서 씌으로써 사건의 처리를 정제시키지 않는다”는 『주역』의 구절로 시작하는 이 단락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⁴⁸과도 상통하는

45)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哀敬者 欽恤也 刑書者 如今無冤錄之類也 胥占者 諸人相與解釋其義 如筮家之有旅占也.”

46) 권연용, 1996, 앞의 논문, 14~15쪽.

47)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既成老獄 詞證俱絕 則可生者 不可以傳生 當死者 不可以斷死 聖王之法 不如是也.”

48) 이재상, 2007, 앞의 책, 29~38쪽 참조.

면이 있다. 물론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오늘날과는 법적인 제도가 다른 것이지만, 정약용은 신속한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한다는 분명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정약용이 우려했던 것처럼 심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거의 보존은 더더욱 난망해지고⁴⁹ 무분별한 刑訊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거짓으로 자백하여 죄를 받을 위험성도 올라갔다. 정약용에 따르면 당시 투살사건 심리가 최대 24년까지 걸린 사례도 있다고 하니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인권은 물론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과제였다. 또한 살육사건의 경우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면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으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정약용은 이를 위한 방편으로 신속한 재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판관이 지녀야 할 태도도 서술하고 있는데, “옥사를 살피는 자는 반드시 죄수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려 해야 한다”⁵⁰고 하여 죄수가 최대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늘날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유사한 것으로, 死罪에 해당한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법적인 관념을 드러낸 것이다.

3. 흄의 지향점

1) 參酌減律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寬刑主義

參酌減律은 사료상의 용어는 아니고, 『속대전』에 적시된 “酌以情法減律”이라는 법원칙을 개념화한 것이다.⁵¹ 감률과 어우러진 참작은 오늘날 형법 제53조에 명기된 酌量減輕에 해당한다.⁵² 『흄흄신서』에서 쓰이는 참작의 용례는 의미가 다소 다르다. 정약용은 “더러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고훈과 고사를 인용하여 참작하는 자료로 삼을 것”⁵³을 주문하는데, 여기서의 참작은 법률을 보완하는 고훈·고사 등의 기타 法源을 감안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그렇게 보면 參酌減律이 정약용의 법사상에서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텐데, 사건에 해당하는 법조문이 없을 경우 經과 權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긍정했고 殺獄에서의 參酌은 결국 형의 경감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속대전』에 명기된 參酌減律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흄흄신서』의 저술목적이다.

참작감률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 사건·정황·피해자와 가해자를 참작하려면 소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중시하는 지향과 충돌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로는 罪와 刑의 관계가 무너져서 행위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다. 동일한 행위(=罪)라 할지라도 참작에 따라 다른 처분(=刑)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악용하는

49)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형사정책에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이재상, 2007, 위의 책, 30쪽).

50)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按獄者 必爲囚而求生也.”

51) 심희기, 1983, 앞의 논문, 43쪽.

5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3)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或法律之所未言者 宜以古訓古事 引之爲義 以資參酌.”

일도 생길 수 있으며, 참작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개별 사건, 개별 재판관(살육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왕이 판결)에 따라 刑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參酌 그 자체는 一律에 해당되어 죽어야 하는 피의자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형정의 목적이 교화여야 한다는 유교적 법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할 잠재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다.⁵⁴

그렇다고 『속대전』에 규정된 참작감률을 부정할 수는 없었고 참작감률이라는 법원리에는 나름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약용은 참작감률에 나름의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범인의 주관, 사회기강과 가족질서의 유지 여부에 따라 살육의 내용을 평가하고 참작감률을 인정했다.⁵⁵ 여기서의 기준은 피해자의 책임성과 개별 살인사건이 義理와 맞는 관계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약용은 명확한 고의를 입증할 수 없으면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므로, 故意와 過誤, 결과적 가중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기강 유지에는 주로 억강부약의 논리가 적용되었다. 관리나 토호가 임의로 백성을 침학할 경우 참작감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관리가 공무집행 중에 백성을 살해한 경우는 범인의 주관과 사회기강을 결합하여 참작감률을 인정했다. 가족질서에서도 의리관계로 보아 卑가 尊을 살해하거나 방조한 경우 ⑩으로 보아 참작감률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尊이 卑를 살해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참작감률을 인정하지는 않고 정황에 따라 참작여부를 결정했다. 살인사건이 凌上犯分에 해당되면 명분을 중시하되, 의리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정황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참작감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이 있었다. 살인의 전말을 파악했을 때 교화의 덕을 침해하지 않는 사건이어야 했고, 피의자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없어야 했다. 정약용도 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혐의만으로 처벌하는 疑心刑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이 경우 減律을 일종의 원칙으로 여겼다. 사람을 죽이면 죽는다는 복수의 원리에서 한 발 나아가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명백할 경우가 아니면 죽이지 않는다는 양형의 원칙이 세워진 것이다.⁵⁶

이런 점에서 정약용의 법사상과 살육의 직접적 결정권자였던 정조의 법사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조의 경우는 살육사건의 심사 기록인 『심리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흙흙신서』와의 비교가 유의미하다. 『서경』에 나오는 罪疑惟輕의 원칙을 관철시켰던 정조는 『심리록』에 기록된 전체 1,112건의 사건 중에서 36건(3.6%)에만 실제로 사형을

54) 정궁식, 2003, 「다산의 경세학—참작감률을 통해 본 다산의 법인식」, 『다산학』 4, 103~104쪽.

55) 정궁식, 2003, 위의 논문, 110~120쪽.

56) 이를 조선시대의 시대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특성을 담고 있다고 본 연구도 있다(정궁식, 2003, 위의 논문, 109쪽).

선고했다.⁵⁷ 정조 역시 사망 원인, 살인 동기, 진술 검토를 비롯하여 사실심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정약용과 유사한 수사 및 재판원칙을 견지한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이 정조의 관형주의를 비판했다고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⁵⁸ “정조의 관형주의·흙흙주의적 법 적용 태도와 법제나 규정을 초월한 왕 개인의 자의적인 은전 남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먼저 흙흙을 부정하려 했다면 흙흙을 형정의 대원칙(斷獄之本)이라고 일컫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로 제시한 구절은 정약용의 말이 아니라 주희의 말인데,⁵⁹ 이 언급 또한 흙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률의 대상이 아니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하여 법조문을 희롱하고 뇌물을 받는 자들을 지탄하는 내용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간접적으로 정조의 감률을 비판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약용 또한 감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폈다. 이에 대해서는 감률이 풍속교화에 저촉될 경우에 한하여 비판적이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정약용이 관형주의에 부정적이었는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엄형주의를 지향하였는지도 논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흙흙의 용례를 파악해야 한다. 1778년(정조2) 〈欽恤典則〉이 반포되는데⁶⁰ 여기에서 옥중죄수에 대한 처우개선과 刑具의 규격 통일을 지시한다. 징역형이 없었던 조선시대에 獄에 있는 죄수는 모두 미결수다. 刑은 죄를 지은 이에게 벌을 주는 것이지만, 당시에 흙흙은 피의자의 조사과정(고신)과 행형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으로 간주되었다. 특히나 흙흙을 주장하던 측에서 비난했던 법집행 행위인 혹형과 남형은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한 고신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다.⁶¹ 『속대전』에 규정된 刑訊은 하루에 한 차례씩 최대 30대까지 때릴 수 있었으며, 3일 안에는 재차 형신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뒤집어 말하면 3일에 30대씩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형신을 하루에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증가하고 3일 안에도 재차 형신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영조대의 정치범 옥사에서는 死刑에 처해져서 죽기보다 고신과정에서 죽는 일이 적잖게 일어났다.⁶² 정조의 〈흙흙전칙〉은 이런 배경 하에서 반포된 것이다. 그러므로 흙흙은 혹형과 남형을 금지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흙흙은 寬刑과도 연결되었다. 영조대의 전가사변 폐지는 변방 인구가 증가하면서

57) 심재우, 2008, 「조선 후기 법전 편찬과 국왕의 법사상」,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실 편, 『한국유학사상대계 VIII: 법사상편』, 한국국학진흥원, 452쪽.

58) 조운선, 1997, 앞의 논문, 95~104쪽.

59) 『欽欽新書』 卷1, 「經史要義」 1. “朱子曰 今之法家 多惑於報應禍福之說 故多出人罪 以救福報 夫使無罪者不得直 而有罪者反得釋 是乃所以爲惡耳 何福報之有? 今之法官 惑於欽恤之說 以爲當寬人之罪而出其法 故凡罪之當殺者 莫不多爲可出之塗 以俟奏裁 既云奏裁 則大率減等 當斬者配 當配者徒 當徒者杖 是乃賣弄條 貫侮法而受_ㄱ者耳 何欽恤之有?”

60) 『正祖實錄』 卷5, 正祖 2年 1月 12日(癸酉) 記事2.

61) 조운선, 2009,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과정의 실태와 흙흙책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214~215쪽.

62) 조운선, 2009, 위의 논문, 216쪽.

법적인 실효성이 떨어졌던 이유도 부분적으로 개입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무거운 형벌을 폐지한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율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형벌을 가볍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정약용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는데, 이는 관형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실제적 진실을 추구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관형을 판결하는 타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정약용 자신이 이미 고의살-투구살-과실살을 구분하여 고의살인에 대해서만 一律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嚴刑’의 대상은 고의살인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의살인은 원래 율문 상으로도 死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엄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정약용이 「경사요의」를 통해 천명한 법원칙은 고의살인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살인의 고의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傳生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에 가깝다. 그러므로 정약용의 흐름은 참작감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관형주의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2) 실체진실주의에 따른 사법정의 수립

정약용의 행정관은 오늘날 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유사하다.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⁶³⁾ 이는 다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나뉘는데,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유죄인 자를 빠짐없이 벌하는 것이고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무죄인 자를 유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다. 후자는 보통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내지는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법칙, 재심제도 등이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증인과 피고인을 신문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리적 사실인정을 위해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하고, 오판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⁶⁴⁾

정약용은 사건을 먼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한 뒤에 형벌과 관용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서 정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⁶⁵⁾ 이를 위해서 정약용이 중시한 것은 과학적 수사방법이었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법의학이었다. 정약용은 무엇보다도 檢驗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 시신의 상태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상상에서 그 사실을 용서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하는’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는 실체진실주의 상의 직권조사와 증거법칙에도 부합하는 태도였다. 정조 때에 확립된 申明掘檢之法을⁶⁶⁾ 개정해서라도 살육사건에서 시신부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정약용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신명굴검지법은 비록 굴검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부패하지 않은 시신의 굴검을 직권으로 하도록 인정하였으나, 매장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시신(=白骨)이라면 관에 고하여 허락을 받고 굴검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수령들은 임의로 매장된 시신을 굴검할 때마다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보고했고, 허락이 내려오는 사이에 시신은 부패되기 일수였다. 시신을 존중하던 사회에서 굴검을 신중하게 하려는 조치가 역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겨났던 것이다.⁶⁷⁾

여기서 정약용이 지향한 사법정의의 중요한 특질을 추출할 수 있다.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凌上犯分 사건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면 의리와 명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일어난 살육사건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였다. 그 중에서도 死因과 행위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다. 예컨대 칼로 찌른 상처가 덧나서 죽었을 경우 그 상처가 급소에 났다면 설사 칼로 찌르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더라도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소가 아닌 곳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아닌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이고, 급소와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를 분별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약용이 지향했던 것을 엄형을 통한 공권력의 권위 제고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있었다면 형벌이 아니라 사건의 조사였다. 사건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고 그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의도를 분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었다. 이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현대 형법관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다만 책임성을 판단할 때에는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면을 보이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친친의 정리를 인정한 가운데 풍속의 교화가 사회질서의 수립이라고 확신했던 그의 행정관이 반영된 것이었다.⁶⁸⁾ 사실 정약용이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벌에 있어서 응보와 위하와는 거리를 두며 교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약용의 행정관이 지닌 유교적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 그친다면 일면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의 흐름은 오늘날 형벌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여러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강력범이나 정치범이 연루된 사건이 공개되면 흔히 공권력에 의한 조작과 은폐, 이에 가세하는 언론이 부추기는 여론재판 등을 거치면서 범인을 비난하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데에 혈안이 되는 모습을 쉽사리 보게 된다.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며 이 사회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정약용의 행정관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정의란 무엇이며, 그것이 구현되어야 할 방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인 형벌이론에서 착오와 과실을 똑같은 감경사유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당대 사회적

67) 김호, 2013, 앞의 책, 59~67쪽.

68) 김호, 2012b, 「조선 후기 강상의 강조와 다산 정약용의 정·리·법」, 『다산학』 20, 31쪽.

63) 이재상, 2007, 앞의 책, 22쪽.

64) 이재상, 2007, 위의 책, 24~25쪽.

65) 김호, 2013,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문, 75쪽.

66) 『正祖實錄』 卷3, 正祖 1年 5月 10日(甲戌) 記事3.

조건에서 그가 지향한 사법정의는 무엇이었고 故意를 특별히 분류하여 처벌하려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꼼꼼하게 새기는 과정에서 오늘날에도 유의미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경사요의」에 제시된 13義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당대 현실에서 지니는 의미를 곱씹어봤다. 먼저 13義를 형벌이론, 유학적 예법론, 소송절차에 관한 원칙으로 분류했다. 이런 원칙은 궁극적으로 정약용이 보기에 死刑이라는 판단을 내리기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정약용은 구성요건적 착오까지도 과실에 포함하여 고의를 엄격하게 제한했고, 의살의 범위를 한정하여 ‘죽이고도 의로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좁혀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은 설사 정약용이 명분과 의리라는 전근대적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인물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종래의 형정관과는 구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정약용의 형정관은 고의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사형을 판결할 수 없다고 봤다는 점에서 寬刑主義 요소가 있으나 관형의 구실로 확장되어 활용되었던 義殺을 축소해석했다는 점에서는 嚴刑主義 요소가 병존한다. 그러므로 정약용의 형정관이 관형주의인지 엄형주의인지 알맞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약용이 개별 살인사건들을 대하는 일반적 원칙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결론으로서 이 글에서는 오늘날 형법에서 채택하는 실체진실주의에 근접하되 피의자를 고문하기보다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관형주의에 기울어있다고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정약용의 형정관이 지닌 한계에 앞서 의의를 부각시켰다. 분명 정약용은 의리론적인 관점에서 의친·의귀의 사법적 특권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난륜과 시역에 있어서는 기왕에 밝힌 舊愆欽恤을 일관되게 적용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무원칙한 관형을 비판하고 엄정한 사실을 지향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를 제약하던 시대의 규정력에 그대로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제시한 형정의 원칙은 과연 우리에게 형사정책은 어떤 것이었으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여러 시사점을 준다. 국가권력의 횡포와 폭력적 행사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오늘날 형정은 자신들이 표방하는 실체진실주의에 충실하긴 한지 의문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진실에 앞선 정치적 필요가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폭로했던 노회찬을 국회에서 축출했고 누더기처럼 조작된 ‘RO 녹취록’은 지금도 이석기를 감옥에 가두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실체적 진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역설한 정약용의 말에 비춰보면 막상 오늘날의 현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하게’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기보다, 정약용의 형정관에 비춰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길 바라는 것도 역사학의 책무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경사요의」1에 한정했다. 비록 그 원리를 꼼꼼하게 분석하려던 나름의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정약용 형정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흙흙신서』의 기타 내용에 대한 파악과 분석은 물론이고 『經世遺表』 「추관 형조」나 『牧民心書』의 「斷獄」·「愼刑」·「恤囚」조 등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형정관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관에 대한 독자적인 입론이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인간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형정의 대상이 피의자를 비롯한 전체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설정하러 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欽欽新書』 『說文解字』

박병호, 1990, 『다산학의 탐구』, 민음사.

조운선, 2002, 『조선후기 소송 연구』, 국학자료원.

이재상, 2005, 『형법총론』 (제5판 보정판), 박영사.

_____, 2007,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장진번 주편, 한기종 외 4인 譯, 『중국법제사』, 소나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실 편, 2008, 『한국유학사상대계Ⅷ: 법사상편』, 한국국학진흥원.

홍성찬, 2009, 『법학원론』, 박영사.

이정훈, 2011, 『조선시대 법과 법사상』, 선인.

김 호, 2013,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문.

최윤오, 2013, 『재판으로 만나본 조선의 백성—충청도 진천 <사송록>』, 해안.

심희기, 1983, 「조선후기 형사판례 연구—참작감률에 관하여」, 『법사학연구』 7.

심희기, 1985, 「흠흠신서의 법학사적 해부」, 『사회과학연구』 5-2.

권연웅, 1996, 「『흠흠신서』 연구 1: <경사요의>의 분석」, 『경북사학』 19.

조운선, 1997, 「정약용의 사회개혁 방법론」, 『사충』 46.

_____, 2009,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과정의 실태와 흠휼책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조성을, 2002, 「정약용의 형정론」, 『학림』 23.

정금식, 2003, 「다산의 경세학 참작감률을 통해 본 다산의 법인식」, 『다산학』 4.

_____, 2013, 「‘조선’ 법학사 구상을 위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54-3.

이기봉, 2009, 「다산 정약용의 형률론과 형정론」,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종일, 2012, 「정다산과 흠흠신서」, 『다산학』 20.

김 호, 2012a, 「의살의 조건과 한계」, 『역사와 현실』 84.

_____, 2012b, 「조선 후기 강상의 강조와 다산 정약용의 정·리·법」, 『다산학』 20.

_____, 2013, 「조선후기 위법률의 적용과 다산 정약용의 대민관」, 『역사와 현실』 87.

진희권, 2012, 「정다산 법사상의 현대적 의의」, 『한국학논집』 47.

심재우, 2013, 「조선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

안나현, 2013, 「흠흠신서를 통해 본 다산의 형벌사상」, 『안암법학』 41.

홍해뜸, 2014, 「18세기 목민서의 향촌통제와 관민소통책」,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楊廷福, 1982, 『唐律研究』 (2012년 신판), 上海古籍出版社.

한국군 초창기 국방부 정훈국의 창설과 운영

김지훈 (현대사분과)

1. 서론
2. 국방부 정훈국의 창설
 - (1) 정훈국 창설의 배경
 - (2) 정훈국 창설과 갈등
3. 국방부 정훈국의 운영
 - (1) 정훈국장 임명과 교재편찬
 - (2) 정훈국의 군민 조직화
4. 결론

1. 서론

한국군은 언제나 정치활동의 제한을 명시해왔다. 1950년 2월 제정된 「군인복무령」의 제14조는 군인이 정치운동과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혔다.¹ 동법의 후신인 「군인복무규율」 역시 제6조와 제18조에서 정치행위를 금하고 있다.² 또한 한국군 정훈활동은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 및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정예장병을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정훈교육 과정은 “전역 후 건전한 안보관을 견지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³

그러나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선언적 명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병과 중 하나로써 政訓은 그 자체가 ‘政治訓練’의 준말이다. ‘정치훈련’의 어의는 일정한 정치성의 향방과 그

- 1) 제14조 군인은 정치운동에 참가하거나 근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지 못한다(국방부, 「군인복무령」, 1950년 2월 28일 시행).
- 2) 제6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정치적 행위의 제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복무규율」, 2012년 9월 1일 시행).
- 3) 제3조(기본목표) 정훈 문화활동의 기본목표는 장병들에게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견지케 하여 군사대비태세를 무형전력으로 뒷받침하며 전역 후 건전한 안보관을 견지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국방정책 및 군 활동상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안보의식을 고양하는데 있다(국방부, 「정훈 문화활동 훈령」, 2011년 4월 20일 시행).

훈련의 지속을 함축한다. 즉 정훈은 정부기관인 국방부가 ‘건전’하다고 여기는 안보관을 한 개인의 병영생활은 물론 전역 후 예비군동원을 통해 일상까지 지속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한 개인이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특정 정치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징병제국가인 한국에서 정훈의 체화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도 파급될 수 있다.

정훈이 가지는 파급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제로 천착한 역사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⁴ 또한 정훈을 다룬 기존 연구는 주체가 모두 군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정된 시야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 중 최근의 경향은 정훈 병과의 ‘정치훈련’ 기능을 ‘정신전력’이나 ‘건전한 안보관’이라는 이름으로 형해화 시켜 이해한다. 이는 한국의 민주화와 공산권의 실질적인 붕괴로 인해 ‘정치’와 ‘훈련’이라는 표현의 수위가 저감되었을 뿐, 분단이라는 명목으로 한국군의 정치훈련이 군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 지속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창군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한국군의 정훈을 주제로 한다. 이에 따라 정훈을 담당한 정훈국의 설치와 인물 및 편찬교재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한국군이 정치훈련을 통해 군대에 특정 정치지향을 체화시키고자 하였음을 살펴본다.

2. 국방부 정훈의 창설

(1) 정훈국 창설의 배경

해방 직후 미군정은 남한 지역에서 사설 군사단체들이 난립하는 현상,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정의 주도로 보안대가 조직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수립을 대비하여 군대 창설을 검토했다. 여러 논의 결과 각 도에 1개 연대씩 총 8개 연대로 하여, 도합 병력 25,000명의 규모로써 경 찰예비대를 두는 것으로 하는 ‘뱀부계획(Bamboo Plan)’이 입안되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1946년 1월 15일 국방경비대가 탄생했다. 그러나 당시는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등 다양한 출신의 군사경험자들의 결집과 충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군정은 불편부당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고 국방경비대원을 모집하고 있었다.⁵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의 공포로 한국군이 창군되었지만, 사실상 국방경비대가 그대로 한국군에 편입된 것이었다. 자연스레 창군을 담당했던 이들도 미군정에 기반 하는 국방경비대 출신들이었다. 일본육사 지원병 학도병 만주군 광복군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이들은 군 경험과 민족감정 및 정치색과 군내

4) 국방부 정훈국, 『政訓大系』 I II, 1956; 정훈오십년사편찬위원회, 『政訓五十年史』, 1991; 장영주, 「한국군 정훈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박현수, 「한국군 정훈병과 임무에 대한 고찰」, 『군사논단』 67, 2011.

5)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42~49쪽.

주도권 다툼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열하였다.⁶

해방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에 의한 국방경비대의 지휘와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일본군 만주군의 방식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국방경비대 내부로부터 민족감정과 출신 등을 이유로 다층적인 분열상을 자아냈다. 1946년 5월 제1연대에서는 일본군대식의 통솔, 하사관의 처우개선, 보급품을 둘러싼 부정부패 등을 문제로 시위가 일어났다. 같은 해 10월 군산의 국방경비대원들은 미국 고문관의 영향력 배제, 진급제도의 시정, 명찰의 한글전용 등을 내세우며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1947년 4월 제8연대에서는 일본군 출신 대대장의 가혹한 통제에 반하여 하사관들과 사병이 폭력시위를 벌였다.⁷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상의 문제였다. 1946년 가을 미군방첩대(CIC)는 경비대에 침투한 좌익을 지적하였다. 경상남북도에서는 국군준비대원들이 국방경비대로 합류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방경비대는 그 해 일어난 가을항쟁의 진압에서 무력함을 드러냈다.⁸ 군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장악이 미완된 상태에서 제주도로의 군대 파견은 내부반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1947년 제주에 주둔한 제11연대에서는 무기고와 경찰서를 습격한 대원들이 이후 입산하여 게릴라에 합류했다. 또한 제9연대 연대장 박진경이 남로당계 사병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바로 ‘여순사건’⁹ 일 것이다. 국방경비대에서 노정한 일련의 ‘내란’사건들은 군 내부에서의 권위적 위계적 통제가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게는 한국군 내부의 적극적인 사상 장악을 통한 통제력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¹⁰

이러한 군 내부 정치 사상의 골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정훈이 주목받게 되었다. 정훈은 본디 중국 국민혁명군의 黨代表제도와 그 방법으로써 黨工 및 政工에서 기인한다. 국방부와 육군의 정훈활동을 엮은 『政訓五十年史』에 따르면 정치훈련은 원래 공산군이나 나치스, 파쇼, 국민당 등의 “일당 독재 국가에서 당의 노선이 군대 내에 철저히 침투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군에서는 “당시 북괴 공산당과 대치된 상황과 함께, 좌우의 대결의 혼탁한 정치 사회적 환경하에서 중국 공산당과 대결하고 있는 중국의 국민당 군대내의 ‘정치훈련’과 유사한 조직과 활동이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해야 되겠다”는 배경에서 정치훈련을 실시하였음을 밝혔다.¹¹

소련의 정치장교(Комиссар), 나치의 게슈타포(Gestapo), 중화민국의 당대표(黨代

6)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47~51쪽; 허장, 「초기 군사제도와 군부의 구조 형성」, 『한국현대사 1945~1950』, 1985, 382~391쪽.

7) 노영기, 앞의 글, 79~85쪽.

8) 브루스 커밍스 저,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상, 청사, 1986, 298쪽.

9) 이 사건을 일컫는 명칭은 ‘여순반란’, ‘여순병란’, ‘여순봉기’, ‘여순항쟁’ 등 다양하며, 각기 다른 함의를 지녀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봉기’와 ‘진압’의 일련성에 주목하고 이후의 반공체제 형성과 관련지어 연구한 김득중의 명칭사용을 따른다. 더욱 자세한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49~54쪽.

10) 허장, 「초기 군사제도와 군부의 구조 형성」, 408~410쪽.

11) 정훈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1~22쪽.

表) 등은 공통적으로 군 내부에 대한 당 혹은 정권의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군벌을 통합하고 국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쑨원(孫文)은 1923년부터 소련의 정치 군사노선을 수용해왔다. 이때 중국의 대표단이 파견되어 소련의 정치, 군사 및 黨務 등을 시찰하였는데, 이 대표단을 인솔한 인물이 장제스(蔣介石)이었다. 그가 귀국 후 세운 학교가 한국의 독립운동과도 연관이 깊은 황포군관학교(이후 중앙군관학교)였다.¹² 이범석을 위시하여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한 광복군 출신자들이 한국군 정훈 창설에 관여했다.¹³

중국의 당대표제도 운영은 군 내부의 당원을 목표로 하는 黨工과 군 전체를 상대로 하는 政工의 두 영역으로 분별되었다. 구체적으로 당공은 군내에 당조직을 부식시키고, 당의 지시를 관철시키는 것이었으며, 일정한 정치지향을 지닌 것이었다. 한편 정공은 군내 인사는 물론 모든 인적요인을 관장하는 것으로서, 그 실제적 목적은 당공을 군에 체현시키는데 있었다. 즉 정공은 곧 군대를 정부나 당의 일부로 삼아 제어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느슨하게 운영되던 군벌 군대를 통합, 국민혁명군이 창군되었다. 장제스는 이러한 군권의 집중을 통해 북벌을 달성할 수 있었다.¹⁴

이러한 당대표제는 중국국민당 일당독재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핵심으로써 근대 일당지배 제도의 전형적인 표현이며, 근대적 헌정체제의 특징 및 발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소련식 ‘當國體制’를 받아들인 것은 반혁명을 위해서 혁명적이어야 한다는 모순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태로운 발상이었다. 그리고 북벌 혹은 여순사건 나아가 한국전쟁까지를 ‘내전’이라 인식해 보면, 한국군 역시 중국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2) 정훈국 창설과 갈등

이승만 정권 초기 한국군 군 수뇌부의 파벌문제는 광복군계와 일본군계의 조정과 견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미 군대 내부는 국방경비대시절부터 실질적으로 일본군계가 득세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승만은 군대를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에 이범석을 임명했다. 광복군 출신인 이범석은 미군정시기부터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써 조선민족청년단을 조직해왔었다.¹⁷ 특히 일부 소장파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보이는 이념의 불확실성과는

12) 배경한, 『장개석연구』, 일조각, 1995, 25~30쪽.

13) 한상도, 『韓國獨立運動과中國軍官學校』, 1994, 159~180쪽.

14) Cheng Hsiao-shin, 『Party-Military Relations in the PRC and Taiwan』, pp. 37-45; 배경한, 앞의 책, 103~104쪽.

15) 강패 저, 장문호 역, 「國共兩黨 ‘黨國’體制 比較研究: 1924~1949」, 『중국현대사연구』 33, 2007, 151~155쪽.

16) 후지이 다케시, 「당국체제의 연쇄 동아시아 내전과 냉전 -」, 『동북아역사논총』 43, 2014, 106~107쪽.

17) 1948년 8월 당시 족청은 120만에 육박하는 단원을 갖는 정치적으로 가장 유력한 청년단체였으며, 5 10선거를 통해 국회 내에 ‘족청계’로서 17명이상이 포진하고 있었다(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 세계주의 사이에서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184~187쪽).

달리, 광복군출신은 중국에서의 활동부터 반공노선을 뚜렷하게 견지하고 있었다.¹⁸ 또한 광복군출신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중국 국민혁명군과 군관학교 등을 경유하여 정훈의 공작을 주특기로 배웠었다. 여순사건을 위시한 군의 ‘내란’위기는 정치훈련을 통한 진정한 ‘국군’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복군출신의 대표로서 이범석이 가진 역량은 이승만이 필요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이범석이 가진 정치적 지향성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¹⁹ 이범석은 정부수립 이전부터 국방부장관 내정자로서 “반공사상의 정신무장”을 위해 국방부 안에 ‘政治局’을 설치할 것을 구상했다.²⁰ 이범석의 생각은 주한미군임시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W. L. Roberts)로부터 “히틀러 독일의 군대나 공산국가의 군대가 독재자에 직속한 정치장교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폐단”을 보이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하여 로버츠는 군의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아닌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할 바임을 지적했다.²¹

1948년 7월 17일 시행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방부를 둘 것이 결정되었다. 8 월 15일에는 정부의 수립과 함께 국방부가 창설되었으며, 초대 국방부장관에는 이범석이 임명되었다. 한편 국방부의 법적근거가 되며,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각각 육군과 해군에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은 1948년 11월 30일이 되어서야 시행 제정될 수 있었다. 국방부 창설 이후 4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국군조직법’이 나온 것은 이 법이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가 만든 국군조직법의 초안은 국회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했다. 국회에서 지적된 문제의 핵심은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정만을 掌理하게 되어있었으나,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정은 물론 군령을 모두 국방부장관이 수행토록 확대된 것에 있었다. 즉 국방부장관에게로 군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었다.²² 국무총리 이범석이

18) 한용원, 앞의 책, 50~51쪽.

19) 1933년 이범석은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서 교관 및 학생대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939년에는 국민당 중앙훈련단에 입소하여 중대장을 지내며, 1940년 당정훈련반을 졸업하였다. 중앙훈련단은 장제스가 당 개조과정에서 추진한 것으로써, 국민당 중하급 간부의 사상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범석은 당대표제도와 정치공작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후지이 다케시, 앞의 책, 48~58쪽).

20)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General Roberts and Lee Bum Suk”(10 August 1948), NARA, RG 338,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Box 4; “Memorandum from Roberts: Proposed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Dept. of National Defense”(26 Nov. 48), NARA,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4, Files: Brig. General W. L. Roberts (Personnel Correspondence); Brig. General W. L. Roberts (Recurring Report, 1948); “Letter from Roberts to Syngman Rhee”(17 December 1948), NARA,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8~53, Box 4, File: Brig. General W. L. Roberts (Personnel Correspondence); Brig. General W. L. Roberts (Recurring Report, 1948) 이상 후지이 다케시, 앞의 책, 201~202쪽에서 재인용.

21) 고정훈, 『秘錄 軍』 上권, 동방서원, 1967, 72-77쪽.

22) 軍令은 군대의 작전지휘를 의미한다. 軍政은 군대를 편성 유지 관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을 바탕으로 하면 군령은 ‘대통령→참모총장’, 군정은 ‘대통령→국방부장관→참모총장’으로 실시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범석은 군령과 군정 모두를 자신에게 일원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국방부장관까지 말고 나아가 군령과 군정을 모두 장악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주의체제에서 군의 독재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제기되었다.²³

그러나 여순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면이 전환됐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지 않아 군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국회 외무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장관이 군령에 관계하면 군국주의적 군사독재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범석은 이들을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사가 정치에 종속되어야 함을 밝혔다. 결국 국군조직법은 여순사건에 대한 발 빠른 진압을 위해서는 국군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압박에 통과 되었다.

이범석의 정치국 구상은 잠시 유보되었다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실천에 옮겨졌다. 1948년 11월 29일 국방부에 “군인정신의 함양, 사상선도, 선전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제2국 즉 정훈국이 설치되었고, 12월 7일 국방부직제에 의해 정식 공포되었다. 이때 정치국이라는 명칭은 직접적으로는 정치라는 용어의 언급을 피하되, 訓練에 중점을 둔 政訓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3. 국방부 정훈국의 운영

(1) 정훈국장 임명과 교재편찬

정훈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한동안 정훈국을 운영할 책임자 물색에는 난항이 있었다. 그러던 중 광복군에서 이미 정훈공작을 경험한 송면수²⁴가 물망에 올라, 그 해 12월 26일 초대 국장으로 취임하였다.²⁵ 송면수는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단(이하 족청)에서 창립선언서를 기초했으며, 이사 및 선전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사항은 족청의 핵심 기관인 중앙훈련소 부소장을 송면수가 역임한 것이다. 족청 중앙훈련소의 학습과목은 윤리, 국사, 團務, 사회심리, 정치, 경제, 법률, 선전, 토론회, 소조회, 강연 및 체육 생활 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중에서 송면수는 단무와 정치 및 선전과목을 담당했는데,

23) 「民主建軍을 爲한 提言」, 『동아일보』 1948.08.29.; 「軍制를 確立하라」, 『동아일보』 1948.10.05.; 「民主建軍의 原則」, 『동아일보』 1948.10.06.; 「"軍令"과"軍制"」, 『경향신문』 1948.10.13.; 「麗水奪回戰終了」, 『동아일보』 1948.10.29.; 「軍政軍令의 分立을 論함」, 『동아일보』 1948.10.31.; 「軍令은 大統領直隸 軍組織法分委修正案」, 『동아일보』 1948.11.07.; 「國軍組織法修正外務國防案遂完成」, 『동아일보』 1948.11.09.; 「國軍組織法論議」, 『경향신문』 1948.11.11.; 「國軍組織法案上程討議 獨裁危險防止코저」, 『동아일보』 1948.11.11.; 「政令分離論依然強調 國軍組織法案 第一讀會를完了」, 『동아일보』 1948.11.12.; 「軍政令分離의 妥當性」, 『동아일보』 1948.11.12.; 「國軍앞으로 明朗 不純將兵六百名肅清」, 『경향신문』 1948.11.13.

24) 송면수는 1910년 강원도 회양군에서 출생하여, 1937년 중국 광둥에 있는 국립중산대학(國立中山大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1938년부터 광복군 제2지대의 전신이 되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통해 전투와 함께 선전활동을 벌였다. 1940년에는 성도의 중국육군군관학교를 제18기생으로 졸업했다. 1942년 4월 이범석이 이끄는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서 정훈조장을 지냈으며,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 안에서는 중앙집행위원 선전부에서 활동했다. 1944년에는 국내정진군 중령이 되어 OSS에서 훈련을 받았다(“한인 탈출사병 모집을 위한 요원 파견과 관련한 전문”(1945.07.2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3권).

25) 『政訓大系』 I, A26쪽; 陸軍本部軍史監室, 『陸軍歷史日誌: 1945~1950』, 1954, 248쪽.

그가 맡은 교수시간이 훈련소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²⁶ 족청 중앙훈련소의 방식은 송면수가 경험한 중국 중앙군관학교의 ‘七分政治, 三分軍事’라는 교육 모토와 유사성을 보인다.²⁷

1949년 정훈국 초대 국장 송면수는 정훈교육의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최초의 정훈 교재인 『政工典範(草案)』을 착안하였다. 교재의 기초는 박영준(朴英俊)²⁸ 중령과 허우성(許宇成)²⁹이 맡았다. 이 둘은 모두 중국에서 태어난 한인으로서, 광복군과 언론인이라는 이들의 이력은 중국 국민당의 문헌들을 독해하고 기초하는데 배경이 되었다. 송면수 역시 중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국민혁명군 및 광복군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기에 작업의 감수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은 한국군을 위해 『政工典範(草案)』을 고안하며, 중국 국민혁명군의 정공을 참고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원전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한국군의 국방부 정훈국이 참고한 중국의 서적은 1942년 국민당 군사위원회 정치부에서 펴낸 『政工典範草案』일 것이다.³⁰ 중국 국민당의 『政工典範草案』는 2편 10장 2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군 국방부 정훈국의 『政工典範(草案)』은 2편8장19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정훈국이 『政工典範(草案)』 편찬 당시,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의 체계를 속아내어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군 『政公典範(草案)』의 제목에 ‘(草案)’이 붙는 것은 단순히 교재의 내용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의 대상이 되는 중국 정공 교재의 이름 자체가 『政工典範草案』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불비한 초창기 한국군의 상황에서 정훈의 규범으로 발간된 『政工典範(草案)』은 정훈장교들에게 “성서”와 같은 존재였다.³¹

(2) 정훈국의 군민 조직화

『政工典範(草案)』은 서문 격인 ‘편제요령’에서 한국군 정훈제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26) 후지이 다케시, 앞의 책, 133~142쪽.

27) 중앙군관학교의 교육과목으로는 당 사상, 당 기본정책, 당 역사, 당 조직, 비교정치경제사, 비교혁명사, 국민당 총재 훈시, 정세 토론, 선전 및 대중동원 조직에 관한 기술 등이 있었다(Cheng Hsiao-shin, 앞의 책, pp. 18-20).

28) 박영준은 1915년 중국 간도에서 출생하였다. 1939년에는 중국 광서성 유주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서 정훈공작을 벌였다. 여기서 송면수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4에는 광복군 제3지대 1구대장을 맡았다. 해방 후 1948년 12월에는 특임 2기로 한국군에 소위로 임관하여, 이듬해 1월 광복군의 활동을 인정받아 소령으로 진급하고 국방부 정훈국 내에서 지도과(指導果) 과장이 되었다. 이후 여수와 순천에서 ‘정훈공작대’를 담당하였고, 정훈국 차장으로 활동하다가 1951년 1월부터 1954년 7월까지 육군본부 정훈감을 지내며 준장으로 진급하여, 1961년 소장으로 예편했다(편집실, 「군 원로 탐방 선배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 박영준 장군」, 『육군』 232호, 육군본부, 1997).

29) 허우성은 1908년 중국 봉천에서 태어나 만주지역 한인 사이에서 언론인으로 지내다가 1948년 12월 중국 공산당을 피해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 이후 허우성은 국방부에서 촉탁으로 근무하였으며, 194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아일보』에 중국 공산당 치하의 실상을 고발하는 30회의 사설을 연재한 반공 언론인이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서울신문』과 『대한일보』 등에서 언론활동을 이어나갔으며, 1967년에는 한국반공연맹 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30) 中華學術院, 『中華百科全書』, 中國文化大學 出版部, 民國70(1981)

31) 『政訓大系』 I, A26~27쪽.

설명하고 있다.

一, 소련赤軍, 중국국부군 및 중공군대의 「정치부」 편제는 「黨軍」 즉 일당독재하의 군대인 관계상 정치부는 당세포조직의 핵심작용에 의하여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나 我國은 일당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북한의 당군과 대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사정에 입각하고 있음.

二, 즉, 사상적, 정치적, 조직적으로 확고엄밀한 정치공작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군은 정당 및 정치와는 중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사정과, 다만 정공기구만으로서의 그것의 관료화의 가능성이 不無함에 비추어 上記各國군대에 있어서의 정훈공작의 근간 또는 기초로서의 당세포조직의 핵심작용과 같은 것은 此를 기대하기 곤란함.

三, 이와같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分隊내 「정공요원」 제도를 案出하고 이것으로서 「小組」를 조직하여 그 핵심작용을 기함.

四, 그러나 「정공요원」 및 그 「소조」는 그 직위와 임무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정당 당원과 같은 永久性的 隸屬 및 독립적조직의 성질은 가지지 않은 것이므로 그 파벌화 政黨化 우려는 없다고 認함.

五, 倉卒間에 만든 것이므로 不備한 점과 특히 군사용어의 불통일은 今後의 보충, 수정을 요함.

附記：本전범은 중국 국민혁명군 부터 소련 赤軍 실시하고 있는 정공제도를 참조하였음

- 國防部政訓局 -

『正政典範(草案)』의 ‘편제요령’은 소련, 중국 국민당 공산당의 당세포조직을 부정하면서도, 북한과의 대립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들었다. 그리하여 정훈국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한국군이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정공요원’과 ‘소조’를 들고 있다. 정훈국이 기획한 그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은 『正政典範(草案)』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正政典範(草案)』에 따르면 제1조 ‘정공목적’은 한국군의 정훈공작이 국군으로 하여금 건국이념을 체득하고 혁명정신을 통해 전쟁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밝혔다. 제5조 ‘정공내용’에서는 정훈공작이 조직훈련의 선전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삼고, 건국이념을 기본이념으로 삼아 정부정책을 지도방침으로 삼게 되어 있었다.³² 그 구체적 방법은 정훈국은 중대 단위에 ‘정공지도원’을, 대대 단위에 ‘정공참모’를, 연대 단위에 ‘정공실’을, 여단 단위에 ‘정공처’를 편제토록 되어있었다. 각급 정공담당자는 상위 부대에서만 임명할 수 있었다.

32) 『正政典範(草案)』, 1~3쪽.

이러한 단위들은 조직적으로 편성되어 국방부 정훈국에 통하게 된다. 정훈국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 반공분자의 활동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政治的領導力”을 목표로 함을 통칙에서 밝히고 있다.³³

정공 단위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중대 ‘정공지도원’이다. 실제로 『正政典範(草案)』내에 서술된 각 정공 단위 중에 중대 정공지도원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기도 하다. 『正政典範(草案)』에 따르면 중대 정공지도원들은 군내 정신교육의 집행자로서 부대 내부에서는 事的으로는 보좌를 정치적으로는 영도의 지위에 있었다. 이들은 사병의 정치공작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분대내의 가장 우수한 사병을 정공요원으로 선정 임명하고 이로써 ‘政工小組’를 조직하게 된다. 소조는 매 개월마다 한 차례 이상 중대 정공지도원 아래 소조회의를 가진다. 소조회의의 절차까지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회에서는 국기 게양, 애국가 제창, 선열 묵사 등의 의식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조장의 이행사항 보고와 정공지도원의 상부지시사항을 하달이 있다. 이후 명령이행 군사 생활개선 등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진 뒤 폐회하게 되었다.³⁴

본디 ‘세포(ячейка)’와 ‘소조(Коллектив)’의 유래는 소련으로 부터였으며, 국방부 정훈국의 지방 각 사회단체 공공단체들과 군대 내부 각급 단위의 조직화 방략은 소련의 세포조직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1925년 채택된 소련의 당규에 의하면 당 세포는 사무실이나 공장, 농장 및 군대 단위 등 근무지에 조직되었으며, 당 세포의 조직을 위해서는 최소 세 명의 당원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당 세포의 조직은 상급 당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으며, 당 세포는 당 조직 구성상 가장 하부에 위치하여 상급 당의 감독을 받았다. 세포 이상의 단위는 소조로 결합되었으며, 소조는 당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포를 지도하도록 되었다.³⁵

국민당 역시 국공합작과정에서 쑨원에 의해 레닌의 전략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국민혁명군에서는 黨代表制를 통해, 黨工이란 이름하에 군 내부에 대한 조직화와 정강하달 그리고 감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黨工은 군내에 당 조직을 부식시키고, 당의 지시를 관철시키는 정치적 지향을 지닌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黨工을 군내 사병에게 체현시켜 궁극적으로 군을 장악하는 작업이 바로 政工이었다.³⁶ ‘편제요령’에서 밝힌 국방부 정훈국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正政典範(草案)』을 통한 정공기구의 편성은 실상 국민당이나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正政典範(草案)』의 군대 내 정훈조직의 부식은 한국전쟁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1950년 10월 13일 정훈국장의 명으로 각 군단정훈부장에게 ‘準例規’를 하달하였다. 명령의 요체는 한국군이 전투에서 투항하는 사례가 빈번한 관계로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년 11월 27일에는 육군본부에서 직접 「육본훈령 제106호」를 발령하여, 정훈기구의 조직에

33) 『正政典範(草案)』, 6~7쪽.

34) 『正政典範(草案)』, 8~11쪽.

35) 강윤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의 소련 공산당 세포조직의 발달 레닌그라드 공장 당 세포조직을 중심으로 -」, 『슬라브학보』 17, 2002, 241~242쪽.

36) Cheng Hsiao-shin, op. cit, pp. 37-45.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훈령의 내용에 따르면 각 분대 하에는 3개조를 두고 각 조에 3명씩 배치되었다. 각 조에는 조장을 두었는데, 조장은 조원을 지도 감독하였다. 분대장은 부분대장의 보좌를 받아 각 관할 조장을 지도 감독하게 되었다. 정훈요원들은 자기 관할 하의 장병들에게 매일 정훈교육을 준비시켜 각 조장들이 휴식 및 전투 중에도 정훈교육을 하게 하였다. 또한 각급 정훈요원은 상호감에 협조와 감찰을 수행해야 했다.³⁷⁾

한편 이러한 하향식 조직화는 군 내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도 수행되었다. 1951년 3월 국방부 정훈국 부산분실에서 제작된 『國防部 政訓局 慶尙南道 戰時 政訓網 組織企劃書』(이하 기획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기획서는 군사극비로 처리되어 있으며, ‘경상도전시정훈망’을 조직하여 경상도 지역의 “전시 계몽 및 국민총력”을 위한 “국민전시조직”을 목표로 함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기획서에 따르면 ‘정훈지도위원회’는 도 이하 각급 지자체에 조직되었다. 도 단위에서는 ‘도정훈지도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단위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도지사로서하고 부위원장 1명은 경찰국장 1명은 애국단체대표자로서 구성토록 하였다. 이들은 국방부 정훈국 부산분실의 자문에 응하며, 산하 기관과 단체 지부장에게 협조를 추진했다. 그리고 도 단위 이하 시 군 단위 및 읍 면단위에도 애국단체 각급 지역공무원 각급 경찰 국민학교장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하향 조직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정훈지도위원회’와 한 쌍으로 군 주도의 ‘정훈지도대’가 구축되었다. 양자는 각 지자체 단위에서 병렬적으로 조직되어 상호 협조하게 되어 있었다. ‘도정훈지도대’는 정훈국에서 직접 임명하였고, ‘도정훈지도대’에서 훈련받은 요원들 중 일부가 선발되어 정훈국 부산분실에 의해 ‘시 군정훈지도대’로 임명되었다. 이하 단위의 ‘정훈지도대’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향 조직되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관내 13읍 226면을 조직하게 되었는데, 도합 239읍 면 단위를 2개의 지구로 나누어 478지구로 나누었으며, 239읍 안에 평균 15개리가 있어 리 단위는 4584개리, 각 리에는 평균 3개 부락이 존재하여 총 13755부락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다 더한 합계 18818명을 조직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훈국이 경상남도에 정훈망의 조직을 통해 주민과 군대를 결합하려 하였던 이유는 경부선 및 남해선 철도의 수비와 지리산의 빨치산을 대상으로 한 소탕작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³⁸⁾

4. 결론

본 글에서는 한국군 정훈병과의 연원을 검토해보았다. 정훈이라는 병과 자체가 ‘정치훈련’의 준말로써, 특정 정치성의 지향과 그 훈련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말이다. 정훈국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훈국이 창설되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 수립 당시 한국군은 출신과 사상 등이 통일되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었다. 특히 여순사건을 계기로 군내 좌익에 대한 경계와 함께 숙청이 진행되었다. 정훈국의 창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정훈국의 창설은 국방부장관 이범석을 위시한 광복군계 족청계가 주도하였다. 이들은 광복군활동과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국민당과 관련을 지니고 있다. 당시 국민당은 군벌의 통합과 좌우합작 및 장제스의 청당 과정에서 소련으로부터 정치장교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광복군 출신들이 독립운동 중에 주로 체득한 내용이 바로 당대표제도(=정치장교제도)로써 정훈의 토대였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중국과 한국의 군 당국자에게 반혁명을 위한 혁명적 노선의 채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훈국의 창설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방부장관에 내정된 이범석은 일찍이 ‘정치국’의 창설을 목표로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미군 측에 의해 ‘정치장교’의 의혹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국회에서는 정부수립 후 4개월이 되도록 ‘국군조직법’이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는 국방부장관이 軍政과 軍令을 모두 장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군 임시고문단과 국회에서는 이범석의 착안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훈련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군조직법의 통과되며 정훈국이 창설되었다.

초대 정훈국장은 광복군 출신인 송면수가 맡았다. 송면수 역시 중국의 군관학교를 통해 정치공작을 접한 인물이었다. 그는 초대국장으로서는 최초의 정훈 교재인 『政工典範(草案)』을 착안하였다. 한국군 정훈교재로써 『政工典範(草案)』이 편찬되면서,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 정치부에서 펴낸 『政工典範草案』이 참고 되었을 것이다.

『正政典範(草案)』의 ‘편제요령’은 소련, 중국 국민당 공산당의 세포조직을 부정하면서도, 북한과의 대립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들었다. 한국군의 대안적 방법은 ‘정공요원’과 ‘소조’를 군 내부에 부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군 내부 사상의 문제와 탈영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국방부 정훈국이 장병간의 상호감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훈은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되어 국방부 정훈국 부산분실을 중심으로 경상도내에 ‘전시정훈망’을 조직하게 되었다. ‘전시정훈망’은 각급 지자체 단위와 군대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군-민의 결합을 도모한 것이었다. 이는 전선 후방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상으로 한국군 초창기 정훈국의 창설과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정훈국은 반공이라는 표면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운영은 국민당의 정치공작제도와 유사한 방법이었으며, 본질적으로는 소련의 방법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한편 정훈의 동학이 ‘정치’와 ‘훈련’이 결합되어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본 글의 한계는 후자에 국한하여 서술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겠다.

37) 『政訓大系』 I, A36~37쪽.

38) 國防部 政訓局 釜山分室, 『國防部 政訓局 慶尙南道 戰時 政訓網 組織企劃書』, 1951.

〈참고문헌〉

-자료 -

『政訓大系』 I, 『政工典範(草案)』, 『政訓五十年史』, 『陸軍』, 『陸軍歷史日誌: 1945~1950』, 『國防部史』, 『독립유공자 공훈록』,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中華百科全書』

-단행본 -

고정훈, 『비록 군』 상권, 동방서원, 1967.

金弘壹, 『國防概論』, 發行處不明, 1949.

배경한, 『장개석연구』, 일조각, 1995,

브루스 커밍스 저, 김주환 역, 『한국전쟁의 기원』 상, 청사, 1986.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8년사』, 역사비평사.

中華學術院, 『中華百科全書』, 中國文化大學 出版部, 1981.

Cheng Hsiao-shin, 『Party-Military Relations in the PRC and Taiwan』, Westview Pr : Colorado, 1990.

-논문 -

강윤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의 소련 공산당 세포조직의 발달 레닌그라드 공장 당 세포조직을 중심으로 -」, 『슬라 브학보』 17, 2002.

강패 저, 장문호 역, 「國共兩黨 ‘黨國’體制 比較研究: 1924~1949」, 『중국현대사연구』 33, 2007.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박현수, 「한국군 정훈병과 임무에 대한 고찰」, 『군사논단』 67, 한국군사학회, 2011.

장영주, 「한국군 정훈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최재희, 「징병제의 역사: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충돌」, 『역사비평』 69, 2004

편집실, 「군 원로 탐방 선배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 박영준 장군」, 『육군』 232호, 육군본부, 1997.

한성훈, 「조선인민군의 당-국가 인식과 인민형성: 동원, 징병, 규율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9, 2011.

허장, 「초기 군사제도와 군부의 구조 형성」, 『한국현대사 1945~1950』,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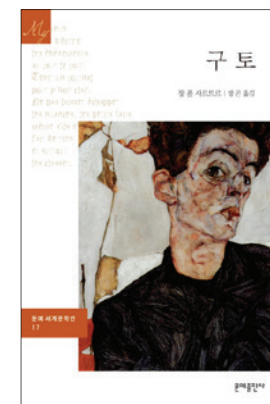
후지이 다케시, 「당국체제의 연쇄 동아시아 내전과 냉전 -」, 『동북아역사논총』 43, 2014.

학우회보 서평

자아에 대한 인식과 사회와의 소통을 고민하기

장 폴 사르트르, 『구토』 (1983)

곽경상 (현대사분과)



장 폴 사르트르의 『구토』에 나오는 주인공 로캥탱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나는 정말 홀로 살고 있다. 누구에게도 결코 말을 걸지 않고 아무 것도 받지 않으며,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로캥탱은 타인은 물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의 삶은 타자의 부재로 인해 겪게 되는 수동적 고독의 상태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와 외적 상황에 뒤섞이지 않는 순수의식을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의도된 고독을 특질로 한다. 로캥탱의 삶은 특정한 화두를 부여잡고 득도를 희구하는 선승이나 자기희생적 선행과 참회를 통해 신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수도사의 생활 방식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소설 『구토』의 주인공은 존재를 필연이 아닌, 단지 ‘거기에 있는’ 우연적 사물로 간주한다. 우연적 특성을 소유하는 존재, 즉 현재 속에 내던져진 존재는 실존이라는 명칭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실존의 특질인 우연성은 가상이나 삭제 가능한 외관이 아니다. 그것은 무근거성과 절대적 속성을 특질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캥탱은 의도된 고독의 영역에서 근거는 없지만 절대적인 속성을 지닌 채 자신 앞에 현존하는 우연성과 대면한다. 그 결과 그는 순수의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많은 타인들과 사물들로 가득 찬, 충만한 세계와 마주한 결과 실존의 본질이 우연성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철저한 합리주의자 로캥탱은 존재의 무근성에도 불구하고 존재들의 배열과 변환과정을 논리적 절차를 통해 파악하려 한다. 그는 실존적 주체인 자신과 세계 내에 존재하는 사물들 모두가 우연적 존재성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감히 그는 자아의 동심원 속에 모든 사물들을 강제로 편입시켜 버렸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인간과 사물은 각기 독자적인 우연성을 견지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뿐인데, 지각행위를 통해 사물을 조작하려 하다 보니 속이 매스꺼워지고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로캥탱이 자기 손에 쥐어진 조약돌을 보고 구토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본질의 텅없음과 실존의 우연성에 대한 자각은 자연히 무(無)에 대한 인식을 동반한다. 무는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존재할 뿐인 어느 사물들과 구별되고 실존의 자유의지에 불을 지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그러나 로캥탱에게 무는 실존의 잠재태로 존재하지만 자유로운 실존을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나 자신이 규정당하는 상황을 부단히 거부했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무는 실존적 주체의 자유로운 삶을 가로 막는 훼방꾼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존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구실로 무를 사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타자와 세계를 자체의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내 의지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결국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존재의 우연성과 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었지만 사유하는 주체와 인식 대상 간에 설정되는 이분법적 인식론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이 무언가를 보는 현상은 사실행위이고 그것을 서술하는 것은 반성행위라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기안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작업에 한창 몰두해 있을 그 사람은 문서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뿐 현재 수행하고 있는 문서 작성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집중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만약 그가 날마다 반복되는 문서작성 행위에 싫증을 느끼고 자신의 직업에 심각한 회의감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업무 수행 이후에 벌어질 차후의 사건이 될 것이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파분한 작업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지배할 때는 자신이 현재 처한 입장과 자신이 본래적으로 바라는 바를 비교하는 의식작용이 진행되는 시점이다. 바야흐로 심도 높은 수준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의식행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일상에서 이러한 개인의 자아와 본질을 말하는 것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일 뿐, 현실을 살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반론에 직면하기 쉽다. ‘힐링’에 열광하며, 일시적인 이탈을 통한 잠깐 동안의 여유와 정서적 안정에 만족하는 요즘의 세태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사고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 태도’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고민의 깊이를 넓힐 경우, 자신과 자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부재한 상황은 결국 끊임없는 불안과 천편일률적인 삶의 패턴에 내몰리는 개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무한경쟁’과 ‘견고한 체계’ 속에서 자아에 대한 확인과 자존적 위치는 확보되기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별자 스스로가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한 사회와의 소통을 고민함으로써 차이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의미지울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교’와 ‘따라하기’가 득세하는 오늘의 일상에서 이 책은 ‘나’와 ‘관계’ 그리고 ‘세계와의 소통’을 어떻게 배열하고, 연계해 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해 주는 의미 있는 저작이다.

학우회보 서평

직접 쓰지 않는 한 내 입맛에 맞는 강의 교재는 없다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2
고려시대』
(웅진지식하우스, 2011)

송용운 (중세1분과)



1. 학우회보에 게재할 서평을 하나 써달라는 얘기를 듣고 잠시 고민을 했다. 학기 초라 시간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이런 기회 아니면 글 잘 안 쓰게 되니 편하게 하나 써볼까. 빈 말이라도 내 글을 보고 싶다는 후배의 말에, 누군가 보고 싶어 한다는 건 글 쓰는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 쓰겠노라고 대답을 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하루 종일 후회를 했다. 지금 새 책을 읽어서 서평을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면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 서평을 써야 하나. 최근의 읽은 책은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과 『고려 후기 정책과 정치』라는 두 권이 있었다. 전자로 서평을 썼다간 학우회보에 게재가 안 될 듯하고, 후자로 서평을 쓰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글이란 건 그래도 누군가 읽어줘야 생명을 갖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강의 교재로 많이 사용하는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교양강의를 하고 있는 많은 학우들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학우들도 많이 참고하게 될 책이라 생각해서 이 시리즈 가운데서 내 전공시기인 고려시대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2.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새 나라 고려, 기틀을 다지다 900~1022
2. 귀족의 시대 1023~1169
3. 무신의 시대 1103~1237
4. 전쟁의 시대 1231~1273
5. 원 제국과 고려 1260~1355
6. 왕조의 갈림길 1356~1392

각 장은 몇 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고, 절에는 다시 몇 개의 소제목이 달린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이나 절의 제목은 기존의 개설서보다 좀 더 부드러운 문장과 단어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렇지만 본문의 문장이 그렇게 부드럽고 접근하기 쉬운 문장은 아니다.

다시 장의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각 장의 시간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은 1169년까지인데, 3장은 1103년부터 시작된다. 3장과 4장, 4장과 5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리즈 전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방식을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각 장의 제목이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장 귀족의 시대’ 같은 경우 1023년에서 1169년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고려 전시기에 걸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다. 차라리 장 제목 뒤에 붙은 연도를 빼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각 절에는 다시 특강들이 있다. 이 시리즈에서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이 특강 코너에서는 최근의 연구 동향이라든가, 기존 개설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 2권의 특강 제목들을 보면, ‘현종의 피란길을 따라 지방으로! : 고려의 지방 사회와 교통로’, ‘도자기를 따라 세계와 만나다 : 도자기 길’, ‘거란의 길잡이가 되다 : 고려의 집시 양수척’, ‘여행길인가, 고생길인가? : 이색과 이제현의 중국 여행’ 등이다. 그 내용들은 전공자들이라면 그래도 알 만한 내용들이지만, 비전공자나 일반인들에게는 꽤 새로운 내용들이라 생각한다. 아마 저자들이 본문 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아닐까 싶다.

본문의 내용은 기존의 개설서에서 다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내가 강의 교재로 사용했던 책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시리즈와 『생활사 박물관』, 그리고 고려시대의 경우 박종기 선생의 『5백년 고려사』를 교재로 활용했었다. 체제와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특강 부분을 제외한 본문의 내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최근에 나온 책답게 기존의 개설서 -국편의 『한국사』나 한길사의 『한국사』 등-에 비해 많이 화려해졌다. 사진 자료들이 대폭 삽입되어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고려시대는 유물, 유적의 상당부분이 북한에 있어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진 자료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3.

강의 교재로 잘 쓰고 있으면서 책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하는 것이 투덜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 나은 개정판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또 다른 개설서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보다 나은 책을 쓸 수 있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다.

여러 시대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 시리즈 전체를 읽어볼 수 있었다. 4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수의 저자가 집필을 했다. 물론 저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거쳤겠지만, 역사가의 시각이란 게 논의를 한다고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특강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든가, 앞 장의 뉘앙스와 뒤 장의 뉘앙스가 다르다든가 하는 일이 빈번하다. 복수의 저자가 집필하는 이상 이는 불가피한 문제로 보인다.¹⁾

예를 들어 2권의 경우 서문에서는 고대, 중세, 근대 등의 시대구분이 서구의 역사학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세시대인가를 분간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16쪽) 그런데 본문에서는 후삼국시대를 한국 고대사회의 해체기를 마무리짓는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고,(30쪽) 고려가 중세 왕조를 지향했다(36쪽) 라고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서문을 쓴 저자와 본문의 해당 내용을 쓴 저자가 다른 인물일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둘 중 어떤 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다른 개설서의 경우처럼 각 글의 집필자를 밝히는 것이 어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이 시리즈가 자랑하고 있듯이, ‘왕의 존호에서 노비의 이름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작은 책 안에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 문장이 지나치게 압축적이다. 다음을 보자.

주현(州縣)의 세공액 제정이나 양전(量田) 사업이 시행되면서 고려왕조의 경제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자삼·단삼·비삼·녹삼의 4색 공복 제도가 마련되고, 문반·무반·잡업 등이 나누어짐에 따라 관인에 대한 전시(田柴) 지급의 기준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경종 때부터는 관품적 요소와 인품을 아울러 관료들에 대한 토지 지급 규정이라 할 전시과(田柴科)를 처음으로 정하게 되었다.(42-43쪽)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어려웠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뒷 장에 관료들의 생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아예 빼버려야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글 전체의 이해를 방해하는 느낌이다.

전시과는 기본적으로 왕토(王土) 사상을 토대로 수조권을 분급해 10분의 1조를 거둬들이 국가재정에 충당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그 토지 소유권자가 양반 및 농민 소유의 사전이나, 국가 소유지인 공전이나에 따라 소작료는 각각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무시되기도 했고, 때로는 아예 영업전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106쪽)

1) 4권의 경우 단독 저자로 책 전체의 시각이 일관되기는 하다. 하지만, 그 시각 자체에 대해서는 꽤 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권은 개항부터 강제 병합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고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을 언급할 때는 꼭 ‘고종 황제’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다. ‘황제’라는 용어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독립협회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독립협회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 고종에 대해서는 재평가해야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어 보이고,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논문이나 연구서가 아닌 개설서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설서는 역사학을 직업적으로 전공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에게는 여러 시각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 부분을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할 때, 타 전공 대학원생들이 매우 어려워했던 기억이 난다. 과연 이 부분을 이런 간략한 문장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든가, 그게 힘들다면 아예 빼버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도 아니라면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나 책을 보라고 참고문헌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문제들이 나온다.

먼저 연도와 관련해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960년에 송이 통일을 하였다고 했는데, (65쪽) 960년은 송태조 조광윤이 송을 건국한 해이다. 송의 중국 통일은 태종대인 979년 북한이 송에게 항복하면서 이루어졌다. 또, 1005년에 전연의 맹약이 있었다고 했는데, (67쪽) 맹약은 1004년에 이루어졌으며, 1005년에는 송에서 요에게 세폐를 주었다. 그 외에도 거란 멸망이나 여진 정벌 등과 관련해서도 연도가 잘 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²

처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00년 전쯤의 고려시기를 공부하다 보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 몇 년 잘못 알았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일이 연표를 뒤지며 확인할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근현대사 전공하는 학우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 몇몇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확인해보니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그런 문제가 큰 건 아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연구서보다 개설서를 더 많이 이용한다. 그렇다면 개설서일수록 이런 사실관계는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되는 표나 사료, 정보들이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거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다. 고려시기 중앙관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3성이나 2성이나 하는 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문하성과 중서성’이라고 표현해서 이 둘이 독립적인 것처럼 서술하다가 표에서는 ‘중서문하성’이라고 하나의 성처럼 표현하고 있다. (53-54쪽)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문하성과 중서성이 나중에 합쳐진 것인지, 아니면 문하성 중서성과는 별개의 중서문하성이라는 기구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훈요십조와 관련된 내용에서 3조의 경우 ‘왕위는 적장자에게 물려준다’ 라고만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장자 중심의 계승을 제시함으로써 왕실의 안정을 추구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36-37쪽) 그러나 3조의 뒤 내용까지 보자면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고려시대 전체를 봐도 적장자 세습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뒤 부분은 떼버리고 앞 부분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

이 책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책이 안 좋은 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2) 거란의 멸망과 여진 정벌과 관련해서는 장미현 학우가 연도의 오기를 지적해주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강의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보자.

먼저 이 책에는 주석은 물론이고 참고문헌도 없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이니 각주를 다는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더 공부하기 위해서 볼 만한 참고문헌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강의에서도 강의 자료로 참고문헌을 더 소개해줘야 하겠다.

둘째, 앞서 얘기했듯이 개별 글의 집필자를 밝히는 것이 어떨까 한다. 각 분류사별로 세분화·전문화 되면서 한 저자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를 서술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진 여러 저자가 참여하되 해당 글의 집필자를 밝혀서 이 저자의 생각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셋째, 연도나 인명·지명, 사료의 원문 등 세부사항은 강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교수자의 당연한 자세이기도 하다. 연도 문제를 지적해준 학우를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글의 제목, ‘직접 쓰지 않는 한 내 입맛에 맞는 강의 교재는 없다’ 라는 말은 이 책,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가 수준에 못 미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책도 강의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언젠가 내가 새로운 개설서를 직접 써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혼자서는 힘들 테니 공동 집필 해줄 미래의 저자들을 지금부터 잘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저자 직강이라고 자랑할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2014 한국 근대사 분과

하기 답사기

이정윤(근대사분과)

나는 학부생일 때부터 답사 가는 것을 좋아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그 때 나의 주된 목적은 유적을 관찰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것보다는 일정이 끝난 후 동기, 선배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 일명 밤 답사에 있었다. 밤에 신나게 놀다가 다음날에는 경사진 산길인데도 축지법을 쓰시는 것처럼 오르시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다니느라 애를 먹기도 했지만, 답사는 언제나 재미있었다. 때문에 나는 대학원 답사는 학부 답사보다 무언가 더 학구적일 것 같아 긴장을 하면서도, 김도형 선생님과 선배들과 함께 첫 1박2일 답사를 간다는 것 자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또한 숙박을 하는 장소가 병산서원이라는 정보를 들은 후에는 마음이 설렘 정도였다. 부푼 마음을 안고 다녀온 이번 답사는 나의 기대보다도 더 즐거운 시간이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이번 답사의 기억을 바탕으로 답사기를 작성하고자 한다.

6월 30일 아침 서울에서 출발한 우리는 정오 즈음에 상주에 있는 수암종택(修巖宗宅)에 도착하였다. 수암종택은 서애 류성룡의 아들인 수암 류진의 고택으로, 1617년에 초가집의 형태로 처음 지어졌으나 이후 수암 선생의 6대손 문헌공(文憲公) 류후조가 지금과 같은 기와집으로 고쳐 지었다고 한다. 수암종택에는 다른 주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녹사(祿使)가 머물던 녹사청(祿使廳)이 바로 그것이다. 녹사란 일종의 개인 비서로, 2품 이상의 대신에게만 배정되어 그의 업무를 돕는 일을 했다. 집을 개조한 류후조 선생은 좌의정의 자리까지 오른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녹사를 배정받았던 것이다. 현재 수암종택에는 누가 살고 있지는 않고 수암 선생의 후손인 어르신께서 주말에만 내려와 관리하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날은 금요일이었는데도 어르신 내외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맞이해 주셨다.

답사지를 만들 때 수암종택은 내가 조사를 맡은 장소였기에 선생님께서 내게 설명해보라고 하시진 않을지 걱정되어 차 안에서부터 내용을 달달 외우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슬며시 마음을 놓던 찰나 어르신께서 조사해온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하셨다. 나는 준비한 대로 풍수지리부터 집안의 계보, 집이 지어진 과정을 열심히 읊었는데, 말을 끝내고 나니 나눠주신 안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 조금 민망해졌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할머니께서 수박과 직접 담그신 매실차를 주셨는데, 이 매실차가 강력한 효능이 있었다. 기말보고서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서인지, 차를 오래 타서인지 나를 포함한 몇몇 학형들이 속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수암종택의 매실차를 마신 뒤 모두 마법같이 나아진 것이었다. 우리가 매실차의 효험을 찬양하자 어르신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매실차를 세 병이나 챙겨주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은 답사 일정 동안 속이 더부룩할 때마다 매실차를 훌쩍훌쩍 따라 마실 수 있었다.

수암종택을 뒤로 하고 우리가 향한 곳은 근처에 있는 도남서원(道南書院)이었다. 도남서원은 다른 서원과 달리 한 인물이 아닌 정몽주, 김굉필, 이황, 류성룡 등 아홉 명을 모시고 있어 영남의 으뜸 서원이라 불렸다고 한다. 그런 만큼 규모도 크고 보기 좋게 지어져 있었으나 어쩐지 옛스러운 느낌이 없어 의아했는데, 대원군에 의해 훼손된 후 1992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건물을 일일이 둘러보는 대신 앞뜰에 모여 영남학과와 병호시비에 대한 김도형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점심시간을 넘기고 있었으므로 도남서원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식사를 하러 갔다. 점심을 먹은 곳은 효승 선배가 알아 온 매운 갈비점집이었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나는 평소에



▲수암종택의 모습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갈빗대까지 남김없이 해치웠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우리는 의성 사촌 마을로 향했다. 사촌(沙村)이라는 지명은 중국의 사진촌(沙真村)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사진촌이 중국 어느 지방에 있는 마을이었는데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의성 하면 의성 김씨 밖에 생각나지 않았는데, 사촌마을은 안동 김씨, 풍산 류씨, 안동 권씨 등의 집성촌이라고 한다. 사촌마을은 옛날 “와해(瓦海)”라고 불렸을 만큼 기와집이 많이 있던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한말 이곳에서 의병이 많이 일어나자 일본이 그 보복으로 사촌마을의 수많은 기와집에 불을 지른 까닭이라고 한다.

일본의 방화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와집 중 하나인 만취당(晩翠堂)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된 오래된 건물로, 퇴계 이황의 제자 만취당 김사원(金士元) 선생이 자신의 호를 따서 그 이름을 붙였다. 만취당과 안동김씨 종택은 쪽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취당을 사랑채처럼 썼을 것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만취당을 수리하는 중이라 철기둥과 그물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만취당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내부로 들어가 대청마루 위에 서니 문이며 기둥들이 많이 남아 보이기는 했지만, 규모와 분위기가 매우 고풍스러웠다. 대들보 위에 웬 나무틀이 올려져 있어 무엇인가 했는데, 서애 류성룡의 어머니인 안동 김씨 부인이 타고 온 가마 틀이라고 한다. 왜 가마 틀을 대들보 위에 올려두었는지 궁금했지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만취당을 나와서 간 곳은 사촌마을 서쪽의 숲이었는데, 이 숲은 사촌마을의 입향조인 김자첨(金子瞻)이 ‘서쪽이 허하면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숲을 조성한 효과가 있어서인지 서애 류성룡이 사촌마을 숲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예부터 사촌마을은 세 명의 정승이 나올 곳으로 불린 명당 자리였는데, 첫 번째 정승은 신라시대에 나왔으므로 두 명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에 류성룡의 어머니 안동 김씨는 친정인 사촌마을에서 출산을 하려고 왔는데, 집안 어른들이 출가한 여인이 좋은 기운을 가져가는 것을 염려하여 다시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김씨부인은

시택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결국 사촌마을 숲에서 몸을 풀었고 류성룡이 태어났다고 한다. 류성룡이 영의정 자리에 오르면서 사촌마을은 두 명의 정승을 배출하였는데, 오늘날 이곳 사람들은 사촌마을 출신의 모 정치인이 장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첫날의 마지막 코스는 서애 류성룡을 제향하고 있는 병산서원(屏山書院)이었다. 답사를 다니면서 서원은 몇 번 가보았지만, 대부분이 이제는 문화재로 남아있을 뿐 강학과 제사를 모시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병산서원은 서애의 후손들의 노력 덕분인지 지금까지도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였다. 낙동강변에 차를 세우고 각종 짐과 식량을 지고 대문에 들어서니 대청마루 위에 한복과 갓을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서 계셨다.

그분들은 서애 류성룡의 후손들로, 원래는 도시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안동으로 내려오셨다고 한다. 큰절으로 인사를 올린 후 입교당(入敎堂)에서 잠시 쉬던 중에 소나기가 내렸는데, 안개 낀 병산(屏山)과 만대루(晩對樓)의 어울림이 매우 아름다웠다. 핸드폰 카메라로도 달력 화보와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의 경치였다. 비가 그치자

날씨가 금세 산뜻해졌고 우리의 저녁식사가 준비되었다. 서원 밥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생각 외로 참 맛있었다.

식사 후에는 만대루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설명도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물로 지정된 만대루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올라가지 마시오” 팻말이 세워져 있었으나, 우리는 만대루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담소를 나누는 특별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주변의 경치는 입교당에서 보아도 아름다웠지만 만대루에 올라서 구경하니 더더욱 좋았다. 평소에 자연 경관에는 별 감흥이 없었던 나도 저절로 카메라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새까만 밤이 되니 만대루 앞 작은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엄청난 소리로 개굴거렸다. 나는 괜히 개구리들이 생각보다 크기가 작던데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도 개구리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옛날 병산서원에서 공부하던 선비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낭만은 오래가지 않아 깨지고 말았다. 불빛을 찾아온 온갖 벌레들이 우리에게로 맹렬히 달려드는 것이었다. 마침 시간도 너무 늦었기에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유생들이 기숙사로 쓰던 건물인 동재와 서재에서 자게 되었는데, 좌고우저(左高右低)의 원리에 따라 동재에는 상급생이, 서재에는 하급생이 기거하였다고 한다. 어찌다 보니 제일 막내인 나는 상급생 방인 동재에서 자게 되었는데, 왜인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동재와 서재에는 각각 큰방과 작은방이 하나씩 있었는데 큰방은 일반 학생들이 단체로 쓰던 방이었고

작은방은 학생회장격인 유사(有司)의 독방이었다고 한다. 물론 우리는 큰방에서 자고 선생님께서는 작은방에서 주무셨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병산서원에서 하회마을로 가는 산길을 직접 걸어보기 위해 나섰다. 길을 나선 지 한 15분 동안은 그냥 풀이 많이 자란 평평한 길이라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경사가 생기더니 평소 운동부족인 나는 등산을 하는 기분까지 들었다. 이런 산 속인데도 빈 땅이 거의 농지로 가꾸어져 있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쉬던 중 근처 콩밭에서 꼬질꼬질한 야생 토끼가 한 마리 뛰어나와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가장 고난도 코스를 끝내고 이제 거의 다 왔겠거니 하는데 우리를 안내해 주신 어르신께서 이제 반쯤 왔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보고 돌아가자고 하셨다. 옛날 하회마을의 유생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완주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한 탓에 배가 고팠다...

다시 병산서원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난 후에 서애 류성룡과 그 셋째아들 수암 류진을 모시고 있는 사당 존덕사(尊德祠)에 제향을 올리러 갔다. 그 전에 유생들이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무려 여자 유생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옛날 여자는 사당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그러나 색상 선택에는 조금... 아주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유생복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사당의 정문인 신문(神門) 앞에 두 줄로 마주보고 서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사당 안으로 들어가 다같이 절을 한 다음, 선생님과 효승선배, 경민선배 세



분이 대표로 안에 들어가서 향을 올렸다. 그 뒤에는 우리 모두 존덕사 안에 들어가 서애 류성룡과 수암 류진의 위패를 보기도 했다. 이전에도 서원이나 고택에 있는 사당을 밖에서 구경한 적은 있었지만, 항상 문이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렇게 위패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다니 역시 답사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애는 영의정까지 올랐던 대신이므로 위패며 주변 시설이 꽤 웅장할 줄 알았는데, 너무 소박해서 의외였다. 장식 없는 나무에 영의정 문충공 서애 류선생(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이라고 써진 종이를 붙이고 역시 매우 단출한 의자 위에 얹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 서애 류성룡의 위패가 모셔진 옆에는 서애의 아들인 수암 류진의 위패가 있었는데, 그 역시 선생(先生)으로 불렸던 훌륭한 학자였지만 부친인 서애 류성룡과 함께 모셔져 있으므로 그의 위패에는 선생 대신 공(公)을 썼다고 한다.

유생복 차림으로 단체사진을 찍은 뒤 우리는 다시 입교당에 올라 병산서원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효승 선배, 유우코 선배, 예지 선배가 우수 발표자(?)로 선정되어 상품을 받았다. 즐거웠던 병산서원에서의 시간을 뒤로 하고 우리가 향한 곳은 하회마을이었다. 하회마을에는 전에 친구들과 놀러온 적이 있었는데, 관광객으로 왔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몇 가지 특권을 부여받았다. 첫째는

하회마을 안으로 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는 것, 둘째는 충효당(忠孝堂) 안채에 들어가 본 것, 셋째는 서애 류성룡의 옥연정사(玉淵精舍)와 그의 형 겸암 류운룡의 겸암정사(謙庵精舍) 사이의 잠도(潛道)를 걸어 본 것이었다.

첫 번째 특권 덕분에 우리는 더위에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충효당에 도달할 수 있었다. 미수 허목 선생이 썼다는 충효당의 현판과 류성룡 기념관을 둘러본 후 우리는 서애 류성룡의 종손이 실제로 살고 있는 안채로 들어갔다.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문을 지나 안채로 향하면서 나는 마치 VIP 게스트가 된 기분이었다. 안채 마당은 여인이 머무르는 공간답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밟고 올라왔다는 중간마루 위에는 큰 창이 뚫린 마루가 있었다. 마루에 앉아 있으니 열린 창을 통해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뒷마당의 낮은 언덕이 한눈에 들어왔다. 안타깝게도 충효당 종손 어르신은 출타중이셨지만 종부께서 우리를 맞아 주셨다. 종부 어르신은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자의 따님으로, 스무살 때 하회마을로 시집을 오셨다고 한다. 역사 속의 인물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었다. 한평생을 종부로서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인상도 고우시고 인자해 보이셔서 옛 사람들이 말하는 종가집 큰머느리감이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였다.

종부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하회마을을 둘러싸고 흐르는 낙동강을 건넜다. 하회마을 건너편에는 높은

절벽이 있는데, 겸암과 서애 형제는 여기에 각자의 정사(精舍)를 짓고 공부 공간으로 삼았다. 특히 옥연정사는 서애 류성룡 선생이 정비록을 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서애의 옥연정사와 겸암의 겸암정사를 오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평범한 산길이고 하나는 절벽에 바로 접한 좁은 길이었다. 현재 두번째 길은 다니기 위험하여 폐쇄된 상태이지만, 서애와 겸암이 이 작은 길을 통해서 왕래했다고 하니 우리 역시 그들이 오갔던 길을 체험해 보고자 하였다. 잠도(潛道)를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서애와 겸암 선생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대단한 분들이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길 폭이 두 뼘에 불과한 데다가 밑은 천길 낭떠러지고, 무엇보다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시 잡고 버틸 만한 튼튼한 나무 줄기도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모두 무사히 겸암정사에 도착하였고, 서애와 겸암 선생은 아마 저 길을 직접 간 것이 아니라 하인을 시켜서 편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직 바들거리는 다리로 하회마을을 떠난 우리는 점심으로 안동의 대표적인 음식 안동찜닭을 먹었다. 식당은 재래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허름한 곳이었었는데, 역시 원조라 그런지 지금까지 먹어 본 안동찜닭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일정을 변경하여 도산서원과 제천의병전시관 대신 의성김씨 학봉종택(鶴峯宗宅)에 방문하였다. 학봉 김성일은 병호시비(퇴계를 모신 호계서원에서 서애와 학봉을 추가로 배향하면서 누구를 잊자리에 둘 것인가에 대해 벌인 논쟁)의 두 주인공 중 하나로, 퇴계의 수제자이자 영남학파의 중추로 활동했던 학자였다. 실제로 학봉 김성일과 서애 류성룡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후학과 후손들 간의 다툼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인 2009년에야 서애 류성룡을 잊자리인 퇴계의 왼쪽에, 학봉 김성일을 퇴계의 오른쪽에 두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학봉 김성일 기념관과 종택을 둘러보고 나자, 종손께서 마당 한편에 있는 유물전시관을 구경시켜 주셨다. 학봉 종택에는 유독 유물과 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양이 상당했다. 가마, 꽃신 같은 생활 유물에서부터 각종 교서와 교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손께서 과거시험 답안지 한 편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고 보여주셨다. 비록 나의 한자 실력이 보잘것없어서 답안지에 쓰인 글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몇 백 년 전의 글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벅찼다.



학봉중택을 나서면서 답사 일정이 모두 끝이 났다. 1박2일 동안 식량을 많이 소비한 덕에 서울에서 출발할 때보다는 차에 자리가 널널해져서 모두 편하게 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의 즐거웠던 첫 대학원 답사가 끝이 났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선생님, 선배들과 함께하는 답사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불가능했을 경험을 많이 하였으며, 중택에서 생활하고 계신 풍산류씨 종가의 어른들을 통해 살아 숨쉬는 역사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배종열(중세1분과)

그 날을 떠올리자면 굉장히 뜨거웠지만 생각보다 덥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낮설은 느낌이었지만 걱정할 것보다 외롭지는 않았다. 강원도 철원으로 답사를 간다는 소식을 현 중세 1분과장이자 경제부총리 그리고 힘겹게 차기 회장직까지 거머쥔 이상민 학우에게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친해지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겐 낯선 사람들과의 여행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원 선배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니와 강원도 철원이 답사지라는 것에 나의 마음이 동하였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던 곳이 철원이었기 때문이다. 기억 속의 노동당사와 도피안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대학원 신입생이 되는 시점에 다시 철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떤 지표가 아닐까 생각했다. 부끄럽지만 기록을 하는 원시적인 마인드도 있었던 것 같다.

당일 나는 개인사정으로 일찍 출발했던 나는 약속한 출발시간인 오후 1시보다 2시간 반이나 일찍 도착하였다. 시간 계산을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주변 카페에서 여유나 부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 주변에는 편의점 하나를 제외하고는 동두천스러운 세련된 군인들밖에 보이지 않았고 덕분에 역에서 태블릿PC로 영화 한 편을 억지로 보았다.

1시가 되자 이번 여정의 주인공들이 속속들이 도착했다. 권력의 중추들은 권력자들 특유의 일사분란함을 보여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기차에 몸을 실었다. 이제 여행의 시작이다.

1. 경민 선배의, 경민 선배에 의한, 경민 선배를 위한

백마고지 앞에서는 경민 선배가 도피안사 철불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를 맞아주셨다.

정자를 등지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인자해 보였다. 철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글을 쓰는 지금 그날 보았던 국보인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미소보다 그의 미소가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경민 선배는 이번 여정의 썬 스틸러였다. 그의 기획, 연출(?)까지 고려하면 마치 홍상수 감독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다.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내 주장이 억지는 아니라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백마고지 답사를 마치고 노동당사로 향했다. 걸어서 4km 정도의 거리였지만 1시간을 도보로 걷기에는 더운 날씨였기에 대절된 택시로 이동하였다. 노동당사에 도착한 우리는 경민 선배의 설명을 들으며 노동당사 건물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경민 선배가 공무원인 친구한테서 들은 정보들로 파손된 구조물 공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공사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경민선배는 친절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었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식욕을 채울 수 있었다.

그의 주연다운 면모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가 절정이었다. 노동당사 정문에 서서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권력자인 모 학우께서 “앉아서 사진 한 번 더 찍죠.”라고 하였고 앞줄의 남자들은 그의 명령에 자리에 폭 앉아서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었다. 사진을 다 찍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답사지로 가려 하는데 “어머, 경민 선배 바지에서 실이 풀렸나봐.”라고 뒷줄의 한 여학우께서 말하였다. 싸한 한 줄기의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것 같다.



데이빗 핀치 감독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벤자민은 사랑하는 연인인 데이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렇게 말한다. “만약 택시 운전사가 커피를 사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탈 택시를 놓치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의 친구가 신발 끈을 묶지 않았다면...” 무수한 만약을 설정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다. “만약 그 누군가가 노동당사 앞에 껌을 뱉지 않았더라면, 만약 상민 학우가 굳이 앉아서 사진을 찍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경민 선배가 앉는 위치를 조금만 바꿨더라면...(이건 더한 비극을 초래했을 수도 있겠다).” 이 때 김지훈 학형은 실을 끊어주려고 몸소 나서는 용기를 발휘하였는데 실의 정체를 확인하고 나서는 순간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도 무수한 만약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형, 이거... 껌인데요.” 나였으면 육두문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군자와 소인은 역시 다른 것이었다. 다만 끊임없는 그의 말이 조금 안타까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조금 더 애처로운 것은 지훈 학우였다. 껌이 붙은 위치가 엉덩이었기 때문에 껌을 떼는 데 애를 먹었다. 지훈 학우는 경민 선배의 그 곳에 붙은 껌을 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무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껌은

최적의 농도로 바지에 달라붙어 몰아일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 학우는 솔방울 같은 땀을 닦아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필 아픈 역사를 가진 노동당사 앞에서 일어난 이 비극을 보고 있자니 하늘이 무심하기도 하고 경민 선배와 아직 친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다.(이렇게 글을 쓰고 있자니 앞으로 친해질 수는 있을까 더 걱정이다.) 민망해질 수 있었지만 경민 선배의 철불 미소와 지훈 학우의 의리로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다. 나는 그저 두 분의 의젓함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숙소에서의 경민 선배는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 밤새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하였고 아침 식사 도 지휘하였다. 지훈 학우는 가장 늦게 일어났는데 어제의 고마움 때문이었는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민 선배의 연출력은 고석정에서 다시 발휘되었다. 고석정(孤石亭)은 신라 진평왕 때 한탄강 중류에 세워진 정자이다. 조선 명종 때는 임궽정이 이 곳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이 정자의 건너편에 석성을 쌓고 은거하면서 의적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자는 한국 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71년에 재건되었다고 한다. 정자에서 보이는 한탄강 중앙에 12미터의 거대한 자연석과 기암과

한탄강의 맑은 강물이 사행으로 뱀돌아 흐르는 협곡과 아우러져 절경을 연출한다.

고석정에서도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김영명 학우가 사진을 찍다보니 단체사진에서 계속 빠졌었다. 답사의 마지막 코스이기도 하니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소미 학우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같이 찍어요.”라고 말을 끝내기 무섭게 경민 선배가 “형!! 사진 좀 찍어줘요!!”라고 하였다. 우리 중에 경민 선배보다 형이 없는데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의문이었는데 거짓말처럼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경민 선배가 아는 사람이었다.

바위 구멍에 숨어 관군의 눈을 피했다고 하는 임궽정도 놀랄만한 순발력과 대응력이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현대사 팀도 그 시간 고석정에 방문했는데 그 타이밍에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주연에 기획, 연출까지. 우디 앨런도 울고 가겠다. 경민 선배의, 경민 선배에 의한, 경민 선배를 위한 답사였다.

2. 백마전투와 도피안사 연꽃빵

군 생활을 했을 때 KCTC(Korea Combat Training Center) 과학화 훈련을 한 적이 있었다. 과학이라는 용어가 쓰여서 우리 군의 이미지와 조금은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현 육군의 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좋은 훈련이 아닐까 생각한다. 훈련은 말 그대로 과학화된 장비를 군인의 신체에는 물론 전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소총에서 탱크까지)에 장착하고 육군 대대 혹은 연대급끼리 현피를 뜨는 것이다. 착용한 과학화 장비 덕분에 내 현재 상태가 개인 센서에 정상, 경상, 중상, 사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나는 훈련 중 대퇴부에 적의 소총을 맞아



중상이었는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1시간 후 사망했다. 내 동료는 적 포탄 낙하로 사망했다. 전쟁 느낌을 꽤나 느껴볼 수 있는 훈련이다. 나는 이 훈련을 경험한 이후 백마전투 같은 전쟁사를 보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을 글로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이 글의 성격에 맞지도 않지만 백마고지 전투의 역사를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어 소중한 지면을 쓰고 말았다.

우선 백마고지 전투의 개요를 보자.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벌인 전투인데 한국전쟁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덕분에 육군 교육과정에서도 항상 언급되는 전사이며 현재 육군 9사단은 고지명에서 유래한 백마를 고유의 경례 구호로 사용하고 있다. 1952년 당시 철원 일대는 인근의 평강, 김화와 함께 철의 삼각지대를 이루면서 유엔군과



중공군 인민군이 대치해 있는 곳이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에서는 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야 확보와 전술에 굉장한 이점을 주기 때문에 전투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휴전선 부근 고지들은 격렬한 전투의 현장이었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전쟁 당시 유해나 사용되었던 탄약, 포탄이 발견된다.

이 395고지는 10일간 수십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정신없는 전투에서는 직접 전투를 하는 보병들의 개인 능력도 중요하겠으나 그 이상으로 정확한 포병과 항공의 지원사격 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확한 지원사격은 정확한 좌표를 보고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군인의 능력이 필요하다. KCTC 훈련에서 방어 전투를 할 때 친분이 있는 두 명의 동기가 소대가 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이동방향 좌표를 포병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1개 소대급인 30여명을 죽여 표창을 받은 적이 있었다. 똑똑한 두 명의 전우가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을 보고서 느끼는 바가 컸었다.

또한 이런 전투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나는 KCTC 훈련 공격 전투시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특임대의 일원으로 공격을 하였다. 그 날은 월광이 0%라서 빛이 전혀 없는 밤이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나무와 앞 동료의 장구류를 잡고 천천히 기동하였다. 야간 기동이라 불을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가까운 곳에서 총소리가 들려왔고 옆 동료들의 센서가 뻘뻘 울리기 시작했다. 옆 동료가 죽어가는데도 나를 포함한 백여명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몸이 굳으면서 판단력을 상실했던 것 같다. 우리를 지휘했던 간부가 랜턴으로 방향을 보여주고 “저쪽으로 뛰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이 죽었을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야간장비를 착용한 2명의 매복조가 나무 사이에 숨어서 소총으로 20명을 넘게 죽였다고 했다.

훈련에서 배운 또 하나의 가르침은 평소의 좋지 않은 습관이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개인의 단점이나 좋지 않은 습관이 전투에서는 내 동료의 목숨까지 앗아간다는 점이다. 나의 경우 내 실수 때문에 동료 2명이 사망하였는데 훈련 종료 후 동료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해주었지만 그 미안함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KCTC 훈련 영상물을 보다보면 사내들이 진한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연출이 아닌 경우가 많다. 나는 그들의 눈물이 어떠한 감정에서 분출되는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전쟁의 참혹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서 아는 척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다만 나의 경우에는 백마전투의 영웅인 김종오 장군이나 정확한 보고로 포병과 미군의 항공 지원사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람들보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전사한 사람들의 아픔이나 나처럼 실수로 동료를 죽게 만든 사람들의 죄책감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 역사학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승자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패자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이 역사학을 진정 대단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쟁이든 어떠한

다른 형태이든지 말이다. 군 드립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백마고지 전적지 답사를 마치고서 이동한 곳은 도피안사였다. 도피안사(倒彼岸寺)는 대한민국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에 있는 절이다. 신라 경문왕 5년(865) 도선국사가 높이 91cm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제조하고 철원을 울리리에 소재한 안양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가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불상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한다. 그 부근 일대를 찾다가 현 위치에 그 불상이 안좌한 자세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암자를 짓고 이 불상을 모셨다고 전해진다. 당시 철조불상이 영원한 안식처인 피안에 이르렀다 하여 절 이름이 도피안사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사실 이번 답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곳은 도피안사였다. 내 기억 속에는 자연적인 정취가 꽤나 문어났던 사찰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대는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 옛 대적광전을 허물고 새로 지은 대적광전은 내 기억 속의 정취를 앗아가 버렸다. 한국에서 고적 답사를 가면 빠지지 않는 곳이 사찰이지만 그 분위기에 침취하여 평생을 기억할 사찰은 많지가 않다. 그런 사찰 중 하나를 빼앗긴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답사 온 학우들과 요즘 사찰의 주력상품인 연꽃빵을 사는 내기를 하였는데 지고 말았다. 가위바위보에 져서 남해민 학우와 함께 빵을 사게 되었다. “신입생인데 봐주세요.”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아 포기했다.

그래도 비로자나불은 여전히 푸근하고 친근한 표정을 간직한 채 나를 맞아주었다. 절의 법당에 '대적광전'이나 '화엄전', '비로전'

의 이름이 붙은 것은 안에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모신 법당이라고 한다. 남북국시대 선종 유행의 분위기가 느껴지듯 대중적인 친근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글을 쓰는 지금 누군가의 미소가 함께 떠오른다.

3. 오프 더 레코드? 엠바고?

저녁에는 숙소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었는데 김영명 학우와 김지훈 학우의 노력 덕분에 굉장히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신입생이라 잘 몰라요.”하는 스탠스를 취해 앉아서 주는대로 먹기만 했다. 그래도 양심상 설거지는 했다.

본격적인 음주가무를 즐기기 전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개인정비 시간을 주었다. 남자 학우들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SBS의 <그것을 알고 싶다>를 시청하며 여러 가지 사회 이슈를 이야기하는 학구적인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하는데 싶었다.

곧이어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되었다. 학우 회장님은 이임사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으나 차기 회장께서는 정중하게 사양하시는 모습을 보였다. 사상사 전공자다운 대처 능력이었다. 뒤늦게 합류한 이재빈,

최민규 학우가 도착하였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지만 이들의 도착으로 연회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김지훈 학우가 가져온 본인은 명품이라지만 마신 사람들은 난색을 표한 양주가 흥을 더했다. 음주가 절정에 이르면 스멜스멜 나오는 것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혹은 듣고 싶어 술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술안주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런 자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거, 말하면 안돼."와 "이거, 오프 더 레코드야."는 결국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참 다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오프 더 레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지켜주는 것이 상도덕이다. 밑밥을 많이 던진 것에 비해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니다. 다만 신입생인 나에게는 꽤나 흥미있는 대화들이었다. 이런 일상의 대화들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서 금방 사라지지만 곱씹어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다음부터 답사를 가시면 된다. 참여하기 힘든 분들은 평소 선행을 베푸시면 된다.

이후 몇몇 학우들이 연회의 흥을 이어가기 위해 트럼프와 화투를 사오는 센스를 발휘하셨다. ‘고스톱’을 칠 줄 모른다던 기타자와 아이스인은 연승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모른다는 타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끔씩 찾아보는 나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자 국사선생님이셨던 은사님이 화투로 학사 논문을 쓰셨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공감이 가지는 않는다.

이번 답사 후기는 영도자 이상민 학우의 요청 때문이었다. 부족한 글 실력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권력자들에게는 그런 거절은 용납되지 않는 것 같다. 노동당사 앞에서 찍은 그의 독재자 포즈 사진은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후대에 남을 것이다. 읽어야 할 논문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5장짜리 답사 후기를 쓰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에게 낯선 사람들과의 여행은 항상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여행에 나서곤 한다. 답사에 오신 선배들을 보며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진심으로 행운이라 생각한다. 학부 졸업식 후 저녁식사에서 김두진 교수님이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기억할 말이 되어버렸다.

다소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여

읽으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글의 성격상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순화시키지 않은 용어들이 있는데 너그럽이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유쾌한 일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입생에게 개그 소재를 주신 경민 선배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죄송함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답사후기

한국 생명협동운동의 메카

원주를 가다!

박은영 (현대사분과)

어디로든 달려나가고 싶게 날씨가 좋은 5월의 어느 주말(5월 24일), 현대사 선배·학우들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다. 역사와공간연구소 제 1회 역사기행, ‘한국 생명협동 운동의 메카, 원주를 가다!’. 연구실의 오래된 책 먼지로부터 잠시 벗어나 부드러운 산등성을 옆에 끼고 달리고 달려 원주에 도착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1960년대부터 신헌 등 지역협동 조합운동을 일으키고 이끈 무위당 장일순 선생을 기리는 ‘무위당과 함께하는 원주 공동체 탐방’이었다. 무위당은 지학순 주교와 함께 생계조차 해결하기 힘든 당시 원주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신헌운동과 안티고니쉬 운동을 일으켰다. 원주의 지역 공동체는 이들의 정신과 활동을

1) 안티고니쉬는 캐나다의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노바스코시아(Nova Scotia)반도 내의 소도시이다. 1919년 대공황 이후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던 안티고니쉬 지역 주민들이 비참한 생활 상태에 빠지자 그 지역의 세인트 프란시스 세비어 대학(St. Francis Xavier University)의 톰킨스(James Thomkins)와 코디(M. Coady)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농어촌의 사회구조적 제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21년 민중학교를 개설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공동체운동을 전개하면서 안티고니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유영 역, 엠.코디, 1968, 『안티고니쉬운동』). 1950년대 말 장대익 신부와 가브리엘 수녀는 모두 세비어 대학에서 안티고니쉬운동을 배우고 귀국한 후 이에 기반해서 신헌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초기 신헌운동의 사상적·교육적·이론적 기반이었다.(김소남, 2014, 『원주지역 협동운동의 뿌리와 전개과정』)



▲무위당 묘소 가는 길에서.

이어받아 현재까지 40여 년간 협동조합운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²⁾ 올해는 마침 무위당 선생의 20주기로 무위당을 기리는 ‘무위당만인회’와 ‘(사) 무위당 사람들’이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이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탐방에는 연세대 현대사 팀 외에도 왕현중 선생님 등 원주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팀과 무위당 선생의 조카 내외와 ‘아침이슬’, ‘상록수’ 등으로 유명한 가수 김민기 씨도 참가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가운 만남이었다.

첫 순서로 무위당 묘소를 참배하며 무위당 선생이 펼쳤던 지역 운동에 대해 듣고 원주푸드협동조합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었다. 원주푸드협동조합은 인근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로 친환경적인 음식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점심시간에는 정갈하고 감칠맛 나는 한식 뷔페가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 후에는 협동광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원주지역 협동 조합운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원주협동사회 경제네트워크 김선기 사무국장의 간단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4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을 통해 발전되어왔으며, 이제는 원주의 지역운동을 배우기 위해

2) 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소남, 2014, 『1960-80년대 원주 지역의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부락개발, 신헌, 생명운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원주 지역 협동조합을 배우러 하는 방문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의 지원을 받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팀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람들이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협동네트워크)는 원주 지역의 각종 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 단체다. 서로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 종사자들이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함께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지역 공동체의 친목을 돈독히 한다. 그야말로 지역민들이 서로의 삶과 그들의 지역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만들어진 단체인 것이다.

협동네트워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협동조합 컨설팅이다. 새로운 협동조합을 네트워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함을 통해, 신생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그렇게 탄생한 협동조합 중 하나인 ‘두루바른언어심리임상센터’를 방문했다.

‘두루바른언어심리임상센터’(이하 ‘두루바른’)는 2014년 3월에 창립된 ‘두루바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임상센터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와 상담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주형 대표를 비롯한 두루 바른의 회원 대부분의 연령대는 20대~30대 초반으로 기업이나 조합을 운영한 경험이 많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협동네트워크의 멘토링과 지원을 받아 협동조합을 창립 운영하고 있었다.

두루바른은 기존의 장애인 대상 재활 센터들이 가진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 치료 건수마다 수당을 받던 치료사들의 급여 체계를 월급제로 바꿈으로써, 치료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급여 체계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는 치료 외에 새로운 연구를 하기 힘들었던 치료사들이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두루바른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동이 불편한 벽지의



아동들을 위한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

원주 지역의 많은 협동조합들은 두루바른의 사례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간과되기 쉬운 사람들의 필요를 찾고 다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를 안내해준 김선기 사무국장은 흔히 상상하듯 이상적인 방식으로만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데에도 무위당 선생 계실 때부터 40여 년이 걸렸죠. 그 4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많은 헌신이 필요했구요.”

원주에 지역 운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무위당은 생전에 유 불 도, 동학사상 등을 두루 공부하며 친환경적이고 공동체적인 사상과 삶을 발전시켰다. 탐방팀은 오후에 무위당 20주기를 맞아 열린 무위당 시화전과 ‘옷칠로 그린 무위당 서화전’을 찾아 생전에 그가 남긴 시화들을 통해 그의 삶과 사상을 음미할 수 있었다.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자기를 낮추어 서로를 모시되 그 모심의 대상을 만물에까지 넓혀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이후 한살림 운동을 비롯한 실천적인 지역운동으로 나타났다.

탐방을 마치고 다시 차에 올라 한적한 국도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해 대안학교인 밀알학교를 찾았다. 한 달에 한 번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느티나무 음악회’가 있는 날이었다. 흔히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축제라는 김소남 선생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배고픔을 잠시 참으며 고요한 산골에 자리 잡은 학교로 달려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음악회 전에 열린 마을 장터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중고 물품과 직접 만든 천연비누와 샴푸, 인형과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와 마을 주민과 방문객에게 팔고 있었다. 그들이 직접 만든 여러 가지 장신구나 옷가지들이 다채롭게 진열되어 있었다. 한참을 구경하고 천연샴푸까지 충동구매하고 보니 함께 온 일행들이 보이지 않았다. 다들 배가 고파서 이미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학교 건물로 들어간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장터와 음악회를 찾아주는 주민들을 위해 학부모들은 정성껏

3) 두루바른 언어심리임상센터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durubarun1>) 참조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밥과 반찬을 받아 식탁에 앉으면 먼저 온 앞집 할아버지와 옆 마을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다. 외지에서 방문한 우리도 반갑게 맞아주며, ‘이렇게 만나서 밥 먹으니 참 좋지요’ 인사를 건넨다.

식사 후에는 본격적으로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그날은 특별히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의식으로 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우리 현대사팀도 애도의 마음을 담아 저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혔다. 느티나무 음악회는 연주나 노래에 재능이 있거나 무대에 오르고 싶어 하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나와 노래하고 춤추는 마을 공동체의 축제였다. 함께 노래와 춤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나누며 공동체의 정이 오가는 자리였다. 복잡하고 삭막한 도시살이에 지쳐있던 우리는 어릴 적 한두 번 경험했거나 TV 속에서만 보았던 시골의 정감 넘치는 마을 잔치를 떠올리며, 가슴에 따뜻한 불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를 듣다보니 분위기와 정에 취해 사방에 어둠이 내리는 것도 알지 못했다. 갈 길이 먼 탓에 음악회가 끝나기 전에 축제의 장을 떠나야 하는 게 여간 아쉽지 않았다.

어둑어둑한 차 안에서 하루 동안 본 무위당의 삶과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원주 시민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았다. 그들이 추구하는 대안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의 삶, 또 하루 종일 책과 문서들과 씨름하는 사학과 대학원생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날 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가까운 토지문화관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원주캠퍼스로 이동했다. 역사와공간연구소 제3회 학술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김소남 이경란 두 분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셨다.⁴ 두 발표는 한국 현대사의 협동조합의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분단과 전쟁 이후 양적인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달려가던 개발독재 시대에, 지역운동과 시민운동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평등과 공생의

4) 김소남, 「원주지역 협동운동의 뿌리와 전개과정」, 이경란, 「한국협동조합운동에서 원주 운동의 의미와 역할」

가치를 심고 가꾸어왔는지 보여주었다. 이는 비단 역사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어버린 21세기에 이와는 다른 대안적인 삶과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였다. 발표회 후에는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발족한 본거지 원동성당과 한살림의 처음 문을 연 곳을 방문한 뒤, 푸짐한 복어 요리로 식사를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 서울로 돌아왔다.

첫째 날 원주 지역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고 둘째 날 이를 연구하고 그를 통해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연구자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바쁜 학업 스케줄에 치여 잊고 있었던,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 품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다. 사실 평소 공부와 현실 사이의 이어짐과 분리됨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기행에서 우리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가장 사소한 식의주의 문제와 그것을 공유하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연구에 녹아들 수 있음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선후배와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또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우리’에게 소중한 희망이 되고 있음을 느끼며 가슴 깊이 큰 격려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던 감사하고 따뜻한 1박 2일이었다.





구라와 다짐

고태우 (근대사분과)

지난 주에 개강을 했다. 이미 첫 수업을 마쳤다(아마 이 글이 나오게 될 때는 한참 학기가 진행중이리라...). 스트레스가 몰려온다. 벌써 개강이라니. 나를 방학을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도 시간은 빨리 흐른다. 그래도 4개월 동안 밥벌이(라 해도 내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아시리라)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생긴다. 열심히 해보자.

작년 가을학기부터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에서 교양강의를 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나 이제는 세 학기째 대림대학을 다니고 있다. 작년 초여름 어느 날 그곳 교양학사부¹⁾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시며 ‘자네 몇 학기인가, 강의 해볼 생각은 있냐’고 물어보셨다. 감사하게도 승낙하였다. 운 좋게도 박사 수업을 마치자마자 강의를 해보게 된 것이다. 보통 아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방식으로 처음 시간 강사 길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면에는 인맥과 학맥이라는 사회자본이 가로놓여 작용하는 다소 불편한 진실이 있다. 나 역시 그 수혜를 받은 것이다. 사회자본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겠으나, 때로는 초기 조건에 따라 자본의 소유 여부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선후배 동료들과 잘 지내며 신뢰를 구축하고 덕을 쌓아가는 일은 중요하다. ‘콩고물’이 떨어질지 모른다(‘콩고물’을 우선시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을 초래하는 사람까지 옹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불공정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경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바뀌나가야 할 것이다.²⁾

작년 가을학기에 배정받은 과목은 두 가지였다. ‘글로벌한국사’와 ‘세상을 바꾼 한국인’이었다. 아니 세상에 그냥 한국사도 아니고 ‘글로벌’한국사라니! ‘세상을 바꾼 한국인’이란 도대체 뭐지? ‘한국인 중에 세상을 바꾼 이도 있어?’ 이런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어쨌든 이전부터 강의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안을 참조하면서 학기 시작 전인 8월부터 강의

준비에 돌입했다.

뭐든지 첫 경험은 긴장되고 어렵다. 짜릿한 순간이기도 하다. 준비를 해놨더라도 수업은 어려웠다. 처음 강의실을 들어설 때 떨리는 감정이란, 참. 여러 선생님들이 초장에 학생들을 장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다. 한 60여 명이 되는 학생들 중에 강의계획서를 뽑아온 학생은 없었고, 같은 강의명의 수업이 다른 강의실에도 있어서 간혹 강의실을 잘못 찾아온 학생들도 있었다. 심지어 출석을 부를 때 자기가 불리지 않았음에도 한 달쯤 있다가 자기가 그 클래스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안타까운 친구도 있었다. 거기까지야 애교라고 해도 떠드는 학생, 엎드려 자는 학생, 수업 내내 나를 안 보고 퐁퐁(?)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학생,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도망가는 학생 등등은 봐줄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빨싸. 이래서 초장에 분위기를 잡아놔야 하는구나!’

교수가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 학생들은 빈틈을 파고든다. 그 틈을 처음부터 너무 내주면 안 된다. 이것도 일중에 밀당이라면 밀당이랄까. 잡아놔다가 조금씩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친절하고 다정하게. 권위는 세우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다가가려 하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도 잘 못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래도 수강생들은 고마운 존재였다. 내게 양식을 제공해주는 분들이니까. 그 얘기를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했다. ‘당신들은 제게 고마운 사람들이예요’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웃는다. 감사했다.

수업 얘기 잠깐 하자. 한국사를 가르치려는데 통사를 해야 한다. 단군과 고조선을 어찌 알랴. 초짜 강사가 한 주 강의 하나, 그러니까 한 과목에 3학점짜리 하나를 준비하러 하니 적어도 하루 꼬박, 아니면 이틀 정도는 필요했다. 다른 과목을 준비하러 해도 그와 비슷한 시간이 요구되니 매주 강의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한 주가 금방 흘러갔다. 방학 때부터 준비하지 않았으면 큰일이었을 것이다. 학부 때부터 김도형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시대사 수업을 두루두루 들어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론 나 역시도 가르치기 위해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것에 쓸쓸한 재미도 느꼈다. 물론 그 재미도 1~2년차 때 느끼는 것이지, 더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과거 하던 방식대로 할 뿐이라는 몇몇 선배들의 경험담도 들은 바 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로빈 윌리엄스를 추모하며, 스피노자의 사과나무를 떠올리며 Carpe diem~.

또 하나, 수업은 호흡이다.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는 것이 수업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호흡을 잘 맞춘다는 것이 껴이나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도.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완전히 내용 소화 못 한 채 떠들어대면 듣고 있는 사람들도 ‘뭐지?’ 하는 반응, 가우뚱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럴 때 ‘소화 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구라’로 잘 포장해야 한다. 적당한 ‘구라’는 필요하다. 물론 들키지 않게, 진정성 있게. 때로는 마주보고 있는 학생들이 질문에 잘 답변하고, 또 귀기울여주면 앞에 서 있는 나도 덩달아 신나서

1) 현재는 NCS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입에 잘 안 감기는 이름이다. 이런 단어 꼭 사용해야 할까?

2) 이에 대하여 예리한 지적을 하여 성찰의 기회를 준 김아람 학우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하고 싶다.

더 잘 떠들게 된다. 이럴 때 수업을 마치고 나면 나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아드레날린 반응이 일어나 흥분되기도 한다. 여전히 매우 부족하고 어렵지만 강의를 통해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고, 또 그 눈높이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럴 때면 딱딱한 논문을 쓰는 연구자가 대중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를 한 번쯤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소통의 어려움과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지난 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채점하면서 경험한 일이다. 시험 감독을 하면서 답안지에 쓸 말 없으면 시나 소설, 노래가사, 누군가를 위한 편지, 세월호 사태에 대한 생각, 자기 인생계획 등등 아무거나 쓰라 했다. 아니면 그림이라도. 답안지를 마주 하기 곤란한 여러 학생들이 갖가지 생각을 표현했는데, 다음의 편지를 남긴 한 학생 시험지에서 채점은 잠시 중단됐다.

"교수님 제가 수업을 많이 빠져서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비록 수업을 많이 빠졌어도 저는 교수님의 수업방식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과목이 제가 신청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리가 남는대로 신청한 것이라 그런지 지루한 과목 같았습니다. 제가 비록 대학교 수업이 저와 맞지 않아 휴학을 하지만 교수님 수업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업 어디서든 세월호와 박근혜 대통령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 수업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 실종자가 남아있다니 유감스럽습니다.³⁾ 교수님은 교수님 수업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목 자체가 지루한 거지 수업방식이 지루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건 없지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생은 날 들었다 났다. 이 수업은 한국사 수업이었는데 세월호 참사도 있고 해서 ‘한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하며 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근데 “배운 건 없지만” 그것만 기억한다. 또 ‘과목 자체가 지루한 거지 수업방식이 지루한 건 아니라’고 한다. 조·중·동식으로 편집하면 과목이 지루해서 수업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으로도 해석되리라. 어찌할까? 돌이켜 보면 강의를 처음 맡은 학기에 비해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과 좀 더 잘 지냈던 거 같다(강의평가도 더 잘 나왔다).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학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숙제는 ‘어떤 내용을 통해 학생들과 호흡을 더 잘 맞출 수 있을까’인 것 같다. 매 시간마다 한 번이라도 학생들을 웃기면서, 지루할 수 있는 수업내용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와 닿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이 학생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특강이 아닌 본 수업에서도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 수업방식은 좋았는데 지루한 건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등등……. 그럼에도 그 학생이 수업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다. 한 가지 메시지라도 전달해주었다니

3) 이 답안지가 작성되고 난지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실종자 10명은 불귀의 객이 되고 있는 상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다행이었다. 휴학하는 학생의 앞날에 밝은 빛이 깃들길 바라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만을 알고 있던 나에게 위에 소개한 한 학생처럼 여러 학생들은 교육자 또는 함께 하는 협력자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들에게 배우고 있다. 여기서 자랑 하나. 지난 학기에는 한 학생이 본인이 직접 만든 브라우니를 선물로 받았다. 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온다. 잘 지내시냐며 카톡도 남긴다. 모범을 보이진 못하더라도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번 학기는 세계문화기행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 한 번 가르쳤던 과목이라 시행착오는 덜 겪는 편이다. 첫 시간에 강의 소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를 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세계평화’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 평화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던졌다. 서로에 너무 무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허황된 ‘구라’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꺼내면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벗어내고, 북극곰의 눈물이 우리가 같이 흘려야 할 눈물일 수 있는지를 함께 얘기해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발.

끝으로 존경하는 역사학자 故 하워드 진의 말을 소개해본다. 은퇴시 강연을 일찍 끝내고 교내 간호사 파업 현장으로 달려갔던 그는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 수업을 들은 학생은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기보다, 침묵함으로써 안락해지는 삶을 포기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는 언제나 맞서 싸울 자세를 가지길 원했다.”
-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

감히 범접할 순 없다. 그래도 그를 조금이나마 따라 할 수 있다면, 최소한 내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의미있는 메시지라도 남길 수 있다면 큰 다행이겠다. 그리 되도록 스스로 다짐해본다. 힘내보자!!

밤기운이 서늘해도 한낮의 더운 기운은 가는 여름이 아쉬운지 여전히 물러가려하지 않고 있다. 그 더운 햇살 덕택에 벼는 고개를 숙이고 곡식은 여물고 있다. 자연은 여전히 그러하다.

2014년 9월 초가을의 어느 날, 외솔관 옥탑방에서

일과 공부

김대현 (현대사분과)

한동안 원생들을 만나기 싫었다. 내 상태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공부가 하기 싫다거나, 공부보다 일하는 게 좋다든가, 공부보다 일에 투여하는 시간이 더 많다든가 하는 내 상태를 털어놓고 다니기 싫었다. 어쩔 수 없음과 별개로 그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으므로, 무언가 공부하는 신분 일체에 대해 염증이 나있는 상황에선 그에 대한 해결이 날 때까지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이 당황스럽다. 무려 말도 아닌 글로, 그간 살아온 내 일상을 통해 대체 무슨 결론이 났는지를 원생들에게 떠들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두번 찾아왔던 것도 아닌, ‘여러분 공부를 때려치세요!’를 외치고 싶은 상태로부터는 제법 멀찍이 벗어난 상태이기에 조금 안심은 되고, 그 힘으로 이 글을 쓴다. 조교장 업무를 끝낸 지 이제 두 달이 흘렀다.

석사 땀 참 일을 많이 했다. 돌이켜보면 공부한 시간보다 일한 시간이 많았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학자금 이자를 내야 했다. 학부 3학년 때부터 모든 학비는 학자금 신용대출 여신에서 빠져나갔다. 석사 조교 장학금이 들어오면 학부 때 걸 갚았다. 그러다보니 공부보다 생활이 거대해보였다. 공부는 꽤 자주 방향을 잃었고, 생활은 매 끼니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화살표였다. 어쨌든 돈이 있으면 한동안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공부에 방향이 안잡혀 괴로울 때마다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벌이는 돈지랄로 그것을 위무했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내 노력에 즉각적으로 보상이 돌아오는 일이 좋았다. 일에 따른 보상은 가까웠고, 공부에 따른 보상은 기약이 없었다. 일에 재미를 붙이다보니, 이럴 거였으면 왜 취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대학원 다니면서 다들 한번씩은 해본 고민 말이다.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숨길 수 없다. 인맥으로 알음알음 들어오는 대학원 알바 자리는, 특성상 한 사람에게 한번 거부 표시를 하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일을 얻을 수 없었다. 돈에 목마른 원생들은 나 말고도 많았다. 나는 내 공부의 향상정보다 내 일처리의 향상성을 더 내세워야 했다. 그래야 내 사회적·실질적 생존이 유지될 수 있었다. 나는 점점 일 잘한다는 소리는 듣고 살지언정, 공부 잘한단 소리는 못 듣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내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있으니 이럴 거였으면 왜 진작 취직을 안했을까 싶었다. 공부란 건 얼마간 위대할 수 있었지만, 그랬기에 밤줄을 고민해야 하는 나에겐 멀찍이 있는, 고급한 취미 같았다. 신분에 걸맞지 않은 꿈을 꾸고 애먼 데 들어온 내 자신이 불경스러웠다.

석사 시절 나는 공부와 일의 균형을 그다지 성공적으로 추구하지 못했다. 자아실현을 공부가 아닌 일에만 매어둔다는 것은 공부하러 들어온 원생에게는 일종의 추문이였다. 물론 환경이 척박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걸 핑계삼을 거였으면 애초에 들어오질 말았어야 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물어올 일은 없었겠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겐 그랬다. 일과 공부 사이에서 나를 효과적으로 존재 증명하는 데 나는 자주 실패했고, 그러다보면 돈지랄이 주는 협소한 행복함 속에 갇혀 인생을 낙관해보고도 싶었다. 그렇게 숨어살 수 있는 소비와 취미의 쥐구멍은 평생을 보내고도 남을 만큼 많았다. 그런 악무한에 인생을 맡길 생각을 할수록 습관적으로 우울해졌다. 공부로 해소되어 본 자아실현의 감각은 이미 예민해져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것들로 채워진 인생 앞에 스스로를 오래 속일 순 없었다. 그 스트레스를 또 소비를 통한 처연한 쾌감들로 풀고는 했다.

그러다 조교장을 했다. 박사 입학한 직후의 일이다.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선에서 말한다면, 조교장은 원생 신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일’ 레벨의 끝이다. 그래서 석사 시절을 저렇게 보낸 나로선 차라리 자연스런 행보 같기도 했고, 아마 선생님들이나 선배들도 이따금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마치 ‘네가 여지껏 일을 원했으니, 이만한 일도 네가 감당할 수 있는지 꺾어보라’는 식의 생활이

이어졌다. 가령 조교장의 일은 사람에 따라 극도로 잘할 수도, 아니면 극도로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업무와 관련된 아무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으므로 오직 조교장의 몸과 정신이 그 체계의 노릇을 했다.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닌 기실명의 원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챙겨드려야 할 잡무들을 동시에 고민하고, 그에 관한 책임 역시 - 조교장의 심신이 곧 체계였으므로 -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조교장의 역할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내가 가진 일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예감했다. 이를테면 그것은 삶의 잔재미를 위한 취미의 쥐구멍들만큼이나 악무한에 가까웠다. 일에 대한 나름의 자부가 있는, 그것도 공부를 상회하면서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시험에 들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다. 나의 수려한 일처리로 인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저 무한한 일거리들이, 그것들이 정말 나아진다고 한들 누구를 도울 것이며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다시 생각해볼게 될 기회가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원생이 만날 수 있는 ‘일’의 끝판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일과 공부를 건주는 복마전이 아니 라, 무수한 일‘들’ 사이에서의 복마전에 심신을 내맡겨야 했기에, 나는 1년간 가급적 자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정체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한번 그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너무 불행해지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이것 역시 나를 시험하는 기회였던 것 같다. 내 삶에서 대체 공부가 어떤 비중이냐는 질문의 안티테제가 마치 응보의 벽처럼 사방에 둘러쳐진 기분이었다.

내가 공부에 대한 일말의 가치랄까 애정을 다시 찾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작년 말, 그러니까 조교장 첫 학기에 참가했던 연말의 사진전시회였다. 난 그 전시회의 총무를 맡았는데, 취향이 저마다 날카로운 참여회원들의 구미에 맞추어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흡사 처음 해보는 조교장 일에 임해보는 것만큼 어려웠다. 말하자면 나는 그 학기에 막대한 신경이 소요되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맡았던 것이다. 하나도 하기 힘든 일이 곱절로 늘어나게 될 무리한 실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거부하지 않았던 까닭은, 어쨌든 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사진’이라는 취미에 기대어 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기실 내가 사진기를 처음 접한 계기는, 밀려오는 일거리를 앞에 논문 준비를 위한 아무런 염도 생기지 않아 정신이 극한까지 몰렸던 석사 논문학기 때, 제발 숨이라도 쉬어보려는 마음으로 접했던 것이었다. 아무런 인과와 목적 없이 피어있는 풍경이 속절없이 아름다울 때, 너무나 복잡한 인과와 목적을 걸치고 있던 내 정신도 그에 조금씩 누그러지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취미에 얹힌 행사를 막상 일로써 대하게 됐을 때 오는 스트레스는 조교장의 그것과 똑같았다. 일에 무슨 제 창자까지 다 내어줄 것처럼 살았던 작년 말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였다.

그래도 그 일들에게서 끝내 잠적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쓰는 카메라 브랜드에 얹힌 모종의 코드 때문이었다. 사진을, 혹은 라이카를 무조건 부유함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함께 전시에 참여한 분들 중엔 속칭 ‘사회지도층’

에 해당하는 지위와 부를 가진 분들이 많았다. 나는 라이카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말을 해보고 나란히 전시를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취미 하나를 잘 둔 탓으로 내가 가진 사회 자본이 올라간 것만 같은 기분은, 내가 생각했던 취미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극의 세계를 보는 듯했고, 그 세계가 내가 속한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게 나를 가슴설레게 했다. 이를테면 나는 조교장의 세계와 멀찍이 떨어진 이런 별천지를 통해서도 내 존재를 증명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기이한 체험을 만났다. 자영업으로 몇백 억의 자산가치를 일군, 사진을 함께 전시한 어른을 만났는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내 얘기를 듣고 짐짓 부러운 눈빛을 띠시는 거였다. 지긋지긋한 공부에서 벗어나 비로소 문채나는 취미의 세계에 발담그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영영 만져볼 수 없을 자산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그가 ‘공부’를 부러워한다니? 나는 잠시 머리가 어지러웠고, 그 순간 나는 내가 모양나고 싶어 취했던 취미란 세계의 기원이 어딘지를 보았다.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보편적인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주관적일지언정 좀더 가치 있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놓고 사는 ‘공부’란 직업 이야말로, 사실 고래로부터 내려온 유서깊은 ‘취미’였던 것이다. 난 그런 걸 ‘이미’ 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부가 싫어 공부와 가장 멀리 떨어져 다다른 곳에서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계기는 다음과 같다. 그 때까지 나는 모 공부방에 월 5만원을 내고 얹혀사는

생활을 해왔는데, 일이 주는 신경증에 더해 주거가 불안한 스트레스가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학교에서 조금 먼, 집값이 싼 투룸으로 보금자리를 옮겼고, 거기에 소용된 보증금을 마지막 학기 조교장 장학금으로 충당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정권의 비협조로 인해 돈줄이 말라버린 올해 역사학계에 알바 자리가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 목돈을 월세집에 얹어놓아 여유돈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도 알바 몇 개가 구해지면 생활비를 댈 수 있겠거니 했던 계획이 무참하게 박살났다. 석사 때 너무 짧게 거치·상환기간을 둔 죄로 2년째 내던 원리금 상환금이며 부친의 생명보험금, 월세를 합해 숨만 쉬면 월 100만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그 돈은 모조리 빚으로 쌓여갔다. 7월에 조교장을 그만둘 때 내가 이리저리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도합 900만원에 달했다. 지난 학기 마지막은 그런 재무상황의 파탄으로 신경이 머리 끝까지 곤두서 있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돈을 도로 갚기 위해 질경이같은 조교장 임기를 차라리 한 학기 더 이을까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스트레스를 버틸 물리적인 체력이 내겐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7월 말부로 조교장 일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두 달여간의 기간 동안 닥치는 대로 재택 알바를 구했고, 개인빚의 반절 정도의 일거리를 쳐내는 것으로 여름방학을 보냈다.

개강 후 2달 동안 코빼기를 안 비쳤던 학교를 다시 찾았다. 교재도 사고 수업도 듣고 마치 이 학교 학생인 것처럼 청경관 스파게티도 먹고 학관 2층 건강센터에서 진료도 받고 하다 보니, 마치 내가 어딘가 계급적으로 고양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

다. 여기 학생들이 디폴트로 가지고 있던 사회 자본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이 새삼 그렇게 낯설게 다가왔다. 일 생각이 아니라 공부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고는 수업 시간에 앉아 무언가를 떠들고 피드백 받는 그 순간순간이 참 좋았다. 그러면서 글과 독법과 생각이 새로이 정초되는,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기분이 좋았다. 석사 입학 시절 이곳에 발들이기 전, 내가 어떤 세계를 엿보고 여기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아주 오랜만에 잠깐 되살아났다. 그리고 되돌리기에 너무 늦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

조교장이 끝나고 한동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술약속도 달갑지 않았다. 몸이 명백히 이상했는데, 술을 먹은 후에나 수음을 한 뒤에 왼쪽 엄지와 검지발가락 사이가 아려오고, 심한 날엔 발돋움이 안 났다. 소변 보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몸이 시시때때 부었다. 무언가를 먹고 난 직후의 식곤증이 아니고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를 연속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잔 후에야 아침에 눈이 떠졌다. 몸을 바꾸어 책상 앞에 앉았는데, 무언가 자꾸 졸리고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자꾸 진땀이 났다. 전자렌지에 돌리는 땀틀을 데워 명치 아래에 대었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명치 끝이 찌르듯 아팠다. 연거푸 트림이 나왔고, 한 시간쯤 지나니 통증과 메스꺼움이 멎었다. 신경을 쓰면 숨을 제대로 안 쉬는 버릇이 있었는데, 콧바람 소리가 나든 말든 방안에서 갇은 숨을 몰아쉬었다. 저녁을 과일과 견과로 때우고 잠을 청했다. 몸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중에 한 날은 꿈을 꾸었다. 언덕 위에 무슨 국립묘지며 고궁이 있었는데, 산사태로 그것들이 우르르 무너져내리는 꿈이었다. 중턱에 내 월세방도 있었는데, 산사태가 났을 후에 현장에 가보니 다행히 내 방의 집기들이 토사에 밀린 옹벽 안에 고스란히 상하지 않고 남아있었다. 혹시 잃어버린 건 없나 체크해보다 잠에서 깼다. 아침 여덟 시였고, 배가 기분 좋게 고파왔다.

사진 - 김대현



MODERN NATIONALITY POST MODERN HISTORY

'최근 한국사 연구의 동향'

— 존 던컨(John B. Duncan)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이화정 (근대사분과)

7월 한 달 동안, UCLA의 존 던컨(John B. Duncan)교수님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최근 한국사 연구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영어권의 한국사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 수업이 방학기간에 특강형식으로 개설된 것이다. 나의 영어실력이 일천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잡을 수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미국 한국사연구의 중심을 점하고 있는 석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기는 아쉬웠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울 뿐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것(習うより慣れる)”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8번에 걸친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대부분인 수업을 따라가기 벅차 영어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기도 했다. 수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학기말의 기말리포트 제출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담 역시 남아있지만, 이 수업을 통해 얻은 수확은 적지 않았다.

가장 먼저 미국의 한국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수업의 주제는 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관한 최근의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많은 논문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쓰인 한국사연구를 매시간 읽고 이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는 드물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역사연구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어떤 형식으로 서술되는지 접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 영어권에서 한국사는 동양사의 일부로서 연구되기 때문에 한국사 연구에서도 세부적인 연구보다는 종으로, 형으로 확장된 형태의 연구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한국사를 다룰 때에도 아시아의 주변 국가를 같이 살펴봐야 하고, 한 시대를 다룰 때에도 다른 시대와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살핀다. 수업의 주제가 비단 한 시대에 머무르지 않는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다룬 연구를 통해 역사적인 시대구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더불어 논문의 소재들이 다양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여성문제를 다룬 부분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흥미로웠다. 한국 내의 역사연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소재들이 이런 방향으로 연구될 수도 있구나 하는 점에서 새로웠다.

시대구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한국사연구에서는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탈민족과 탈근대가 수업의 중심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이러한 종류의 논의들이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어떠한 평가를 얻고 있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탈민족과 탈근대는 역사를 연구할 때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역사연구방법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 ‘탈’자가 붙여진 여러 개념들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론이 다수 제기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 이 두 가지 논의를 한국사에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탈민족, 탈근대가 한국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탈민족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일민족이 국민국가를 구성한 한국의 특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거나 민족을 이야기하지 않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역사서술이 될 수 없다고 지적받는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은 탈민족이라는 개념은 민족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이었다. 단순히 민족을 부정하거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간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들 개념의 진정한 의도일 것이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나도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주 없어지거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한국의 역사 속에서 민족은 매우 강한 동기, 구심점이 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민족주의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그 속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민족은 하나의 (비교적) 확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진보, 발전해 온 것처럼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민족이라는 개념을 명확한 공통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사실들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현재를 설명할 때도 그렇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단일민족으로 이뤄진 국민국가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떠올리면 위와 같은 확고한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 70년대 고도성장을 한목소리로 칭송하던 때에서 벗어나 그 시대가 안고 있던 모순과 분열의 양상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러하다. 오히려 민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윤건차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과거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는 과거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민족이 없다면,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¹ 비단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만 이러한 문제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1) 윤건차 지음, 이지원 옮김,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 문화과학사, 2003.

생각한다. 이것은 베트남전쟁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 아직까지도 진실 되게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족이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민족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나 자민족에 대한 자부심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수업의 중심주제였던 탈근대에 대해서도 위와 비슷한 지적들이 있다. 근대는 분명히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다, 또 근대가 없다면 무엇으로 역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오답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성과들을 허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논의는 기존의 논의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시간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에서 벗어나 생각한다면 탈근대적 시각에서의 문제제기는 꽤 설득력이 있다. 동양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한 역사서술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한국사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위와 비슷하게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두아라가 지적한 것처럼 근대와 전근대의 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헤겔식 역사(History)를 계승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² 수업에서 살펴본 여러 편의 논문들이 증명해보였듯이,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특성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정치·경제제도면에서도 문화면에서도 전근대와 근대적인 특성은 뒤섞여있다. 근대의 우수함을 대표하는 합리적인 근대인에 대한 믿음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미 붕괴되었다. 근대의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전근대의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들에 비해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대와 전근대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나? 근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굳건하게 남아있지 못하는 이상, 그 틀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탈민족이나 탈근대가 기존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는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생시킨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는다.

2) 프라센지트 두아라 저, 문명기 역,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삼인, 2004.

유치함의 미학,

특촬 무비에 빠지다

이상민 (중세1분과)

이야기를 펼치며

『특촬물』에 대해서 에세이를 한 편 써 달라'... 처음 이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했다. 아니, 대관절 특촬물이 무엇인지도 대다수 모르는 판국에, 내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풀어서 써야한다는 말인가. 차라리 주제라도 확실히 있다면 모를까, 하다못해 “헤이세이연간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쇼와 시리즈 전통 계승과 변용양상” 이런식으로 좀 디테일한 주제를 던져주기라도 한다면, (누가 알아먹든 말든 간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 생각들을 냅다 써갈기겠는데, 이래서는 도무지 무슨 말로 주어진 페이지를 채워나간다는 말인가.. 깊은 고민을 차마 피할 수가 없었다. 아아, “술한 대가들이 왜 대중서를 쓴다면서 논문 요약본을 만들어 내는가” 내심 속으로 원망해왔던 자신이 마구마구 원망스러워졌다.

장르적 정의에 대해 잔뜩 품을 잡고 개관을 해야하나? 아니면 (순전히 내가 보기에) 끝내주게 재미있는 작품 하나를

잡고 찬사를 늘어놓으면 되나? 아니면, 일본 문화산업과 시대성의 변화가 특촬 작품으로 이관되는 과정이랍시고 함량에도 안 맞는 글을 뽑아내면 구색이나 좀 맞출 수 있을까? 글을 부탁받은 이래 잉여로운 고민의 시간이 며칠이나 지나고 이젠 글을 안 내면 안 될 시점에 다다라 버렸다. 그렇다, 이젠 ‘좀 누워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자’며 침대에 드러누워 낮잠이나 잘 시간도, ‘옛날 작품을 보다 보면 좀 생각이 나겠지’ 하는 핑계로 몇시간째 정주행을 달릴 시간도, ‘가볍게 게임이나 한판 하면서 머리를 좀 환기시키면 좀 낫겠지’ 하면서 나 말고 내 캐릭터의 스펙을 대신 올려드릴 시간도 없다. 결국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특촬물의 세계에 대한 개관이니 뭐니 오버하고 품 잡지 말고 그냥 내 얘기나 쓰자..”¹⁾

특촬?

다만 굳이 품을 잡지 않더라도 특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풀어내야만 하겠다. 당초 특촬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특촬을 어떻게 즐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1) 때문에 굉장히 불친절한 글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글은 ‘개설’을 위한 글이 아니라, 취미에 심취하는 나의 세계에 대한 에세이 정도로 편안하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다.



이야기를 풀다는 건, 마치 열대 지방 토착민에게 눈(雪)의 종류에 대해 말하는 것 만큼이나 막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촬물』의 범주는 사실 사람마다 꽤 다양한 범위로 설명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특촬물』을 사전적으로 정의내릴 때는 특수촬영기술(SFX, Special photographic effects), 즉 미술, 광학처리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 효과를 입힌 영상물을 일컫는 말로서 넓은 정의로는 모든 형태의 특수효과 CG 합성이 들어간 영상 전반을 일컫는다. 하지만 통칭 『특촬물』이라고 설명할 때에는 상기한 특수 촬영 기술이 영상의 전개상 중요한 위치를 지칭하는 장르, 즉 SF나 판타지 장르를 지칭하고, 그 중에서도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특히 일본에서 발달한 히어로, 괴수영화의 범주를 짚어 설명하기도 한다. 즉 「스타워즈」의 경우 혹자에게는 특촬물이지만 혹자에게는 특촬물이 아니다. 다만 일본 특촬의 한 분파인 괴수영화 장르의 탄생 그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킹콩」의 경우 대부분 특촬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²⁾

나는 지금 언급한 거의 모든 방식의 『특촬물』을 좋아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촬물』은 그런 것은 아니다. 면밀히 말해 내가 좋아하는 『특촬물』 그 안에서도 극소수의 장르인 ‘변신 히어로물’에 더 가깝다. 그렇다, 내 또래 남짓의 80년대생들에게는 ‘후퇴시맨 시리즈’로 잘 알려졌고 아마 90년대 이후의 친구들에게는 ‘파워레인저 시리즈’(90년대에 방영한 미국판 ‘무적 파워레인저’이야기가 아니다)로 알려진 전대 시리즈나, 요즘들어 한국에 정발된 가면라이더 시리즈, 울트라맨 시리즈 등이 내가 열렬히 열광하는 소재인 것이다.

일본발 변신 히어로물의 세계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다수가 그렇듯 초등학교때의 일이지만, 그 분야를 ‘

2) 이러한 장르구분의 기초적 개념은 일본어 위키피디아의 特撮 (<http://ja.wikipedia.org/wiki/%E7%89%B9%E6%92%AE>), 혹은 일본의 용어해설 백과사전 kotobank의 特撮 (<http://kotobank.jp/word/%E7%89%B9%E6%92%AE?dic=mypedia>)항목에 나타난 설명을 전반적으로 참조하였다. (솔직히 말해 이러한 정의 하나하나를 신경쓰고 작품들을 즐긴 것은 아니지만, 팬덤 활동을 하다보면 각자마다 꽤 다양하게 ‘어디까지가 특촬이냐’를 정의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기에 한번쯤 짚어 넘어가 볼직한 이야기이긴 하다.)

80's



90's



AND...

취미'의 일환으로 접하게 된 것은 고교시절의 일이다. 당시 아무생각 없이 게임 등의 소개사이트를 찾아다니기 좋아했었는데, 웹서핑 중에 발견한 사이트 하나에 완전히 ‘꽃혀서’ 그 세계에 대해 무턱대고 찾아보기 시작했고 당시 2004년경에 취미문화의 중심이었던 이글루스 블로그나 신비로, 프리챌 커뮤니티 사이트를 소다니면서 관련 분야의 은둔 고수(?)들과 교류하며 작품 정보를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쯤엔 어느덧 40대 후반에 접어들, 당시에는 30대 중반 정도가 대부분이었던 은둔 고수(?)들의 커뮤니티는 실로 놀라운 곳이었다. 제대로 정식 발매되지도 않은 DVD레코드며 전문서적들을 일본 다녀오는 인편으로 구해다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인들과도 개인적인 면식이 있는 사실상 ‘업계의 개척자’들의 세계에 어느새 내가 매혹되었다. 그들은 때로는 잘 모르는 고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때로는 ‘아는 사람만 알 만한 어지러운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면서 나에게 지평을 열어주기도 했었다.

그렇게 별에 별 작품들을 접하는 와중에서 가장 내 눈을 사로잡은 시리즈는 ‘가면 라이더 시리즈’와 (현대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시리즈’로 방영중인) ‘슈퍼 전대 시리즈’였다.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던 작품들이 사실은 하나의 단일한 시리즈로 무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나온 시리즈라는 사실이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세계가 가진 유구한 전통의 지극히 작은 파편에 지나지 않았었다니, 내가 모르던 한 ‘세계’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에 순식간에 매혹되게 되었다.

변신? 합체?

전대물, 그러니까 3인, 혹은 5인 등으로 팀을 구성해 스토리가 진행되는 시리즈나, 가면 라이더와 같이 원톱 혹은 투톱의 히어로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시리즈와 같은 작품들이 가장 내 눈을 끌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변신 히어로’였다는 것이다. 히어로 장르 그 자체는 꽤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변신 히어로가 내 마음을

끝었던 것은 바로 그 ‘변신’이라는 격변적 연출이 가진 놀라운 부분 때문이었다.

굳이 ‘변신’이라는 소재를 다룬 여타의 세계고전문학을 들먹일 능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협회의 특촬물’의 중요한 고지라 등으로 대표되는 괴수 장르가 접근하지 못한 테마가 바로 그 히어로물의 ‘변신’이다. 변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최소한도의 선에서 내가 아닌 무언가로 변화한다는(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진화’한다는) 것 만큼 가슴떨리고 놀라운 일이 있을까. 울트라맨과 같이 세계 밖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 변모하기도, 가면라이더 시리즈처럼 의지 밖의 음모 속에서 일상과 동떨어지기도 하면서 내가 아닌 내가 되어간다는 것, 그것만큼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변신’이라는 코드가 짜릿한 것은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일의 매력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변신물’이 가진 미학은 그 ‘변신’의 비일상성이 결과적으로 변신하지 않은 ‘맨몸’의 주인공의 일상을 변모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변신히어로가 변신의 권능을 얻은 이후로, 별달리 갈등없이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한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굳이 특촬로 비유하여 이야기한다면 80년대 유행한 ‘우주형사 시리즈’로 대표되는 활극 장르의 경우, 변신히어로물의 포맷을 띠고 있음에도 변신하지 않은 맨몸 히어로의 성장과는 극히 무관한 플롯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변신’이라는 모티프 자체보다는 ‘도구의 사용’개념에 더 가깝게 묘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르 자체의 독법상 유쾌한 활극의 형식을 띠는 만큼 성장담보다는 그야말로 화려한 수트의 경연 그 자체에 목적을 띠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변신 히어로’이지만 ‘변신’ 그 자체의 비주얼에 목적을 두고 있는 셈이다. 그 ‘폼나는 이미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신히어로’로서 그리 높게 평가하는 편은 아니다.³

나아가 어쩌면 ‘히어로가 아닌 자가 히어로가 되는 것’은 꽤 범용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특촬 등에서 히어로가 아닌 ‘꼬마’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 그 ‘꼬맹이’의 정신적 성장 그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나⁴, 그와 별도로 ‘히어로 주변부를 더욱 강조하는 플롯’⁵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롯의 가장 기본에는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 본인 스스로의 비극과 역경끝의 성장을 출발점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존재’로서의 권능을 부여받은 주인공이 겪어나가는 흥미진진한 승리담 뒤에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성장기.. 그런 성장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게 되는 장르가 바로 ‘변신 히어로물’ 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변신 히어로물은 궁극적으로는 ‘성장물’이 될 수밖에 없다. 변신된 자기

3) 물론 어디까지나 ‘변신히어로물’로서의 자체적인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주형사 시리즈는 특촬 장르에 있어 중요한 한 조류를 형성한 작품군일 뿐만 아니라, 재미나 연출 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명작임에는 틀림없다.

4) 인기를 끈 것으로는 로봇 애니메이션 ‘용자왕 가오가이가’(1997)가 대표적이다.

5) 조직으로서 ‘지구방위대’ 전반을 다루는 울트라맨 시리즈가 전통적으로 이 플롯을 따르고, 넓게 본다면 ‘어벤저스’(2012) 시리즈도 이에 속한다.

자신의 과장된 모습에 심취하고, 그 변신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게서 결국 (라이벌의 존재나 능력의 미약함 등으로) 맞이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결과적으로는 ‘변신과 무관한 본래 스스로의 성장’으로 최종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게 되는.. 어쩌면 뻔하디 뻔한 스토리가 ‘변신 히어로’의 주제가 되는 것은 그 장르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의미에서 ‘변신 히어로’의 미학은 ‘합체 로봇물’의 로망과는 완전히 성질을 달리하게 된다. 합체로봇에서도 결과적으로 ‘최종 합체가 아닌 기본형으로 완결지어지는 패턴’이 등장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근에야 부각되기 시작한 연출이다. 동시에 이러한 ‘합체로봇임에도 합체하지 않은 기본형의 발전이 존재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2007년 방영작 ‘천원돌과 그렌라간’의 경우, 그 자체로 훌륭한 합체로봇물이기 앞서 ‘합체’의 미학보다는 ‘확장’의 개념에 가깝다.(서로 다른 의사를 가진 것들의 합치라기보다는 한 가지 조종석에서 추가 부품이 꾸준히 덧붙여 발전하는 형식을 생각하면 된다). 흔히 ‘합체로봇’의 미학을 설명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하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힘을 모아 해낸다’는 모티프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협동의 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변화의 상태 이전의 맨 모습이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주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합체로봇물과 변신히어로물은 전대 시리즈에서 합치되고 있지만 둘의 모티프는 상당 부분 상반되는 측면마저 가지고 있다. 전대 시리즈에서 때로는 중심 배역 한둘의 이야기와 성장에 집중하거나⁶ 개인의 개성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협동의 미학 그 자체에 심취하거나, 아니면 아예 협동성 그 자체를 주제로 넣으면서 캐릭터 개인의 개성을 상대적으로 죽이거나⁷ 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합체로봇물’의 재미와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틱한 성장물’의 성질은 변신히어로물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함? 추억?

특촬 시리즈에 대한 취미를 설명하다보면 굉장히 흔히 접하는 반응은 “유치하다”는 시선이다. 일단 미소녀 애니메이션의 취향이 아니다보니 ‘변태’소리는 차마 못하겠고, 다만 뭔가 애들보는 것에 천착해 있는 것에 대한 이질감이나 거부감 등을 표현한 것일거라는

6) 초신성 플래시맨(1986), 광전대 마스크맨(1987), 조인전대 제트맨(1991) 등이 이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주인공 레드’에 깊게 천착하게 되는 작품군들이 이런 경향을 띠기가 쉽다.

7) 이 경우는 전자만큼 흔하지는 않다. 다만 80년대 이전의 전대물에서는 꽤 흔한 패턴이기도 하였다. 80년대 이후 전대물 작품군에서는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캐릭터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초수전대 라이브맨(1988)이나 지구전대 파이버맨(1990)같이 ‘주인공의 성장담’ 대신 ‘협동과 화합’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작품군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동시에 2000년대 이후 작품군에서는 가면라이더 카부토(2006)과 같이 성장담 자체를 외면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완벽한’ 주인공들을 마치 아이돌같이 부각시키는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작품들은 되려 컬트적인 이미지만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생각이다. 그나마 요새는 ‘오타쿠 문화’ 내지는 ‘키덜트’ 팬덤이 확산되다 보니 좀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치한 문화’를 즐긴다는 시선 때문인지 특촬 팬덤, 그 중에서도 2000년대 개설된 네이버 커뮤니티 등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들이 몰두하는 두 가지, 약속이라도 한 듯한 대응이 있다. 그 첫 번째는 ‘특촬물이 얼마나 많은 철학을 담고 있는지’ 안간힘을 써서 설득하려는 대응이고, 두 번째는 ‘추억의 재생’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이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다 특촬 팬덤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둘 다 본인의 기호를 어떤 방면으로든 회피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의 ‘추억’의 경우, 분명 특촬 장르를 처음에 접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 내지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무척 중요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기일 뿐, 그 자체가 팬덤을 운영하는 원리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하기에는 추억 자체가 소모의 대상이 되고있지는 않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추억’을 기반으로 해서 80년대판 피규어만을 고집하는 팬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이 세계에 있어서의 ‘고수’들 중 일군의 집단들이 그 분야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특촬 팬덤에서 ‘추억’을 이유로 삼는 이들의 비율은 실제로 ‘추억 그 자체를 취미로 삼는 이들’에 비하자면 지나치게 많다. 말하자면 굳이 ‘추억 그 자체’가 아니라, 추억을 기반으로 한 새로 나오는 장르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오래된 명작 등을 새롭게 접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면피성 발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유치하지 않다’는 논변을 볼 때가 되면 이제는 조금 안타까워질 때도 있다. 물론 이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파고들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온 상황에서 일본 현대사의 문화유행 흐름을 읽어낼 수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이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아동용 작품’이라고 해도 그걸 만드는 콘텐츠 자체가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동시에 업계의 세세한 사정까지 들어가면 전혀 ‘애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특촬물의 대부분은 아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의의 용사’가 나오는 액션 장르를 기본으로 한다. 말하자면 유치하고 단순하고 ‘똥폼’을 잡는 것 같은 그 자체의 미학이 일단 그 작품의 제작의 근본 이념이다. 유치하다는 것에 ‘유치하지만은 않다’고 발끈하는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치하다는 비난에 대한 반발심을 위한 발언이라는 생각마저 느껴지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는 특촬 장르의 성격을 구태여 외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촬의 묘미는 바로 그 ‘유치함’에 있다. 특촬에 있어서의 묘미나 그 나름의 생각할 거리 또한 그 유치함, 그러니까 복잡한 아이러니나 상징 등을 개입시키지 않은 단순 명료한 메시지를 전제한 가운데 성립되는 것이지, 그 본질 자체에서 ‘유치함’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특촬을 ‘유치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공격적인 언사에 별로 썩 호의적인 평가를 내릴 생각은 없다. 일반적으로 그 맥락에는 타인의 취미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특촬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유치함’ 때문이라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 전술한 ‘변신의 미학’이나, ‘협동의 묘미’ 등도 모두가 다 따지고보면 유치한 메시지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만큼 유치하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자면 특촬을 좋아하는 이유 바로 그 자체가 ‘유치하기 때문에’라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이야기를 수습하며

특촬에 대한 간단한 소개나 ‘좋아하게 된 계기’ 내지 좋아하는 이유 등등에 대해 굉장히 두서없이 뇌까린 듯한 에세이가 되고 말았다. 마치 2000년 이래 유행 중인 ‘풀어내고 싶은 단서는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서 뭘 말인지 모르는’ 특촬의 유행을 반영한 것만 같다.⁸⁾ 그러나 지면의 제약과 준비되지 않은 글쓰기의 폐단으로 생긴 중구난방 잡설을 조금은 수습정도는 하면서 마무리하는게 최소한의 책임이 아닐까 한다.

특촬 장르에 대한 애정과 별도로, 특촬 장르는 기본적으로 요새들어서야 조금 빛을

8) 이 경우에는 예시를 굳이 달 것도 없다. 내 기준에서 2000년대 이후의 특촬 시리즈 중 안 그런 작품을 고르기가 더 힘들다. 특히 원 투톱 체제를 고수하면서 주인공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가면 라이더 시리즈에 있어서 이 경향은 특히나 두드러진다. 다만 이 글을 쓰다보니 작품을 보며 신나게 욕했던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다. 이래서야 그 ‘발로 쓴 각본’ 보다 나올 게 하나 없지 않는가..

본 소수적 취미임에 분명하다. 동시에 한때의 흥행산업이었지만 요즘들어서는 일본계 서브컬처 시장 자체의 다양화로, 상대적으로 ‘정통파’ 특촬 장르는 축소되어지게 되었다. 일각에서 ‘30분짜리 장난감 홍보방송’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그저 쓰게 웃을 뿐 뭐라 반박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이 이야기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꼭 붙여두고 싶다. 특촬물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고고한 전통을 유지해 온 나름의 역사를 가진 장르고, 그 역사만큼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오락영화의 역사를 단순히 ‘오락’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오락을 추구하기 위한 모색의 결과를 감각적으로 동시에 생각도 해 보면서 즐기는 묘미는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다. 나아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촬은 분명 ‘유치한’ 장르임에 틀림없지만, 그 유치함의 단순한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먹히는’ 구석이 존재한다. 꼭 ‘고전’이라는 작품의 고풍스런 미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수십년 간 꾸준히 신선한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변하지 않는 꾸준한 플롯을 유지할 수 있는 나름의 저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구난방 이야기를 풀어두다 보니 각각의 주제들에 오히려 거의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지만, 그 아쉬움은 차후로 미루어두도록 한다.

민장으로 듣는 민의 목소리

정진혁(중세2분과)

“이리여, 승냥이여!

삼살개 이미 빼앗아 갔으니, 닭일랑 묶여가지 마라.

자식은 이미 팔려갔고, 내 아내는 누가 사랴.

내 가족 다 벗기고 뼈마져 부수려나.” - ‘전간기사(田間紀事)’ 중

이 시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쓴 시다. 이리와 승냥이에게 핍박당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괴로운 심경이 잘 드러난다. 다산이 보기엔 민들의 삶은 이처럼 이리와 승냥이들에게,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수령과 서리배를 뜻하는 것이겠지만, 끊임없이 수탈당하는 과정이었다. 조선 후기 연구들에서 민들은 수령과 서리배의 핍박에 괴롭힘 당하다가, 봉건지배체제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민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민들은 99℃까지는 잠잠하다가 100℃가 되었을 때 끓어 넘치는 물의 특성처럼, 평소에는 침묵하다가 임계점에 이르러 한순간에 폭발하는 성격을 가졌나? 아마 아닐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민장초개책(民狀草概冊)은 민들이 평상시에도 수다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나름의 생존전략을 구사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민은 억울한 사정이나 분쟁이 생길 경우 관에 민장을 올려 해결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행정 청원이나 민원, 민사 소송 뿐 아니라, 구타·절도 등 형사사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 재판은 민이 민장을 관에 제출하면 수령은 심리를 거쳐 그 민장의 뒷면에 처결 결과를 써서 돌려주었는데, 이를 제음(題音)이라 한다. 제음에는 피고를 잡아오라든지,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든가, 소장을 다른 관청에 제출하라든지 등의 수령의 의견이 담긴다. 따라서 민장과 제음 모두 소를 제기한 민이 보관하게 된다. 대신 조선후기 지방관들은 자신이 처리한 민장과 처리 결과를 요약하여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은 민장초개책 또는 민장치부책이라 한다. 민장초개책은 주로 19~20세기 초에 작성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60여개의 자료가 남아 있다.

조선후기 팀은 2014년 4월부터 진주 경상우병영(慶尙右兵營)에서 제작된 축영민장초개책(勳營民狀草概冊)을 강독하였다. 수록 시기는 1862년 7월에서 12월까지, 그중에는 8월 윤달이 한 달 더 추가되어서, 7달 분량으로서 전체 다뤄진 민장 수는 623개이다. 경상우병영에선 한

달 평균 90개, 하루 평균 3개 민장이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축영민장초개책의 작성된 시공간과 관련해 특징을 가진다. 진주 지역은 1862년 2월 18일 진주민란이 발생한 곳으로서, 1862년 입술 민란의 도화선이 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19세기 농민들의 사회의식과 불만이 가장 첨예한 곳 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시기성 때문에 축영민장초개책에서는 민란과 관련된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청취할 수 있다. 진주민란에서 농민들에게 죽임당한 이방 권준범(權準範)의 이름은 민장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그와 관련된 소장은 대체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돈을 갚아달라니 풀어달라는 보석 요청이라든지, 갈취당한 금전을 찾아달라는 추급 요청으로 나뉜다. 전자는 권준범과 결탁하여 불법행위를 일삼던 친인척들이 은닉자금을 반납하는 과정의 옥사이며, 후자는 권준범에게서 금전을 갈취당한 민들이 환급 받는 과정이다. 권준범 본인은 이미 농민들에게 매 맞아 죽었지만, 그가 남긴 부정부패의 발자취는 5개월이 지나서도 남아있던 것이다.

민장은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농민이 스스로 작성하기는 어려웠다. 만약 재산 또는 명예가 침탈당해 관의 중재를 필요로 할 일이 생긴 농민이라면 자신의 요청을 어떻게 민장으로 작성했을까? 주로 몰락한 양반이라든지, 서당의 훈장들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지식인들이 민장을 대필해 주었다. 이런 사정으로 민장을 올리고자 마음먹었다면 절차상의 어려움 없이 제출할 수 있었다. 민장제출자로는 집강(執綱), 수첩군관(守堞軍官), 지소감관(紙所監官) 등의 공직자들, 박OO, 김OO같은 상민 남자들, 김조이(召史), 이조이처럼 이름 없는 여인들, 성씨없는 노비들을 포함해 다양한 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요청사항을 관에 제출하고 제음을 받아갔다. 조선 후기는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스스로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민장은 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제출되었다. 전정·군정·환곡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동네가 부당하게 징수당한 조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유재산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침탈당한 경우에도 소를 올렸다. 예를 들면 돈을 떼어가서 안 갚는다든지,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 값을 안 준다든지, 초군 떼들이 몰려와서 나무를 베어갔으니 나무 값을 받아달라든지 하는 등의 문제였다. 이처럼 재산상의 분란에 있어서 민들은 관이라는 중개자를 통하여 확실한 해결을 기하였다.

지방관이 제음을 내리는 기준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었다. 축영민장초개책에서 제음을 내린 병마절도사의 경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문서에 의거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862년 8월 진주지역에 큰 비가 내려 논밭에 피해가 극심했다. 이에 전세를 면제해 달라는 소장이 여러 민들에게서 올라오는데, 그 때마다 병마절도사는 가을걷이를 한 후 본주의 정책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또 다른 예로, 박조이(召史)란 여인이 죽은 남편·아들의 역의 면제를 요청했다. 그런데 다음날 마을동장과 지역 주민들이 박조이의 탈역은 부당하다며 단체로 소를 올렸다. 이러한 분란에 대해 병마절도사는 본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여 문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이처럼 병마절도사는 재량으로

판결하지 않고, 문서에 의거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진주민란이 직후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신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장은 원칙적으로는 지방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서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축영민장초개책의 경우 150여 페이지가 3등분되어 3종류의 서체로 적혀 있기 때문에, 3명의 서리들이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사서류와는 달리 서리들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 드러난다. 먼저 이두를 잘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자면, ‘分哉良’은 한글로 ‘~뿐더러’로 해석이 되고, ‘是遭’은 ‘~이고’라고 해석이 되며, ‘是去等’은 ‘~이거든’이라고 해석이 된다. 이것들은 민장에 산견되어 해석의 편의를 돕는다. 다른 하나는 한글 구어체를 한문어로 표현했다는 특징이다. 예를 들자면 受食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는 ‘받을 수, 먹을 식’이라는 뜻 그대로 ‘받아 먹다’고 해석된다. ‘金同內介’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름이 김동내개, 말 그래도 ‘동네의 개’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사료이지만, 민장초개책도 사료적인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단 현재 남겨진 민장자료들은 모두 초개책이다. 초개책은 그날 처리한 민장의 내용을 짤막한 2~3줄짜리 글로 요약하여 초록한 것이다. 그래서 상세한 소송·고발·청원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이다. 아마 당시 그 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초개책만 보더라도 사건 정황을 알 수 있을 테지만, 21세기의 우리에게겐 요약된 문장들만으로는 상황파악이 어렵다. 농민의 요구사항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귀중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술주체가 관이라는 점, 그리고 내용이 한번 축약되었다는 점 때문에 농민의 목소리는 귓가에 생생히 들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민들은 이리와 승냥이가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민은 관청이라는 중개자, 문서화된 제음이라는 확실한 매개물을 통해 그들의 사유재산과 명예를 보호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관청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자가 되기도 하였다. 민은 관과 중층적 관계망 속에서 생활한 것이다.

분과별 동향

2014-1학기 고대사 동향(분과장 : 남혜민)

1. 전공 현황

박사과정 : 정상민(박사 9), 신가영(박사 8), 최경선(박사 8), 안정준(박사 6), 장병진(박사 4)

석사과정 : 박동명(석사 5, 휴학), 박소미(석사 3), 남혜민(석사 2)

2. 세미나

역사학 이론 개설 및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2014-1학기 ~ 현재)

2014년도 하계 세미나 주제 : 백제사 연구의 현황, 삼국사기 백제본기 강독 및 사료 분석

시간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오후 10시, 도서관 세미나실 및 외솔관 627-1

3. 분과동향

*답사 : 2014년도 하계답사(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합동 답사), 8월 24일(일) ~ 25일(월) 청주지역 답사

*발표

정상민(박사 9)

· 「那 연합기 고구려의 정치 구조」, 한국역사연구회 분과총회 연구발표, 2014년 5월 23일(금)

최경선(박사 8)

· 「6세기 신라 노인촌의 지역적 양상과 율령지배」, 한국역사연구회 분과총회 연구발표, 2014년 4월 30일(수)

· 「부여 지역 출토 인각와와 기타 명문자료(2)」, 한국 고대 문자자료 연구모임 제11회 월례발표회, 2014년 4월 25일(금)

· 「<난원경묘지명>의 판독과 해석」, 한국 고대 문자자료 연구모임 제13회 월례발표회,

2014년 6월 28일(토)

안정준(박사 6)

· 「百濟 義慈王의 外孫 李濟 墓誌銘에 대한 검토」, 한국 고대 문자자료 연구모임 제10회 월례발표회, 2014년 3월 29일(토)(한국 고대 문자자료 연구모임 제11회 월례발표회, 2014년 4월 25일(금)에 동일주제 발표)

· 「4-5세기 고구려의 중국계 유이민 망명인 안치와 지배」, 한국역사연구회 분과총회 연구발표, 2014년 4월 30일(수)

· 「경기 지역 출토 문자자료의 이해」, 한국 고대 문자자료 연구모임 제13회 월례발표회, 2014년 6월 28일(토)

· 「5~6세기 高句麗의 中國系 流移民 亡命人 수용과 그 지배방식」, 학술대회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주니어 포럼)>, 2014년 8월 7일(목)

*게재

- 안정준(박사 6), 2014, 「百濟 義慈王 外孫 李齊 墓誌銘 검토」, 『목간과 문자』 12, 한국목간학회

2014-1 고려사 동향(분과장: 이상민)

1. 전공 현황

박사과정 : 송용운 김윤정(이상 수료),

석사과정 : 김선민(이상 수료), 최민규, 이상민

2. 세미나

『조선왕조실록』 강독, 학기 중 격주 수요일 14:00~

3. 졸업생/신입생

졸업생 : 없음

신입생 : 없음

4. 학술활동

없음

2014-1 조선후기 동향(분과장: 이재빈)

1. 전공 현황

박사과정 : 김미성, 우혜숙, 윤석호, 이석원(이상 수료).

석사과정 : 강슬기, 김태홍(이상 수료), 최지예, 이재빈, 정진혁, 김미승.

2. 세미나

『반계수록』 강독(2013년 1월~) : 학기 중 격주 목요일 19:00~

민장 강독(2014년 4월~) : 매주 토요일 09:00~

3. 졸업생/신입생

졸업생 : 홍해뜸(석사; 「18세기 목민서의 향촌통제와 관민소통책」)

신입생 : 없음

4. 학술활동

이재빈(공동집필), 2014,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분열, 『마르크스주의연구』 11-2.

2014 년 -1 학기 , 근대사 동향 (분과장 : 정예지)

1. 전공 현황

박사 수료 : 윤정애, 이애숙, 이재운,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안대희, 홍동현, 남정원, 주운화, 김재은, 권기하, 이현희, 고태우

박사 과정 : 신호승, 정경민, 이화정, 노상균

석사 수료 : 조한숙, 권일용, 이선애, 정다영, 진성제, 정용경, 가와나 유우코

석사 과정 : 마리나 키릴로바, 김나라, 기타자와 아이, 박윤정, 정예지, 이정운

2. 세미나

한국근현대사 세미나 (2014 년 3 월 - 2014 년 9 월) - 주제 : 한국 근현대 정치사상사

황성신문 세미나 (2013 년 9 월 -) - 주제 : 황성신문 강독

일제시대 세미나 (2014 년 8 월 -) - 주제 : 이론 서적 읽기

3. 졸업생 / 신입생

졸업생 : 문백란 (박사졸업)

『한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한국인식과 선교활동』

김일주 (석사졸업)

「일제하 친족 관련 법령과 호주권」

4. 학술활동

* 논문 투고

- 고태우, 「일제 식민권력의 재해대책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31호, 2014. 4.

* 발표

고태우

· 식민권력과 조선사회의 공존과 균열 -재해문제를 둘러싼 전통, 근대화, '대안적 공공성'-, <한국학과 세계 포럼 제1회 국제학술회의 :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 - 전통, 문화정체성, 제국>,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BK21+사업팀, 연세대학교 사학과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 (2014. 7. 18)

노상균

· 근대 초기 유교지식인들의 출처론과 국가관, <한국학과 세계 포럼 제1회 국제학술회의 :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 - 전통, 문화정체성, 제국>,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BK21+사업팀, 연세대학교 사학과 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 (2014. 7. 18)

정경민

· 조선의 초대 주미전권공사 파견과 조선정부의 연청노선 확립,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월례발표회>, (2014. 5. 30)

신호승

· 1866년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략에 대한 조선군의 대응, 역사실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2014. 4. 19)

· 병인양요에 대한 조선의 평가와 전략변화, 근현대사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2014. 5. 10)

2014년-1학기, 현대사 동향(분과장: 정다혜)

1. 전공 현황

장미현, 김아람, 이홍석, 광경상, 홍정완, 이세영(박사수료)

김은정(박사 2), 김대현(박사 2), 이봉규(박사 1)

김세림 (석7), 이준희(석6), 정다혜(석5), 김호준(석5)(이상 수료), 박은영(석2), 김지훈(석1),

김영명(석1), 김효성(휴학)

2. 논문

김세림, 〈1960년대 국영기업 노동자의 성격〉, 2014. 8 석사학위 논문

3. 세미나

한국근현대사 세미나(2014년 3월 - 2014년 9월) - 주제: 한국 근현대 정치 사상사

4.졸업생/신입생

김세림(2014.8 석사졸업)

5.학술활동

곽경상(박사수료), 「5.16 군정기 군사정부의 지방정책과 정치.행정구조 개편」, 『역사와현실』 92, 2014

이세영(박사수료), 〈1945~1950 북한의 과학기술 진흥과 근로인민의 탄생〉,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 연구반 월례발표

한국사 학우회 운영회원 명부 (2014.8. 현재, 전공시대순)

이름	전공시대	과정
장병진	고대사	박사과정
박동명	고대사	석사과정
박소미	고대사	석사과정
남혜민	고대사	석사과정
정진성	고고학	석사과정
김선민	중세사1	석사과정
최민규	중세사1	석사과정
이상민	중세사1	석사과정
강슬기	중세사2	석사과정
김태홍	중세사2	석사과정
이재빈	중세사2	석사과정
김미승	중세사2	석사과정
정진혁	중세사2	석사과정
고태우	근대사	박사과정
신효승	근대사	통합과정
정경민	근대사	박사과정
이화정	근대사	박사과정
노상균	근대사	박사과정
진성제	근대사	석사과정
유우코	근대사	석사과정
마리나	근대사	석사과정
김나라	근대사	석사과정
박윤정	근대사	석사과정
정예지	근대사	석사과정
기타자와 아이	근대사	석사과정
이정윤	근대사	석사과정

김은정	현대사	박사과정
김대현	현대사	박사과정
이봉규	현대사	박사과정
김효성	현대사	석사과정
박은영	현대사	석사과정
김영명	현대사	석사과정
김지훈	현대사	석사과정

한국사 학우회 운영위원 명부(2014년 8월 기준)
(전공시대순)

이름	전공시대	과정	직책
박소미	고대사	석사과정	학우회장
남혜민	고대사	석사과정	고대사 전공대표
이상민	중세사 1	석사과정	중세사 1 전공대표
이재빈	중세사 2	석사과정	중세사 2 전공대표
정예지	근대사	석사과정	근대사 전공대표
정다혜	현대사	석사과정	현대사 전공대표
이봉규	현대사	박사과정	학술부장
이상민	중세사 1	석사과정	회계
김영명	현대사	석사과정	편집부장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한국사 학우회 회칙

제정 : 2010년 9월 14일

1차 개정 : 201년 1월 31일

2차 개정 : 2012년 2월 29일

3차 개정 : 2012년 8월 30일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한국사 학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는 원우의 자율 조직으로서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돕고, 대내외의 필요한 활동 및 행사를 주관,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운영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생을 운영회원으로 한다.
2.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휴학생을 일반회원으로 한다.
3. 일반회원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회의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와 회원의 자치적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저항하고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목적과 제반활동이 개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회장 및 운영위원에게 의사를 표명한다).
4. 본회의 운영회원은 회장 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5. 본회의 운영회원은 운영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6. 본회의 운영회원은 총회 및 그 밖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본회의 운영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8.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본회는 제2조(목적)를 달성하고, 제반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양한 국(부)을 둘 수 있다. 국(부)의 명칭 및 수, 각 국(부)별 위상은 당 회기 운영위원회 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교류 및 사업)

본회의 발전을 위해 타 조직 및 사회 단체와 교류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7조 (지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정책을 입안, 결정하는 최고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세부전공별 대표 : 선사/고대사, 중세사1(고려), 중세사2(조선), 근대사, 현대사 각 1인.
단, 세부전공별 운영회원이 2인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을 공석으로 둘 수 있다.
3. 회계담당 : 운영위원 중 1인

제9조 (운영위원의 자격)

1. 회장의 자격 : 본회의 운영회원으로서 원우들 간에 신망이 있고 교수진과 원우들 사이의 의견 교환 및 업무 협조를 이끌 수 있는 자(회장은 세부전공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단, 회계는 겸임할 수 없다).
2. 세부전공대표의 자격 : 본회의 운영회원으로 각 세부전공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선임된 자.

제10조 (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다음 회기 회장의 선출시까지 한 학기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은 임기 동안의 직무를 대행한다.
-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장 및 운영위원의 선임)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후보자는 운영회원의 추천과 1인 이상의 제청으로 선정한다. 복수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총회 참석인원 표결로 다수표를 획득한 자로 선출하고, 단수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선출되는 것으로 한다.
- 회계담당은 운영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위원회 내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제12조 (업무와 권한)

- 회장
 - 회장은 본회 전체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 회장은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 본회의 대표권을 갖는다.
 - 회장은 본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회원을 관리하며, 본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을 회원들에게 공지, 홍보한다.
- 운영위원
 - 각 세부전공을 대표하여 전공별 업무를 총괄하고, 전공별 모임을 소집 및 주관한다.
 -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회계 담당은 본회의 수입 및 지출을 담당·관리하고, 정기 총회에서 이를 결산 보고한다.
- 운영위원은 본회 내의 특별기구(위원회) 신설을 요구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은 이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특정 사업 집행 요구권, 회칙 개정 발의권을 가진다.
- 운영위원은 본회 회원에게 모든 업무 및 결의사항을 보고하고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 운영위원은 임기 중 모든 활동을 기록·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및 의결)

- 운영위원회의 : 회장의 주재 하에 운영위원을 소집하여 총회의 개최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의에서 중요 안건을 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안건의 채택 여부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

회장의 판단에 일임한다.

-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안건에 대해 운영회원 전체의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참가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투표 방식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제14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 : 매학기 직전(2월, 8월)에 개최하며, 본회 사업과 운영위원 조직 보고 및 재정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 : 운영회원 1/1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의결 : 해당 안건에 대해 참석 운영회원의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운영회원의 1/3 이상이 참석시 성립한다.

제 4 장 재정

제15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집행한다.
 - 회비 : 운영회원은 회기(한 학기)에 한 번 이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 기타 수입 : 회원 및 비회원의 찬조금, 학교 지원금 등 회비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 회원의 탈퇴 및 제명시 회비를 환불할 수 없다.

제16조 (회계 기간)

본회의 회계 기간은 회장의 임기기간 한 학기로 한다.

제17조 (결산 보고)

- 정기 총회시 회계 담당이 회계 기간 내 재정을 결산 보고한다.
- 운영위원회의는 결산 보고 내용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제 5 장 회칙 개정

제18조 (발의)

본 회칙에 대한 개정 발의는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운영회원 1/10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의 발의.

제19조 (공고)

발의시 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제20조 (의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에서 제14조에 따라 의결하고 확정한다.

제21조 (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22조 (효력)

확정된 회칙 개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준용회칙)

차후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1.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에 부친다.
2. 통상시, 민주적 관례에 준하여 운영 및 집행한다.
3.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시 운영위원회에서 제13조에 따라 결정한다.